

제5권 제2호

장애인복지 연구

DISABILITY & SOCIAL WELFARE

목 차

1. 성인지적장애인의 주거형태에 따른 삶의 질	1
오혜경·정한나	
2. 체육활동이 지적장애인의 신체변화와 행동적응 및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25
백삼현	
3. 발달장애청소년가족의 토요음악활동에 대한 효과성 연구	51
하트하트재단·최원희	
4. 장애인활동보조인의 직업의식과 자기효능감에 관한 연구	73
오혜경·임혜영	
5. 장애인주거시설 환경에 대한 실천가 인식 연구	99
이복실	



성인지적장애인의 주거형태에 따른 삶의 질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오 혜 경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 정 한 나

【국문초록】

본 연구에서는 성인지적장애인의 일반사항, 성인지적장애인의 삶의 질에 대한 조사와 함께 성인지적장애인의 주거형태를 알아보았다. 더불어 주거형태에 따른 가족의 삶의 질 그리고 지적장애인의 주거형태가 가족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등에 관해 살펴보았다. 지적장애인의 주거형태에 따른 가족의 삶의 질의 차이는 모두 $p < .1$ 수준에서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의 삶의 질과의 차이는 그룹홈, 원가정, 생활시설의 순이었다.

자료분석 결과, 첫째, 성인 지적장애인의 현재 주거형태는 원가정이 55.8%로 가장 많았으며, 미래 원하는 주거형태는 그룹홈이 52.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현재 원가정에 거주하는 경우 약 60%가 미래에 주거서비스를 이용하기를 원했으며, 주거서비스를 이용 중인 그룹홈 집단과 생활시설 집단에서는 두 집단 모두 90% 이상이 미래에도 주거서비스를 이용하기를 희망하였다. 둘째, 지적장애인의 주거형태에 따른 가족의 삶의 질의 차이는 모두 $p < .1$ 수준에서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가족의 삶의 질과의 차이에서는 그룹홈 평균이 3.4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원가정, 생활시설의 순이었다. 그리고 성인지적장애인의 주거형태는 가족의 삶의 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적장애인이 원가정에서 생활하든, 그룹홈이나 생활시설에서 생활하든 가족의 삶의 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다.

주거형태에 따른 가족의 삶의 질의 차이에서는 $p < .1$ 수준에서 그룹홈, 원가정, 생활시설 순으로 나타났다. 즉, 그룹홈에서 가족의 삶의 질은 가장 높았으며, 생활시설에서 삶의 질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주제어 : 성인지적장애인, 주거형태, 원가정, 그룹홈, 생활시설, 삶의 질

I. 서론

우리나라에서 장애인 주거형태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1981년 제정된 심신장애자복지법에서부터 비롯되었으며, 그 뒤를 이어 생활보호법(1982)과 장애인복지법(1989)이 전문 개정되었다. 1990년 이후에는 장애인복지관이 대폭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고, 재가장애인 순회재활서비스센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Group Home)¹⁾, 장애인단기보호시설 등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러한 추세는 전통적인 시설보호중심서비스에서 지역사회중심서비스로의 변화로 설명될 수 있다(김용득 외, 2007).

지적장애인의 주거형태에 관한 선행연구에 의하면, 평생계획안에서의 주거계획을 살펴 보거나(은홍수, 2002; 고인숙, 2004; 송성권, 2004; 손진희, 2007; 서남숙, 2008; 조미연, 2009), 주거형태를 원가정, 그룹홈, 장애인생활시설로 분류하여 주거형태가 지적 장애인 본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해 연구하였다(김영석, 1999; 박공식, 2003; 박성우·신현기, 2003; 이순자, 2008). 또는, 주거형태의 하나인 그룹홈에 대해 연구하였다(김하수, 1992; 이상열, 2005; 강동현, 2008). 선행연구에 의하면, 지적장애인의 가족은 주거계획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주거유형을 지적장애인의 사회통합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보았다. 또한 사회통합 즉, 지역사회 내 거주를 원칙으로 하는 그룹홈은 재정과 인력 부분에서 여러 문제점들을 보여주었다. 그러므로 지적 장애인에게 큰 영향을 미치며 이들의 가족에게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주거형태에 관한 문제는 지적장애인과 가족의 삶의 질이라는 넓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연구·개발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는 첫째, 기술분석 차원에서 조사 대상자인 성인지적장애인의 일반사항, 성인 지적장애인의 삶의 질에 대한 조사와 함께 성인 지적장애인의 주거형태를 알아보는데 있다. 둘째, 차이분석 및 설명적 분석 차원에서 주거형태에 따른 가족의 삶의 질 그리고 지적장애인의 주거형태가 가족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등에 관해 살펴보았다.

1) 현재 우리나라는 공동생활가정(Group Home)과 그룹홈이라는 용어를 혼용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그룹홈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성인 지적장애인의 주거형태의 현황과 개념

지속적으로 우리나라의 재가장애인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²⁾ 지적장애인 분야에서도 나타났으나, 시설 지적장애인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시설장애인의 감소 추세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³⁾

생활시설에 관한 연구들에서는 장애인생활시설의 필요성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기존의 지역사회와 고립된 위치에 대규모로 운영되는 시설보다는 지역사회 내에 위치한 소규모의 시설로서 가정과의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한 형태의 장애인생활시설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약한다면 장애인생활시설의 그룹홈화를 원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곽순호, 1998; 김보경, 1989; 김하수, 1992). 그러나 어느 한 형태의 주거유형이 가장 좋다고 말할 수는 없으며, 지적장애인과 그 가정이 처해 있는 다양한 상황과 그들이 갖고 있는 복합적인 문제에 따라, 이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입장에서 적절한 보호가 이루어져야 한다(조성숙, 1996 p.27 재인용).

주거유형을 세 가지로 살펴보면 첫째, 원가정은 자기가 태어난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2) 지난 10년 동안의 재가장애인과 시설장애인의 추세를 살펴보면, 재가장애인은 1995년에서 2000년 사이에 불과 약 40만명이 증가한 139만8천명인데 비해, 2000년에서 2005년 사이에는 70만명이 증가한 210만1천명이었다. 반면 시설장애인은 1995년에서 2000년 사이에 2만4천 명에서 5만1천명으로 2배 이상의 증가율을 보였으나, 2000년에서 2005년 사이에는 40만명 정도가 감소하여 4만7천명이었고, 2008년도에는 3만4천명이었다. 이러한 재가장애인의 증가와 시설장애인의 감소는 근래 30년 동안 우리 사회에 뿌리내린 사회통합과 정상화 원리의 영향으로 여겨진다(보건복지가족부, 2009).

3) 근래 30여년에 걸쳐 지적장애인의 주거서비스에 있어서 주요 추진 원동력이 된 것은 정상화 원리이다. 정상화 원리에 의하면 지적장애인도 한 인간으로서, 그리고 한 사회인으로서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가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서비스와 복지정책은 시혜적 차원이 아니라 권리적인 차원에서 실시되어야 한다. 지적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들은 이들을 사회의 주류에 최대한으로 통합시킬 수 있는 장기적인 독립성과 자조능력, 자립성을 준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어야 한다는 것이 정상화 원리의 주요 핵심목표이며, 이를 실천하기 위한 하나의 측면으로 지적장애인의 주거환경에 대한 주의와 관심이 높아졌다(김명선·임해용·조병주·김경순, 1995).

탈시설화(deinstitutionalization), 정상화 이념과 더불어 지적장애인들이 지역사회 내에 거주하면서 지적장애인의 가족들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대상이 되었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신의 사후에 누가 장애자녀를 돌볼 것인가 하는 문제로 고심하고 있으며(김은숙, 1997), 특히 성인 지적장애인의 경우 결혼 등으로 독립시킬 계획을 가진 경우는 다른 장애인에 비해 극히 미미하였다(조옥현, 1991; 곽순호, 1998). 이에 대해 Bain(1998)은 장애가 심한 사람에게 최소한의 규제를 제공하기 위해 이들을 원가정에 머물게 하는 것은 결국 가족에게 최대한의 규제를 주는 상황이 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가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그는 지역사회 내에 장애인을 위한 주거시설을 마련하여 지속적인 안정감을 제공하고 가족들이 장애인의 삶과 관련된 여러 가지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서미경, 2000 p.110 재인용). 또한 Esping-Anderson(1999)은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적극적 국가 제공 서비스의 개념으로 탈가족화(defamilization)를 제안하였다. 탈가족화는 가족이 갖는 부양부담을 가족 내에서 해결하도록 방지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밖의 범위에서 국가와 사회가 가족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적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한다(신정윤, 2007).

살아가는 주거형태로, 가장 오래되고 보편적인 주거유형이며, 가장 자연적이고 바람직한 환경으로 인정받고 있다(박공식, 2003; 이순자, 2008). 둘째, 그룹홈은 지적장애인들이 정상적인 환경에서 정상적인 생활리듬을 가질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탈시설화와 정상화의 이론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룹홈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에서도 그룹홈에서의 생활이 지적장애인의 사회통합(김영석, 1999; 박승탁·황석웅, 2008), 자기결정능력(박공식, 2003; 이순자, 2008)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생활지도 교사의 재량에 의지해야 하는 부분이 많으며(박승탁·황석웅, 2008), 4~6명의 지적장애인을 한명의 생활지도교사가 담당하는 구조는 중증의 지적장애인들에게는 적합하지 않다는 한계점이 있어 보다 다양한 형태의 그룹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셋째, 장애인생활시설은 공적인 사회복지서비스의 일환으로 자립생활이 곤란하거나 재가보호가 부적합한 지적장애인과 중증 또는 무연고 지적장애인들에게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거형태이다.

2. 성인 지적장애인의 주거형태에 관한 선행연구

주거형태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첫째, 주거형태가 지적장애인과 그 가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연구되거나 둘째, 평생계획(permanency planning)이라는 큰 틀 안에서 한 부분으로 다루어졌다. 셋째, 주거형태의 하나인 그룹홈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되었다.

먼저 주거형태가 지적장애인과 그 가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1980년대 연구들은 주거유형을 지역사회 내의 집단가정, 대리가정, 외딴곳에 존재하는 집단가정, 입양가정, 대형시설로 분류하거나, halfway house, group home, board room, apartment, nature home으로 분류하였다(김보경, 1989; 문정희, 1985). 그러나 이러한 분류는 우리나라에서의 선행연구가 미흡한 상황에서 외국의 주거 분류 방식을 활용한 것으로 90년대 이후로는 대부분의 연구에서 우리나라의 장애인 주거유형을 원가정, 그룹홈, 장애인생활시설로 분류하였다(김영석, 1999; 박공식, 2003; 이순자, 2008; 조성숙, 1996).

지적장애인의 주거형태에 관한 여러 연구자들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본 바, 주거형태는 원가정, 그룹홈, 장애인생활시설로 분류할 수 있으며(김영석, 1999; 박공식, 2003; 이순자, 2008), 장애인 부모의 대다수는 주거서비스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주거·재정·법률계획으로 분류되는 평생계획에서 주거계획은 가장 어려운 계획으로 가정 내



에서 해결하기 보다는 사회의 도움이 필요하였다(고은숙, 2004; 백운현, 2002; 서남숙, 2008; 서미경, 2000; 송성권, 2004; 손진희, 2007; 은홍수, 2002; 조미연, 2009). 또한 그룹홈에 관한 연구에서는 연령, 장애정도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그룹홈이 필요함과 정부차원의 안정적인 재정 및 인력지원 등이 필요함을 언급하였다(고은숙, 2004; 강석동, 1993; 김영석, 1999; 김은숙, 1997; 김하수, 1992; 박공식, 2003; 박승탁·황석웅, 2008; 서남숙, 2008; 이순자, 2008; 조미연, 2009; 조옥현, 1991).

3. 성인 지적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에 관한 선행연구

지적장애인의 가족의 삶의 질에 관한 여러 연구자들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본바, 장애아 가족은 비장애아 가족에 비해 가족의 삶의 질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요인에 비해 경제적 요인이 가족의 삶의 질에 더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이민호, 2003; 이창미, 2005). 또한, 가족과 장애인의 성별, 학력, 연령 등의 인구사회학적 변인은 가족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김하경, 2007; 이민호, 2003; 이창미, 2005; 오세철, 2006; Park, 2001), 자녀의 장애정도는 가족의 삶의 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하경, 2007; 이창미, 2005; 오세철, 2006; Park, 2001).

6 장애인복지 연구

<표 1> 장애인 가족 삶의 질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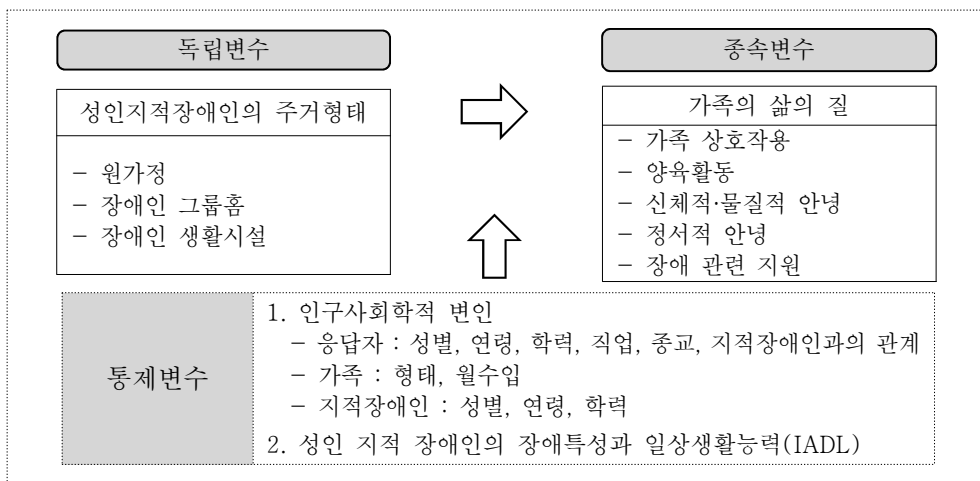
연구자	장애인 가족 삶의 질에 대한 연구
오세철(2006)	가족 삶의 질의 중요도와 만족도 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음. 장애가족의 삶의 질에 미치는 관련 변인은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언급
김하경(2007)	장애정도만이 가족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쳤으며 이러한 결과는 오세철(2006)의 연구결과와 비슷함
이창미(2005)	가족의 기능 강화를 통해 긍정적인 방법으로 가족 삶의 질 향상을 꾀하여야 함을 강조
김예리(2008)	부모자조활동은 장애아동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가족역량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나, 삶의 질의 변화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
성민정(2009)	레스핏 케어는 양육 스트레스와 양육 효능감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가족 삶의 질 간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음
Park(2001)	장애가족에 있어 조기 개입의 중요성을 언급 가족 삶의 질 하위요인 중 가족의 상호작용과 양육활동은 경제적 안녕과 일상생활보다 더 중요하게 인식
Park et al. (2003)	가족 내에서의 장애아동이 가족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언급. 장애관련 지원과 관련된 항목을 따로 분류
Hoffman et al. (2006)	정신과적인 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장애 가족 삶의 질을 분류 척도의 중요도와 만족도,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인

출처 : 각 학자들의 연구내용을 본 연구자가 요약·정리한 표임

Ⅲ. 연구방법

1. 연구의 분석틀 및 연구문제

성인 지적장애인 주거형태와 가족의 삶의 질을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의 분석틀을 설정하였다.



[그림 1] 연구의 분석틀

연구문제는 첫째, 성인지적장애인의 주거형태에 따른 가족의 삶의 질 수준에 차이가 있는가? 그리고 둘째, 주거형태가 가족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가? 이다.

2. 연구대상자 선정 및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에서는 시간적·공간적 한계 및 연구 동의에 대한 확보 등을 고려하여 서울,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임의표본추출(convenience sampling)을 통하여 연구대상자를 선정하였다. 연구대상 선정은 다단계로 진행되었다. 연구대상자를 선정하기에 앞서 조사기관을 선정하였다. 조사기관은 주거형태에 따라 원가정, 그룹홈, 장애인생활시설로 분류하였다. 연구대상자는 선정된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였거나, 이용 중인 성인 지적장애인의 가족으로 선정하였다. 성인 지적장애인의 연령은 장애인복지법에서의

장애아동과 성인장애인의 구분에 따라 18세 이상으로 하였다. 총 119개 기관에 653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고, 92개 기관에서 375명이 설문지를 작성하였고, 321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3. 측정도구 및 설문지

설문지 구성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2> 설문지 구성요소

	구분	내용	문항수	신뢰도
독립 변수	장애인의 주거형태	원가정, 그룹홈, 장애인생활시설	3	
종속 변수	가족의 삶의 질 Turnbull 등(2004)이 제작한 '가족의 삶의 질 척도(Family Quality of Life Scale)'를 참고한 오세철(2006)의 척도	가족의 삶의 질		.922
		- 가족 상호작용	6	.837
		- 양육활동	6	.802
		- 신체적·물질적 안녕	5	.618
		- 정서적 안녕	4	.663
		- 장애 관련 지원	4	.861
통제 변수	인구사회학적 변인	- 응답자 : 성별, 연령, 학력, 직업, 종교, 관계	6	-
		- 가족 : 형태, 월수입	2	
		- 지적장애인 : 성별, 연령, 학력	3	
	지적장애인의 특성 김근조(2001)와 고은숙(2004)이 사용한 Lawton & Brody(1971)의 IADL 측정도구	- 장애등급 - 일상생활능력	1 9	- .923

4.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분석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여 분석하였다.

둘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기술통계분석(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등)을 실시하였다.

셋째, 각 변수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상관관계분석(Correlation Analysis)과 집단별 차이 분석을 위한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 및 각 변수들 간의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IV. 자료분석 결과

1. 성인 지적장애인의 주거형태

성인 지적장애인의 주거형태는 원가정, 그룹홈, 생활시설로 분류하였으며, 주거형태는 현재 주거형태와 미래 원하는 주거형태를 측정하였다. 독립변수인 주거형태란 원가정, 성인 지적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자기가 태어난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살아가는 주거형태를 의미한다. 그룹홈, 성인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내에 설치된 주거시설로서 소규모 인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생활지도교사인 복지사로부터 도움과 지도를 받으며 생활하는 주거형태를 의미한다. 장애인생활시설, 장애인복지법 제 58조에 의거하여 장애인이 필요한 기간 생활하면서 재활에 필요한 상담·치료·훈련 등의 서비스를 받아 사회복귀를 준비하거나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요양하는 시설로, 이러한 법적 근거에 의해 설립된 대규모 인원의 장애인주거시설을 의미한다.

<표 3>을 살펴보면, 현재 주거형태부터 살펴보면 원가정이 179명(55.8%)으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장애인생활시설, 그룹홈의 순으로 나타났다. 미래 원하는 주거형태는 그룹홈이 169명(52.6%)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원가정, 장애인생활시설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적장애인의 주거형태에 대한 가족의 응답에서 현재 55.8%가 원가정에서 살고 있으나, 미래에는 50% 이상의 응답자가 지적장애인이 그룹홈에 살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표 3> 성인 지적장애인의 주거형태 기술통계분석

변수	구분	빈도(명)	백분율(%)
현재 주거형태	원가정	179	55.8
	그룹홈	65	20.2
	장애인생활시설	70	21.8
	합계(N)	314	97.8
미래 원하는 주거형태	원가정	78	24.3
	그룹홈	169	52.6
	장애인생활시설	53	16.5
	합계(N)	300	93.5

* N값의 차이는 결측값에 의한 것임



현재 주거형태와 미래 원하는 주거형태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주거형태가 원가정과 그룹홈으로 확연히 차이가 있었으며, 주거형태에 대한 교차분석을 한 내용은 <표 4>와 같다.

<표 4> 현재 주거형태 × 미래 원하는 주거형태

(N = 300)

구 분		미래 원하는 주거형태			전체	
		원가정	그룹홈	생활시설		
현재 주거형태	원가정	빈도	67	84	18	169
		현재주거형태 중 %	39.6	49.7	10.7	100.0
	그룹홈	빈도	4	55	3	62
		현재주거형태 중 %	6.5	88.7	4.8	100.0
	생활시설	빈도	7	30	32	69
		현재주거형태 중 %	10.1	43.5	46.4	100.0
전체		빈도	78	169	53	300
		현재주거형태 중 %	26.0	56.3	17.7	100.0

* N값의 차이는 결측값에 의한 것임

현재 지적장애인의 주거형태가 원가정인 경우 과반수 이상이 미래에 주거서비스 이용을 원하였고, 그 비율에 있어서는 그룹홈을 원하는 경우가 84명(49.7%)으로 훨씬 높았다. 현재 지적장애인이 그룹홈과 생활시설의 주거서비스를 이용 중인 경우 대부분의 가족은 미래에도 주거서비스 이용을 희망하였다. 그 비율에 있어서는 그룹홈이 그룹홈을 선호하는 경우가 55명(88.7%)으로 압도적이었으며, 생활시설은 생활시설 32명(46.4%), 그룹홈 30명(43.5%)으로 미미한 차이로 생활시설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석될 수 있다. 그룹홈의 경우 생활시설보다 이용료 등에서 경제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며, 장애등급이 중증인 경우 낮시간 동안 작업장 이용 등의 외부활동을 해야 하는 그룹홈의 일반적인 특성에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원가정이 원가정을 원하는 비율이 39.6%로 나타난 것과 관련하여 부모는 성인장애자녀를 독립시키는 것에 대해 죄의식을 갖고 있으며, 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자녀가 비장애인에게 이용당하지 않을까 하는 피해의식과 두려움, 편견 등의 문제를 나타내기도 한다(김용득 외, 2007).

2. 주요 변수들 간의 차이 및 관계

본 절에서는 주거형태에 따른 가족의 삶의 질을 파악하기 위해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성인 지적장애인 주거형태에 따른 가족 삶의 질의 차이

성인 지적장애인의 주거형태에 따른 가족의 삶의 질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과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표 5>는 주거형태에 따른 '가족의 삶의 질 전체' 평균을 비교한 것이다. 그룹홈 평균이 3.4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원가정이 3.41, 생활시설이 3.28로 가장 낮았다. 통계적으로 이들 집단 간에는 $p < .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2.461, p=.087$).

<표 5> 성인 지적장애인의 주거형태에 따른 '가족의 삶의 질(전체)'의 평균비교

현재 주거형태	빈도(명)	평균(M)	표준편차(SD)	F	Sig
원가정	179	3.41	.534	2.461	.087+
그룹홈	65	3.47	.529		
생활시설	70	3.28	.534		
합계	314	3.40	.534		

+ $p < .1$

각 집단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사후검증(LSD)을 실시한 결과 <표 6> 원가정과 그룹홈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며, 생활시설과는 각각 $p < .1, p < .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지적장애인의 주거형태가 장애인 생활시설보다는 원가정과 그룹홈인 경우 가족의 삶의 질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6> 성인 지적장애인의 주거형태에 따른 '가족의 삶의 질(전체)' 사후검증 LSD

(I)주거형태	(J)주거형태	평균차(I-J)	표준 오차 오류	유의확률	90% 신뢰구간	
					하한값	상한값
원가정	그룹홈	-.05722	.07691	.457	-.1841	.0697
원가정	생활시설	.13525+	.07487	.072	.0117	.2588
그룹홈	생활시설	.19247*	.09148	.036	.0415	.3434

+ $p < .1$ * $p < .05$



<표 7>은 주거형태에 따른 '가족 상호작용' 평균을 비교한 것이다. 원가정 평균이 3.55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그룹홈, 생활시설 순이었으며, 통계적으로 이들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5.782, p=.003). 주거형태에 따른 가족 상호작용은 가족의 삶의 질 하위요인 중 유일하게 원가정의 평균이 그룹홈의 평균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다. 원가정은 지적장애인이 가족과 함께 거주하므로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으며, 그룹홈과 생활시설에서의 차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표 7> 성인 지적장애인의 주거형태에 따른 '가족 상호작용'의 평균비교

현재 주거형태	빈도(명)	평균(M)	표준편차(SD)	F	Sig
원가정	179	3.55	.608	5.782	.003**
그룹홈	65	3.53	.638		
생활시설	70	3.25	.680		
합계	314	3.48	.640		

**p<.01

<표 8>에 제시된 바와 같이 사후검증(LSD)을 실시한 결과 원가정과 그룹홈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며, 생활시설과는 각각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p<.05).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보아 지적장애인의 주거서비스가 원가정에 가까울수록 가족 상호작용이 높아짐을 짐작할 수 있다.

<표 8> 성인 지적장애인의 주거형태에 따른 '가족 상호작용' 사후검증 LSD

(I)주거형태	(J)주거형태	평균차(I-J)	표준 오차 오류	유의확률	90% 신뢰구간	
					하한값	상한값
원가정	그룹홈	.01513	.09135	.869	-.1646	.1949
원가정	생활시설	.29455*	.08893	.001	.1196	.4695
그룹홈	생활시설	.27941*	.10866	.011	.0656	.4932

*p<.05

<표 9>는 주거형태에 따른 '양육활동' 평균을 비교한 것이다. 그룹홈 평균이 3.58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원가정, 생활시설 순으로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이들 집단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였다(F=4.298, p=.014).

<표 9> 성인 지적장애인의 주거형태에 따른 '양육활동'의 평균비교

현재 주거형태	빈도(명)	평균(M)	표준편차(SD)	F	Sig
원가정	179	3.54	.607	4.298	.014*
그룹홈	65	3.58	.563		
생활시설	70	3.31	.652		
합계	314	3.50	.615		

*p<.05

각 집단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사후검증(LSD)을 실시한 결과 <표 10>, 원가정과 그룹홈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며, 생활시설과는 각각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p<.05). 이러한 결과는 지적장애인이 생활시설보다는 원가정에 거주할 경우, 원가정보다는 그룹홈에 거주할 경우 가족이 느끼는 양육활동에 관한 가족의 삶의 질 평균이 높음을 의미한다.

<표 10> 성인 지적장애인의 주거형태에 따른 '양육활동' 사후검증 LSD

(I)주거형태	(J)주거형태	평균차(I-J)	표준 오차 오류	유의확률	90% 신뢰구간	
					하한값	상한값
원가정	그룹홈	-.04802	.08811	.586	-.2214	.1253
원가정	생활시설	.22485*	.08577	.009	.0561	.3936
그룹홈	생활시설	.27288*	.10480	.010	.0667	.4791

*p<.05

<표 11>은 주거형태에 따라 '신체적·물질적 안녕' 평균을 비교한 것이다. 그룹홈 평균이 3.3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원가정과 생활시설의 평균은 3.26으로 평균값의 차이가 없었다. 통계적으로 이들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F=.383, p=.682).

<표 11> 성인 지적장애인의 주거형태에 따른 '신체적·물질적 안녕'의 평균비교

현재 주거형태	빈도(명)	평균(M)	표준편차(SD)	F	Sig
원가정	179	3.26	.717	.383	.682
그룹홈	65	3.34	.603		
생활시설	70	3.26	.582		
합계	314	3.28	.665		

<표 12>는 주거형태에 따른 '정서적 안녕'의 평균을 비교한 것이다. 그룹홈 평균이 3.2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원가정, 생활시설 순으로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이들 집단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다($F=.529, p=.590$).

<표 12> 성인 지적장애인의 주거형태에 따른 '정서적 안녕'의 평균비교

현재 주거형태	빈도(명)	평균(M)	표준편차(SD)	F	Sig
원가정	179	3.20	.663	.529	.590
그룹홈	65	3.29	.679		
장애인생활시설	70	3.19	.597		
합계	314	3.22	.651		

<표 13>은 주거형태에 따라 '장애 관련 지원' 평균을 비교한 것이다. 그룹홈 평균이 3.5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원가정, 생활시설 순으로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이들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F=1.234, p=.293$).

<표 13> 성인 지적장애인의 주거형태에 따른 '장애 관련 지원'의 평균비교

현재 주거형태	빈도(명)	평균(M)	표준편차(SD)	F	Sig
원가정	179	3.43	.672	1.234	.293
그룹홈	65	3.54	.717		
생활시설	70	3.37	.578		
합계	314	3.44	.663		

2) 성인 지적장애인 주거형태가 가족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성인 지적장애인의 주거형태가 가족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표 14>에 제시된 바와 같이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R^2=.215$ 로 약 21.5%의 설명력을 가지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F=3.479, p<.01$).

통제변수 중 가족의 인구사회학적 변인에서는 가족의 학력($\beta=.191, p<.01$)이 높을수록, 지적장애인과 관계가 형제자매인 경우($\beta=.304, p<.05$)에 가족의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족구성원이 기타 가정인 경우($\beta=-.162, p<.05$) 즉, 부모가 모두 없는 경우 삶의 질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수입($\beta=.166, p<.05$)은 높을수록 가족의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적장애인의

인구사회학적 변인에서는 지적장애인의 학력($\beta = -.171, p < .05$)이 낮을수록 가족의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적장애인의 특성 변인 중에서는 지적장애인의 일상생활능력($\beta = .335, p < .01$)이 높을수록 가족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 성인 지적장애인의 주거형태가 가족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변 수		가족의 삶의 질			
		B	β	t	Sig
상수		2.281		6.567	.000
가족의 인구사회학적 변인	성별	.173	.135	1.191	.235
	연령	.006	.111	1.337	.183
	학력	.033	.191	2.881**	.004
	직업	.029	.028	.408	.684
	종교	.084	.072	1.141	.255
	지적장애인과의 관계 (부모기준)형제자매	.366	.304	2.587*	.010
	(부모기준)기타	.126	.049	.659	.511
	가족구성원 (부모가정기준)한부모가정	-.083	-.043	-.610	.543
	(부모가정기준)기타가정	-1.303	-.162	-2.532*	.012
	월평균수입	.000	.166	2.477*	.014
지적장애인의 인구사회학적 변인	성별	-.063	-.062	-.968	.334
	연령	-.008	-.095	-1.072	.285
	학력	-.034	-.171	-2.529*	.012
지적장애인의 특성변인	장애등급 (1급기준)2급	-.090	-.085	-1.146	.253
	(1급기준)3급	-.139	-.111	-1.397	.164
	일상생활능력	.292	.335	4.500***	.000
지적장애인의 주거형태 (원가정기준)	그룹홈	.057	.055	.638	.524
	생활시설	.006	.005	.069	.946
R ²		.215			
Adj R ²		.154			
F		3.479***			

*p<.05, **p<.01, ***p<.001

V. 결 론

자료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성인 지적장애인의 현재 주거형태는 원가정이 55.8%로 가장 많았으며, 미래 원하는 주거형태는 그룹홈이 52.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현재 원가정에 거주하는 경우 약 60%가 미래에 주거서비스를 이용하기를 원했으며, 주거서비스를 이용 중인 그룹홈 집단과 생활시설 집단에서는 두 집단 모두 90% 이상이 미래에도 주거서비스를 이용하기를 희망하였다. 그 유형에 있어서는 그룹홈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여 가족은 생활시설보다는 지역사회 내에 거주하며 가족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그룹홈 서비스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지적장애인의 주거형태에 따른 가족의 삶의 질의 차이는 모두 $p < .1$ 수준에서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가족의 삶의 질과의 차이에서는 그룹홈 평균이 3.4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원가정, 생활시설의 순이었다.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가족의 삶의 질에서는 가족 상호작용과 양육활동이 유의미하게 차이를 나타냈다. 가족 상호작용 면에서는 원가정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사후검증결과 원가정과 그룹홈에서는 차이가 없었으며 원가정과 생활시설, 그룹홈과 생활시설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주거서비스가 원가정과 유사한 환경을 제공할수록 가족의 상호작용이 높아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성인지적장애인의 주거형태는 가족의 삶의 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적장애인이 원가정에서 생활하든, 그룹홈이나 생활시설에서 생활하든 가족의 삶의 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다.

성인 지적장애인의 현재 주거형태는 원가정이 가장 많았으며, 미래 원하는 주거형태는 그룹홈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였다. 주거형태에 따른 가족의 삶의 질의 차이에서는 $p < .1$ 수준에서 그룹홈, 원가정, 생활시설 순으로 나타났다. 즉, 그룹홈에서 가족의 삶의 질은 가장 높았으며, 생활시설에서 삶의 질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성인지적장애인의 가족을 대상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적절한 지적장애인의 주거형태를 살펴봄으로써 그동안 소홀했던 성인 지적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에 대한 연구범위를 확대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 현재 주거형태와 미래 원하는 주거형태에서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밝혔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대부분의 가족들은 지적장애인이 미래에 그룹홈에 거주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그룹홈에 대한 연구들(강동현, 2008; 김용득, 2009; 김정수, 2008; 박승탁·황석웅, 2008; 이상열, 2005)에서 그룹홈의 양적·질적 확대의 필요성을 주장한 부분을 뒷받침해 주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양적측면에서 살펴보면, 현재 전국적으로는 450여개의 그룹홈이 운영되고 있으나 그룹홈 입소 인원이 4명임을 고려한다면 입소가 가능한 인원은 1800명 정도이며, 이는 우리나라 지적장애인 14만6천명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이다. 질적인 면에서는 그룹홈 이용자와 그 가족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법적인 보호체계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의 결과에서 지적장애인의 주거형태가 가족의 삶의 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이유를 찾고자 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그룹홈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며, 장애인생활시설은 입소자격을 무연고자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제한하거나 이들에게 우선권을 줌으로써 선택의 폭을 제한하고 있다(김용득, 2009). 이렇듯 주거형태에 대한 제한된 선택의 폭은 가족과 지적장애인을 위한 적합한 주거형태의 선택권을 보장해 주지 못함을 의미한다.

가족과 지적장애인에게 적합한 주거형태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주거서비스 공급이 다양화 되고,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 외국의 주거서비스 사례를 살펴보면, 독일의 경우 소그룹형 주거시설, 집단가정, 단독과 부부가정, 부모-자녀가정 등이 있으며(하춘자, 2006), 일본의 경우에는 통근료, 복지홈, 그룹홈, 케어주택, 생활홈 등이 운영되고 있다(강동현, 2008). 주거형태의 또 다른 유형으로는 라쉬 공동체(L'Arche Community)와 영국의 캠프힐(Camphill) 등의 장애인 공동체(Community)가 전 세계적으로 퍼져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외국의 다양한 사례를 참고하여 보다 다양한 주거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주거형태에 따른 가족의 삶의 질의 차이에서 그룹홈이 가장 높은 평균치를 나타냈으며, 이러한 결과를 통해 원가정에서의 재가 지적장애인과 그 가족을 위한 서비스가 원활하게 공급되지 못하고 있음을 추론해 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성인 재가 지적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장애인종합복지관 차원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제언한다. 부모가 젊고 경제력이 있을 때에는 장애자녀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받는데 있어 큰 어려움이 없겠지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경제력과 정보수집능력, 활동능력 등이 감소하므로 자녀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과 평생서비스는 지적장애인이 원가정 내에서 가족과 함께 살아가는데 있어 중요한 요인이 아닐 수 없다.



더불어 본 연구는 지적장애인이 그룹홈이나 원가정보다 생활시설에 거주하는 경우 삶의 질은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음을 밝혔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주거형태에 따른 가족의 삶의 질의 차이에서 가족은 주거형태에 따라 가족의 삶의 질의 하위요인 중에서 가족 상호작용과 양육활동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이는 원가정이나 그룹홈보다 생활시설에서 가족 상호작용과 양육활동에 대해 가족이 느끼는 삶의 질이 낮음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생활시설은 일반적으로 지역사회와 분리되어 있어 지적장애인과 가족과의 관계가 상대적으로 소홀해 지고, 이로 인해 가족은 지적장애인이 제공받는 서비스에 대해 낮은 신뢰감을 가질 수 있다. 그러므로 생활시설은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그 대상을 지적장애인에서 가족으로까지 범위를 넓혀 지적장애인과 가족 간의 원활한 상호교류를 위해 노력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 참고문헌

- 강동현(2008). 장애인공동생활가정(Group Home)의 운영 실태와 개선방안연구-인천지역 중심으로. 인천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민주(2008). 지적장애인의 직업성공요인 분석. 연세대학교 생활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석동(1993). 정신지체인을 위한 집단가정(Group Home) 서비스가 정신지체인과 그의 어머니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곽순호(1998). 소규모 성인 정신지체인 시설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수도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고인숙(2004). 장애인의 평생계획에 관한 연구-정신지체와 발달장애 청소년 부모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규수, 설진화, 이경은, 이기량, 이애재, 이영호, 이지훈, 정원철(2003). 인간행동과 사회환경-한국사회사업연구회. 나눔의 집.
- 김노은(2008). 간질아동 부모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명선, 임해용, 조병주, 김경순(1995). 정신지체인의 거주형태에 따른 ‘삶의 질’에 관한 연구-원가정, 그룹홈, 재활시설의 비교 분석. 정신지체연구, 3, 87-172.
- 김보경(1999). 성인 정신지체자의 지역사회거주대책 마련을 위한 기초조사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선옥(2005). 장애가족과 비장애가족의 가족구조 비교연구. 상명대학교 정치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석(1999). 주거형태가 정신지체인의 사회통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용득(1998). 장애인 주거시설과 그룹홈의 과제. 상황과복지, 4, 160-183.
- _____ (2002). 무엇이 장애인들을 ‘살얼음판’위에 서 있게 하는가? 월간복지동향, 43, 48-52.
- _____ (2008a).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관련 집단들의 인식유형 연구 : Q방법론의 적용. 한국 사회복지학, 60(1), 29-51.
- _____ (2008b). 지적장애인의 거주시설 유형별 자기결정 경험. 한국사회복지학, 60(4), 79-103.
- _____ (2008c). 장애인거주시설 유형별 이용자 보호비용(care-cost) 비교. 사회복지연구, 37, 345-368.
- 김용득, 김진우(1999). 장애인복지의 변천과 전망. 사회복지연구, 14, 71-101.



- 김용득, 변경희, 임성만, 강희설, 이정호, 장기성, 전권일, 조순주(2007). 장애인거주시설 서비스 기능과 구조의 혁신 방안. 보건복지부·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 김은숙(1997). 성인 정신지체인의 노후대책에 관한 연구 - 부모 및 시설의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인철, 견진만, William W. Boyer, 윤광진(2008). 장애인복지법제에 관한 입법평가-지적장애인 그룹홈 법제를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 김정수(2008). 자립생활지원모형을 활용한 지적 장애인 그룹홈에 관한 연구-부천시 사례연구 및 한국형 모형의 탐색.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하경(2007). 장애아 부모를 위한 삶의 질 척도의 타당도 연구. 한국지체부자유아교육학회, 49, 349-363.
- 김하수(1992). 정신지체인을 위한 집단가정(Group Home)의 모형개발. 대구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노영숙(1997). 뇌졸중 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감과 사회적지지.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류정진, 류기섭, 김호진(2008). 2008 장애인 통계. 노동부·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 문정희(1995). 정신박약자 가정의 시설보호 욕구에 관한 조사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공식(2004). 주거형태가 정신지체인의 자기결정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호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성우, 신현기(2003). 경도 정신지체인의 고용상태와 거주형태에 따른 자기결정력과 삶의 질 비교. 특수교육학연구, 38(3), 259-281.
- 박승탁, 황석웅(2008). 그룹홈 지적장애인의 지역사회통합 영향요인. 장애와 고용, 18(2), 211-238.
- 박석돈, 전미리, 노임대(2001). 취업정신장애인 가족들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정신분열증을 중심으로. 재활심리학회, 8(1), 81-105.
- 박현숙(1993).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실태조사 연구. 서울특별시립정신박약자복지관.
- 변용찬, 김성희, 윤상용, 강민희, 손창균, 최미영, 오혜경(2009). 2008년 장애인 실태조사. 보건복지가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백은령(2003). 지체장애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환경요인과 사회통합정도를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서남숙(2008). 지적장애자녀를 위한 부모의 평생계획 수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 서울 경기도 지적장애 부모를 중심으로. 성결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미경(2000). 성인 정신장애인의 평생계획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43, 106-130.
- _____(2001). 성인정신장애인을 돌보는 부모에 관한 연구-정신질환자 부모와 정신지체인 부모의 비교. 신경정신학, 40(3), 443-451.
- 성민정(2009). 레스펫 케어를 포함한 가족지원 프로그램이 장애아동 주 양육자의 양육 스트레스와 양육 효능감 및 가족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손진희(2007). 정신지체자녀를 위한 부모의 자녀평생계획에 관한 연구. 경성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성권(2004). 정신지체 자녀 평생계획에 관한 연구. 한일장신대학교 아시아태평양 국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상윤(1998). 공동생활가정 유형 및 운영기준에 관한 연구. 재활복지, 2(1), 97-130.
- 신숙재, 정문자(1998).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사회적 지원과 부모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학회, 19(1), 27-42.
- 신혜경(1994). 노인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감과 건강상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옥경(1990). 지역사회 정신건강-Pooled time series 모델 분석을 통한 정신분열증 환자의 생활환경과 삶의 질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16, 1-24.
- 양옥경(1996). 닫힌 시설에서 열린사회로 지역사회 정신건강. 나남출판.
- 양화정(2007). 폐암 환자를 돌보는 가족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가실, 채선미, 전나영(2002). 가족부담감 측정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 아동간호학회지, 8(3), 272-280.
- 은홍수(2002). 정신지체인자녀의 평생대책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우상열(2005). 장애인 그룹홈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영준, 임중호, 진혜경(2008). 지체장애인과 지적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적 지지 및 사회통합에 관한 연구. 재활복지, 12(1), 115-137.
- 이순자(2008). 지적장애성인의 주거형태에 따른 가족기능과 자기결정능력간의 관계. 단국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인영, 신용웅(2004). 장애인 공동체에 대한 연구-Camphill을 중심으로. 재활복지, 8(2), 45-76.
- 이혜영(1997). 치매환자 가족의 부담감과 삶의 질과의 상관관계 연구. 삼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희섭(1996). '삶의 질'의 개념적 논의. 한국행정연구, 5(1), 5-18.
- 전미리(2000). 취업정신장애인 가족들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정신분열증을 중심으로. 대구대학교 재활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미숙(2002). 정신지체아 부모의 보호부담과 그 사회적 지지에 관한 실증적 연구. 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일환(1996). 풍요로운 삶 : 교육·문화 측면의 삶의 질. 한국행정연구, 5(1), 59-78.
- 정종화, 주숙자(2008). 자립생활과 활동보조서비스. 양서원.
- 장 비(1995). 한국의 그룹홈 그 실태와 전망. 정신지체연구, 3.
- 조미연(2008). 지적장애인 평생계획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조성숙(1997). 주거유형이 정신지체인에게 미치는 영향.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옥현(1991). 성인 정신지체인을 위한 집단가정(Group Home) 서비스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최재성, 황성동, 장비, 최정균(2001). 장애인공동생활가정(그룹홈)의 실태분석을 통한 성격규 명과 활성화 방향. 사회과학논집, 32, 87-113.
- 허춘자(2006). 장애인의 그룹홈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홍인숙(2006). 정신장애인의 주거계획과 재정계획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Rubin, A. & Babbie, E.(2008). 사회복지조사방법론 제6판. 김기덕·김용석·유태균·이기영·이선우·정슬기(역). Cengage Learning.
- Drew, C. & Hardman, M.(2008). 생의 주기별로 본 지적장애인. 신현기(역). 시그마프레스.
- Evans, D(1994). Enhancing Quality of Life in the Population at Large. *Social Indicators Research*, 33(1/3), 47-88.
- Felce, D. & Perry, J.(1995). Quality of life : Its Definition and Measurement. *Research in Developmental Disabilities*, 16(1), 51-74.
- Ferrans, E. & Powers, J.(1985). Quality of Life Index : Development and Psychometric Properties. *Advances in Nursing Science*, 8(1), 15-24.
- Halpern, A.(1994). Quality of Life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 in Transition From School to Adulthood. *Social Indicators Research*, 33, 193-236.
- Hoffman, L., Marquis, J., Turnbull, P., Poston, D. & Summers, J. A.(2006). Assessing Family

- Outcome : Psychometric Evaluation of The Beach Center Family Quality of Life Scale.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8, 1069-1083.
- Janse, J., Gemke, J., Uiterwaal, M., Tweel, I., Kimpen, L. & Sinnema, G.(2004). Quality of Life : Patients and Doctors Don't Always Agree : A Meta-Analysis. *Journal of Clinical Epidemiology*, 57, 653-661.
- Lynda C.(2005). Quality of Life Assessment for Persons With Mental Retardation. *Assessment for Effective Intervention*, 30, 41-49.
- Padilla, V. & Grant M.(1985). Quality of Life as a Cancer Nursing Outcome Variable. *Advances in Nursing Science*, 8(1), 45-60.
- Park, J.(2001). *How to Define and Measure Outcomes of Early Intervention : An Examination of Family Quality of Life*. The University of Kansas.
- Park, J., Hoffman, L., Marquis, J., Turnbull, A. P., Poston, D., Mannanm, H., Wang, M. & Nelson, L. L.(2003). Toward Assessing Family Outcomes of Service Delivery : Validation of a Family Quality of Life Survey. *Journal of Intellectual Disability Research*, 47(4/5), 367-384.
- Rimmernan, A., Yurkevich, O., Birger, M., Araten-Bergman, T.(2005). Quality of Life of Men and Women With Borderline Intelligence and Attention Deficit Disorder Living in Community Residences : A Comparative Study. *Journal of Attention Disorders*, 9, 435-443.
- Schalock, L., Keith, D., Hoffman, K. & Karan, C.(1989). Quality of Life : Its Measurement and Use. *Metal Retardation*, 27(1), 25-31.
- Schalock, L.(2000). Three Decades of Quality of Life. *Focus on Autism and Other Developmental Disabilities*, 15(2), 116-127.
- Schalock, L., Brown, I., Brown, R., Robert, A., Felce, D., Matikka, L., Kenneth, D. & Parmenter, T.(2002). Conceptualization, Measurement, and Application of Quality of Life for Person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 Report of an International Panel of Experts. *Mental retardation*, 40(6), 457-470.
- The WHOQOL Group(1995).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Quality of Life Assessment : Position Paper From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Social Science & Medicine*, 41(10), 1403-1409.
- Turnbull, P. & AAMR President(2004). President's Address 2004 : "Wearing Two Hats" : Morphed Perspectives on Family Quality of Life. *Mental Retardation*, 42(5), 383-399.



A Study on the Intellectual Disabled Adults Family's Burden and Quality of Life

Oh, Hea-kyung

Professor, Dept. of Social Welfare, Catholic University

Jung, Han-Na

Master, Dept. of Welfare, Catholic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was initiated by finding out what influence the residential type of intellectually disabled adults has on the relation of quality of life.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families of adults intelligent disabled We were able to collect data from 375 people from 92 facilities and utilized 321 copies of the survey results in my analysis. Methods of analysis utilized are descriptive statistical analysis, ANOVA,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A summary of the study result based on this analysis is as follows:

First, the mean of the quality of life of the families was 3.39 points, which was slightly higher than average. In the sub-factors, nurturing activities was the highest, followed by family interaction, disability-related support, physical well-being, and emotional well-being. Currently, the majority of the intellectual disabled adults are living with their original families at 55.8%. The residential type that the majority wishes to live in the future is group homes at 52.6%.

As a result of the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aimed at finding out the control effect of residential types of intellectual disabled adults their quality of life, while residential types of the intellectual disabled adults had no effect. Furthermore, the interaction of residential type showed no significance, meaning the residential type of intellectual disabled adults had no control effect on the quality of life.

■ Key words : intellectual disabled adults, Residential Type of intellectual disabled adults, Family's Quality of Life

논문투고일 : 2014. 7. 20

논문심사일 : 2014. 11. 25

게재확정일 : 2014. 11. 28



장애인복지 연구 제5권 제2호
Disability & Social Welfare
Vol. 5, 25~49.

체육활동이 지적장애인의 신체변화와 행동적응 및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명도복지관 서비스지원팀장 백 삼 현

【국문초록】

본 연구는 12개월간 의료재활(건강기초검사, 건강관리부모상담), 스포츠활동(체력단련, 수영, 볼링, 당구), 여가활동(주말여가프로그램, 소풍, 스포츠관람, 겨울캠프)을 통해 지적장애인 50명(최종 대상자 40명)에게 적용하여 신체조성, 기초체력, 혈중지질 및 행동적응과 프로그램 참여의 만족도를 알아봄으로써 지적장애인을 위한 스포츠여가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비만예방 및 기초체력향상에 효과적인 스포츠영역을 개발하고자 하였으며, 그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가지고 실시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신체조성 중 체지방률, 골격근량, 신체발달지수는 .001수준에서 유의한 변화가 나타났으며, 체중은 .01수준에서 유의한 변화가 나타나 신체조성의 모든 영역에서 유의한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총 40명 중 91.3%가 긍정적인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기초체력은 근력, 근지구력, 순발력, 유연성 모든 영역에서 .001수준에서 유의한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총 40명중 96.4%가 긍정적인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혈중지질은 T-C, HDL-C, LDL-C 모든 영역에서 .001수준에서 유의한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총 40명중 95.8%가 긍정적인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행동적응은 수영 13.6점, 볼링 14.1점, 당구 9.3점이 각각 증가되어, 지적장애인에게 행동적응이 가장 용이한 종목은 볼링이며, 수영, 당구 순으로 나타났다.
5. 만족도 조사에서는 의료재활 영역에서 건강기초검사 및 부모상담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서 1명이 그렇지않다 라는 의견이 있었으며, 스포츠활동 영역에서 체력단련, 생활체육의 빈도에서 5명이 그렇지않다 라는 의견으로 빈도를 높여 실시하기를 원하였다. 또한 여가활동 영역에서는 여가활동의 영역 및 스트레스 해소, 주말여가프로그램 영역에서 각각 1명이 그렇지않다 라는 의견이 있어 종목 확대를 요구하는 소수의 의견이 있었다.

주제어 : 체육활동, 지적장애, 행동적응, 만족도

I. 서론

최근 경제 성장과 함께 문화수준의 향상은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 및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왔다. 그러나 신체활동의 부족, 영양의 과잉섭취, 정신적 긴장, 스트레스 증가 등으로 만성질환은 두드러지게 증가되어 왔다. 신체활동의 참여는 오늘날 과학이나 의학에서 제공하는 어떠한 처방보다도 성인들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있어서 효과적이라고 제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대안으로 규칙적인 운동이 질병과 성인병관리 및 치료를 위한 한 방법으로 보고되고 있다. 질병의 예방과 치료를 위해서는 일상생활습관, 운동처방, 영양섭취 등 다양한 방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김성수, 1991).

특히 정신지체인은 비장애인들보다 비만인 경우가 많고, 비만 발생률도 높는데(Fernhall & Tymeson, 1988), 이는 상대적으로 많은 여가시간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체활동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부족하거나 의미 없이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전종귀 등, 2004). 또한, 정신지체인들은 식습관에 있어서도 고칼로리 섭취, 편식, 과식하는 경향이 높으며(김성은, 2002; 최경화, 2002), 운동과 자기조절 능력이 부족하다. 여기에 정신지체인들의 부모들과 가족 등 주변 사회적 환경의 과잉보호는 스스로 행동하고 판단하려는 의지를 약화시켜 정신지체인들을 비만하게 만드는 등의 또 다른 이유로 지적된다(염영조, 2004).

정신지체인들에게 있어서 움직임을 바탕으로 하는 체육 및 운동 실태는 학생시기에 체육과목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학교졸업 후 사회생활에서 체육활동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장애인을 위한 체육시설과 전문운동프로그램의 부족 등 사회적인 이해 부족으로 정신지체 장애인들의 사회화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신체활동 부족 및 운동부족을 야기 시키고 있다. 특히 순발력, 민첩성, 평형성 등 운동체력이 비장애인에 비해 현저히 뒤떨어지는 현상을 보인다(Raick 등, 1970). 장애인들의 체육활동은 단순히 운동을 즐기는 그 자체 외에도 장애 부위의 기능 감퇴를 예방하고 나아가 치료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 1994).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여가시간을 활용한 생활체육은 현대사회에서 매우 가치 있는 활동으로 인정받고 있다(정용민, 2001; 전태준, 2004). 과거의 여가 개념은 단순한 휴식과 기분전환의 소극적 기능에 국한되었다. 그러나 현대 여가활동은 단순히 소모적인 여가활동으로서만이 아닌 적극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즉, 사회생활에서 받은 스트레스와 긴

장, 그리고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소하여 보다 나은 생활을 준비하기 위한 재충전의 기회와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기능으로서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여가활동은 인간의 삶의 질적 향상, 자아실현 및 행복추구, 그리고 건강유지 및 증진에 효과적으로 부응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이정자, 김명준, 2004). 이처럼 현대사회에서 여가활동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지하고 있지만, 장애인들에게 적용하기엔 그 한계성이 너무나 높다. 먼저,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이 부족하고, 적용되는 생활체육 종목이 적어 일상생활에서 장애인 개인으로서 여가활동을 참여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장애인 생활체육지원은 아직까지 겉으로 나타날 뿐이지 누군가가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시도조차 하기 힘들다. 특히, 지적장애인들은 인지부족과 판단미비로 스스로 참여할 수 없어 그 기회가 더욱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적장애인들이 건강증진을 유도하기 위해, 건강검진을 토대로 개별운동처방서비스를 통한 스포츠여가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지적장애인의 신체조성 및 기초체력을 향상시키고, 일상생활의 활력소를 유발하여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지적장애인의 체육프로그램 개발 및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전남 M시에 위치한 M복지관 이용자 중 비만 및 기초체력저하로 판단되는 이용자 중 50명을 대상으로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참가자 50명 중 12개월간 참여한 최종인원은 40명으로(10명은 취업, 건강악화, 지역이동 등 개인적인 문제로 본 연구에서 제외됨) 그 대상자의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대상자의 특성

신장(cm)	연령(세)	성별(명)	지적장애등급
161.9±11.27	24.15±7.17	남:28 여:12	1급:8명 2급:27명 3급:5명
총 40명			

2. 연구절차 및 스포츠여가프로그램

본 연구는 인지가 가능한 지적장애인 40명을 대상으로 M복지관 스포츠여가지원팀 체육교사 3명, 사회복지사 2명의 지원으로 스포츠여가활동을 실시하였다. 본 사업의 프로그램 내용은 <표 2>, <표 3>과 같다.

운동강도 산출은 목표심박수(최대심박수-나이-안정시심박수×운동강도+안정시심박수)를 개별 산출하여 평균 심박수를 적용하여 프로그램을 설계하였으며, 무선심박계(Polar F4)를 이용한 주 1회 측정치를 운동 강도에 반영하였다.

<표 2> 스포츠활동 프로그램

종목		내용	빈도 (회)	시간 (분)	강도 (%)
체력 단련	준비 마무리운동	근육이완 스트레칭	주 3	각5	HRmax 50- 60%
	본 운동	런닝머신, 싸이클, 이클립스, 암에로그미터 등을 통한 유산소 운동 (개별운동처방서비스지원)		40	
수영		자유형(발차기, 호흡, 글라이드, 손동작) 3개 그룹(초,중,고급)으로 구분 실시 기본동작 후 초급-글라이드 25m×10회, 킥 25m×10회 중급-킥 25m×20회 고급-킥 25m×10회, 손동작 25m×10회	주1	50	
볼링		스텝, 투구동작연습, 스포츠 주시, 스페어처리 방법 및 게임(2게임)	주1	60	
당구		브릿지고정, 조준, 타격, 좌우구분, 기본구 및 초구 실시	주1	60	

<표 3> 여가활동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내용	시기	시간
주말 여가	사진촬영	매월 첫째주 목포인근 행사장, 유적지, 관광지에서 실시	월1회	약 1~1.5
	인라인 스케이트	매월 둘째주 평화광장에서 고깔을 이용하여 실시		
	등산	매월 셋째주 목포 인근에 위치한 산에서 실시		
소풍		외달도 섬에서 1박2일 동안 등산 및 물놀이를 실시	7월	약40
스포츠관람		광주무등경기장에서 기아·삼성 야구를 관람	9월	약8
겨울캠프		광주패밀리랜드에서 눈썰매와 놀이기구이용으로 실시	1월	약8



여가활동 프로그램은 장애인의 여가활동 영역확대, 질적 수준 향상과 스트레스해소 등을 확인하고자 진행되었으며 지속사업과 1회성 사업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3. 측정도구 및 방법

1) 신체조성

신체조성은 (주)바이오스페이스의 체성분 분석기 In body 720을 이용하여 체중, 체지방률, 골격근량, 신체발달지수 등을 측정하였다. 측정 2시간 전부터 공복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였으며, 최소의 옷차림으로 측정하였다.

2) 기초체력

기초체력은 (주)Helmas의 기초체력측정장비를 이용하여 근력, 근지구력, 순발력, 유연성을 측정하였다. 측정 전 측정방법에 대해 인지할 수 있도록 사전교육을 실시하여 최대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혈중지질

M시의료원의 지원으로 채혈 후 원심분리기를 이용하여 TC, LDL-C, HDL-C를 측정하였다.

4) 행동적응

적응과정은 관찰기록지를 이용하였으며, 초등무용교수지침서의 실기평가표를 근거로 공간성, 시간성, 전체성을 바탕으로 수정·보완하여 종목별로 작성하였다. 문항당, 5점 만점으로 수영 45점 만점, 볼링 75점 만점, 당구 40점 만점으로 작성되었다(4주단위로 작성).

<표 4> 초등무용교수지침서 무용과 실기평가표

공간성		시간성		전체성	
방향과 높이	이동	박자감	리듬감	관계성	흐름

5) 설문지

본 설문지는 개인의 특성에 대한 문항을 제외하고 단위프로그램별 의료재활 6문항, 스포츠활동 6문항, 여가활동 4문항, 전반적인 사업내용 4문항 총 20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영역별 빈도, 세부사업 영역, 결과에 대한 만족도, 지속성 등으로 구성되었다.

본 설문지는 Larsen, Attkisson, Hargreaves & Nguyen(1979)이 개발한 만족도조사 설문지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으며 5점 Likert 척도에 응답하게 되어있다.

4. 자료처리

본 연구에서 측정된 신체조성, 기초체력, 혈중지질 및 만족도조사에 대한 자료처리는 SPSS ver12.0을 이용하여 실시하였으며, 유의수준은 .05로 하였다.

- 1) 신체조성, 기초체력, 혈중지질의 긍정적 변화도를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 2) 신체조성, 기초체력, 혈중지질의 각 변인의 결과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으며, 12개월간 연구의 사전·사후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Paired t-test를 실시하였다.
- 3) 만족도조사 설문지 자료 분석을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신체조성

12개월간 지적장애인의 건강증진프로그램 실시 전·후에 따른 신체조성의 변화는 <표 5>와 같다.

<표 5> 신체조성 변화도

구 분	빈도	퍼센트
	긍정적으로 변화된 자	
체중	29명	72.5%
체지방률	39명	97.5%
골격근량	39명	97.5%
신체발달지수	39명	97.5%

건강증진프로그램을 통한 신체조성의 변화를 알아보면, 총 40명 중 체중은 29명 (72.5%)이 감소하였고, 체지방률, 골격근량, 신체발달지수는 각각 39명(97.5%) 변화하여 전체 91.3%가 긍정적으로 변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각 항목에 대한 사전, 사후 검사를 통해 전반적인 변화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체중

체중의 사전·사후 검사를 살펴보면 사전 $63.7 \pm 14.02\text{kg}$ 에서 사후 $60.7 \pm 13.77\text{kg}$ 으로 3kg이 감소되어 .01 수준에서 유의한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표 6>의 내용과 같다.

<표 6> 체중의 변화

	인원	평균	표준편차	평균의 표준오차
사전검사	40	63.7	14.02	2.21
사후검사	40	60.7	13.77	2.17
평균	표준편차	평균의 표준오차	t	P
-1	1.65	.26	-3.66	0.001

**p<.01

2) 체지방률

체지방률의 사전·사후 검사를 살펴보면 사전 $29.3 \pm 10.54\%$ 에서 사후 $26.6 \pm 10.85\%$ 로 2.7% 감소되어 .001 수준에서 유의한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표 7>의 내용과 같다.

<표 7> 체지방률의 변화

	인원	평균	표준편차	평균의 표준오차
사전검사	40	29.3	10.54	1.66
사후검사	40	26.6	10.85	1.71
평균	표준편차	평균의 표준오차	t	P
-2.7	2.76	.43	-6.05	0.000

***p<.001

3) 골격근량

골격근량의 사전·사후 검사를 살펴보면 사전 23.8±5.74kg에서 사후 25.6±5.73kg으로 1.8kg 증가되어 .001 수준에서 유의한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표 8>의 내용과 같다.

<표 8> 골격근량의 변화

	인원	평균	표준편차	평균의 표준오차
사전검사	40	23.8	5.74	.9
사후검사	40	25.6	5.73	.9
평균	표준편차	평균의 표준오차	t	P
1.8	2.12	.33	5.3	0.000

***p<.001

4) 신체발달지수

신체발달지수의 사전·사후 검사를 살펴보면 사전 68.7±7.18점에서 사후 71.4±6.92점으로 2.7점 증가되어 .001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표 9>의 내용과 같다.

<표 9> 신체발달지수의 변화

	인원	평균	표준편차	평균의 표준오차
사전검사	40	68.7	7.18	1.15
사후검사	40	71.4	6.92	1.1
평균	표준편차	평균의 표준오차	t	P
2.7	2.47	.39	6.8	0.000

***p<.001

2. 기초체력

<표 10> 기초체력 변화도

구 분	빈도	퍼센트
	긍정적으로 변화된 자	
근력	40명	100%
근지구력	35명	87.5%
순발력	40명	100%
유연성	40명	100%

12개월간 지적장애인의 건강증진프로그램을 통한 기초체력의 변화를 알아보면, 총 40명 중 근지구력이 35명(97.5%) 증가하였고, 근력, 순발력, 유연성 각각 40명(100%)이 변화하여 전체 96.9%가 긍정적으로 변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각 항목에 대한 사전, 사후 검사를 통해 전반적인 변화도를 살펴보면 <표 10>과 같다.

1) 근력

근력의 사전·사후 검사를 살펴보면 사전 $20.6 \pm 8.62\text{kg}$ 에서 사후 $30.2 \pm 10.85\text{kg}$ 으로 9.6kg 증가되어 .001 수준에서 유의한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표 11>의 내용과 같다.

<표 11> 근력의 변화

	인원	평균	표준편차	평균의 표준오차
사전검사	40	20.6	8.62	1.36
사후검사	40	30.2	10.85	1.71
평균	표준편차	평균의 표준오차	t	P
9.6	5.46	.86	11.06	0.000

***p<.001

2) 근지구력

근지구력의 사전·사후 검사를 살펴보면 사전 11.7 ± 5.37 회에서 사후 14.9 ± 6.18 회로 3.2회 증가되어 .001 수준에서 유의한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표 12>의 내용과 같다.

<표 12> 근지구력의 변화

	인원	평균	표준편차	평균의 표준오차
사전검사	40	11.7	5.37	.85
사후검사	40	14.9	6.18	.97
평균	표준편차	평균의 표준오차	t	P
3.2	3.67	.58	5.54	0.000

***p<.001

3) 순발력

순발력의 사전·사후 검사를 살펴보면 사전 17.6±8.97cm에서 사후 22.5±9.51cm로 4.9cm 증가되어 .001 수준에서 유의한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표 13>의 내용과 같다.

<표 13> 순발력의 변화

	인원	평균	표준편차	평균의 표준오차
사전검사	40	17.6	8.97	1.41
사후검사	40	22.5	9.51	1.50
평균	표준편차	평균의 표준오차	t	P
4.9	3.93	.62	7.95	0.000

***p<.001

4) 유연성

유연성의 사전·사후 검사를 살펴보면 사전 -1.5±12.69cm에서 사후 6.5±12.59cm로 8cm 증가되어 .001 수준에서 유의한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표 14>의 내용과 같다.

<표 14> 유연성의 변화

	인원	평균	표준편차	평균의 표준오차
사전검사	40	-1.5	12.69	2.00
사후검사	40	6.5	12.59	1.99
평균	표준편차	평균의 표준오차	t	P
8	4.39	.69	11.5	0.000

***p<.001



3. 혈중지질

12개월간 지적장애인의 건강증진프로그램 실시 전·후에 따른 혈중지질의 변화는 <표 15>와 같다.

<표 15> 혈중지질검사 변화도

구 분	빈도	퍼센트
	긍정적으로 변화된 자	
T-C	39	97.5
HDL-C	39	97.5
LDL-C	37	92.5

건강증진프로그램을 통한 혈중지질의 변화를 알아보면, 총 40명 중 T-C와 HDL-C이 39명으로(97.5%) 변화하였고, LDL-C이 37명(92.5%)이 변화하여 전체 95.8%가 긍정적으로 변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각 항목에 대한 사전, 사후 검사를 통해 전반적인 변화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총콜레스테롤(T-C)

T-C의 사전·사후 검사를 살펴보면 사전 179.5±33.52mg/dl에서 사후 160.3±29.39mg/dl로 19.2mg/dl 감소되어 .001 수준에서 유의한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표 16>의 내용과 같다.

<표 16> T-C의 변화

	인원	평균	표준편차	평균의 표준오차
사전검사	40	179.5	33.52	5.3
사후검사	40	160.3	29.39	4.64
평균	표준편차	평균의 표준오차	t	P
-19.2	13.59	2.14	-8.89	0.000

***p<.001

2) 고밀도지단백(HDL-C)

HDL-C의 사전·사후 검사를 살펴보면 사전 43.7±7.97mg/dl에서 사후 49.6±8.14 mg/dl로 5.9mg/dl 증가되어 p<.001 수준에서 유의한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표 17>의 내용과 같다.

<표 17> HDL-C의 변화

	인원	평균	표준편차	평균의 표준오차
사전검사	40	43.7	7.97	1.26
사후검사	40	49.6	8.14	1.28

평균	표준편차	평균의 표준오차	t	P
5.9	3.43	.54	9.99	0.000

***p<.001

3) 저밀도지단백(LDL-C)

LDL-C의 사전·사후 검사를 살펴보면 사전 105.9±26.92mg/dl에서 사후 92.6±22.5 mg/dl로 13.3mg/dl 감소되어 p<.001 수준에서 유의한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표 18>의 내용과 같다.

<표 18> LDL-C의 변화

	인원	평균	표준편차	평균의 표준오차
사전검사	40	105.9	26.92	4.25
사후검사	40	92.6	22.5	3.55

평균	표준편차	평균의 표준오차	t	P
-13.3	10.76	1.7	-7.84	0.000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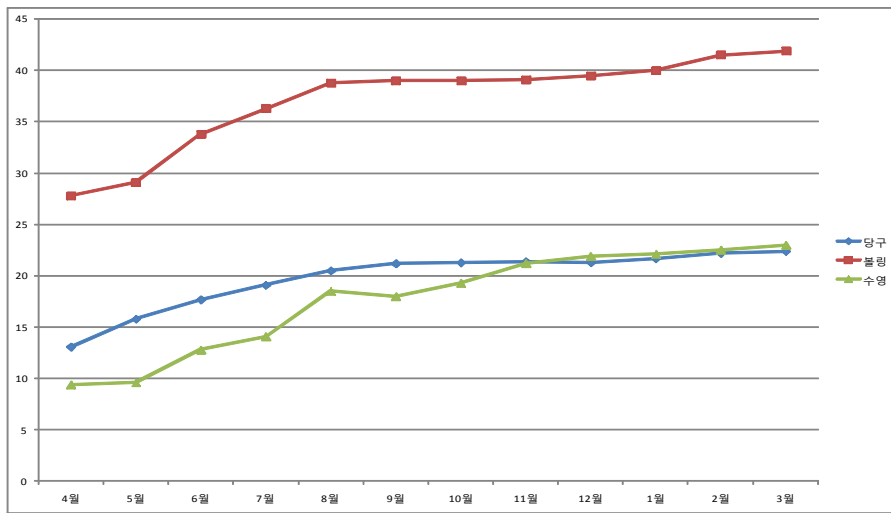
4. 행동적응

12개월간 지적장애인의 건강증진프로그램 실시 전·후에 따른 생활체육 종목별 행동적응의 변화는 <표 19>와 같다.



<표 19> 생활체육종목별 행동적응 평균점수

월	4	5	6	7	8	9	10	11	12	1	2	3	계
수영	9.4	9.6	12.8	14.1	18.5	18	19.3	21.2	21.9	22.1	22.5	23	+13.6
볼링	27.8	29.1	33.8	36.3	38.8	39	39	39.1	39.5	40	41.5	41.9	+14.1
당구	13.1	15.8	17.7	19.1	20.5	21.2	21.3	21.4	21.3	21.7	22.2	22.4	+9.3



[그림 1] 생활체육종목별 변화도

생활체육프로그램의 행동적응을 초등무용교수지침서의 실기평가표를 응용하여 시간성, 공간성, 전체성을 바탕으로 알아보았다. 행동적응의 변화도를 살펴보면 수영은 13.6 점, 볼링 14.1점, 당구 9.3점이 각각 증가되었다. 수영과 볼링은 비교적 단순하고 고정적인 자세 및 방법을 숙달반복에 의해 진행되는 종목으로 지적장애인의 행동적응이 비교적 가능하지만 당구는 기본자세 외 응용동작에서는 전혀 적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당구 종목의 특성상 협응력, 정확성, 힘조절, 응용력 등 아주세심하고 정확한 운동으로 평가지표에서의 시간성, 공간성, 전체성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5. 만족도조사

12개월간 지적장애인의 건강증진프로그램 실시에 따른 만족도는 <표 20>과 같다.

<표 20> 만족도 빈도분석

설문내용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1	2	3	4	5	
I. 의료재활 영역(건강기초검사, 건강관리부모상담)						
1. 건강기초검사 연 4회 측정을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6명 12%	32명 64%	12명 24%	50명 100%
2. 건강기초검사(신체조성, 기초체력, 혈중지질) 영역에 만족하십니까?			4명 8%	31명 62%	15명 30%	50명 100%
3. 건강기초검사를 통해 참가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까?			7명 14%	28명 56%	15명 30%	50명 100%
4. 건강이상자에 한해 실시한 부모 상담이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9명 18%	31명 62%	10명 20%	50명 100%
5. 건강기초검사 및 건강관리부모상담이 이용자들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명 2%	4명 8%	31명 62%	14명 28%	50명 100%
6. 건강기초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를 희망하십니까?			1명 2%	25명 50%	24명 48%	50명 100%
II. 스포츠활동 영역(체력단련, 수영, 볼링, 당구)						
7. 비만해소 및 기초체력 향상을 위한 스포츠활동 영역에 만족하십니까?			5명 10%	26명 52%	19명 38%	50명 100%
8. 체력단련은 주 3회 운영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명 2%	7명 14%	28명 56%	14명 28%	50명 100%
9. 수영, 볼링, 당구는 주 1회 운영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4명 8%	8명 16%	22명 44%	16명 32%	50명 100%
10. 체력단련은 개인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개별운동처방서비스를 지원을 만족하십니까?			6명 12%	30명 60%	14명 28%	50명 100%
11. 수영, 볼링, 당구 참여를 통해 참가자들이 건강을 유지하고 취미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까?			10명 20%	29명 58%	11명 22%	50명 100%
12. 스포츠 활동을 통해 참가자의 건강관리 및 예방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8명 16%	30명 60%	12명 24%	50명 100%
III. 여가활동 영역(주말여가, 소풍, 스포츠관람, 겨울캠프)						
13. 여가활동의 영역에 만족하십니까?		1명 2%	6명 12%	29명 58%	14명 28%	50명 100%
14. 여가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활기찬 생활을 영위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1명 2%	9명 18%	27명 54%	13명 26%	50명 100%
15. 주말여가프로그램(사진촬영, 등산, 인라인스케이트, 수영)에 만족하십니까?		1명 2%	9명 18%	24명 48%	16명 32%	50명 100%
16. 소풍, 스포츠관람, 겨울캠프의 여가활동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0명 20%	24명 48%	16명 32%	50명 100%
IV. “우리는 몸짱 맘짱” 사업의 전반적인 내용						
17. 본 사업(의료재활, 스포츠활동, 여가활동)의 영역에 만족하십니까?			4명 8%	29명 58%	17명 34%	50명 100%
18. 본 사업이 참가자의 건강증진에 전반적으로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1명 2%	11명 22%	19명 38%	19명 38%	50명 100%
19. 향후 지속적인 건강증진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4명 8%	23명 46%	23명 46%	50명 100%
20. 기타의견						

1) 의료재활 영역

12개월간 지적장애인의 건강증진프로그램 실시 후 의료재활 영역에서의 만족도를 살펴보면 측정 빈도, 검사영역, 건강상태 확인, 부모와의 공유, 지속성에서는 100%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부모상담의 필요성에서 1명(2%)이 그렇지않다라는 의견이 있었다.

2) 스포츠활동 영역

12개월간 지적장애인의 건강증진프로그램 실시 후 스포츠활동 영역에서의 만족도를 살펴보면 스포츠활동의 영역(비만해소, 기초체력향상), 개별운동처방서비스지원, 생활체육을 통한 건강유지 및 취미생활 만족, 건강관리 및 예방에 도움에서는 100%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체력단련 빈도 1명(2%), 생활체육 빈도 4명(8%)이 그렇지않다라는 의견이 있었다. 그 원인은 현행 체력단련은 주 3회, 생활체육은 종목별 주 1회로 운영되고 있으나, 현행보다 더 많은 빈도로 진행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었다.

3) 여가활동 영역

12개월간 지적장애인의 건강증진프로그램 실시 후 여가활동 영역에서의 만족도를 살펴보면 소풍, 스포츠관람, 겨울캠프가 여가활동 적절성은 100% 만족하였으나, 여가활동의 영역(주말여가, 소풍, 스포츠관람, 겨울캠프), 스트레스해소, 주말여가의 만족도에서 각각 1명(2%) 그렇지않다라는 의견이 있었다. 그 원인은 여가활동의 종목확대, 진행시간 증가, 주말여가프로그램 종목확대를 요구하는 의견이 있었다.

4) “우리는 몸짱 맘짱” 사업의 전반적인 내용

12개월간 지적장애인의 건강증진프로그램 실시 후 사업의 전반적인 내용에서의 만족도를 살펴보면 대분류 영역의 만족도, 건강증진프로그램의 지속성에는 100% 만족하였으나, 건강증진에 도움여부에서 1명(2%)이 그렇지않다라는 의견이 있었다. 현 프로그램 전에도 상당히 건강했다는 의견이었다.

IV. 논의

비만 및 신체조성에 대한 역학적 연구(Liou et al., 2005)에 의하면 장애인은 신체적 활동 감소로 인한 에너지의 불균형과 근 위축 등으로 인해 비만 비율이 비장애인보다 1.2배에서 3.9배 높으며, 장애인의 약 75%가 활동을 거의하지 않거나 건강에 이로운 정도의 충분한 활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본 프로그램을 통한 신체조성의 모든 영역에서의 긍정적인 변화는 주 3회 이상 규칙적인 프로그램 지원과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운동 강도 지원이 적절하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이범진(2007)은 16주간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방과 후 신체활동프로그램을 통해 신체조성의 변화를 알아보았다. 체중, 체지방지수, 체지방량, 체지방률, 복부비만을 등의 모든 영역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 본 프로그램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또한, 백삼현, 배광열(2007) 서킷 웨이트트레이닝, 김현준(2007) 복합성운동, 박수현 외(2007) 걷기운동, 손상현, 이인경(2007) 등산에 관한 연구에서도 규칙적인 신체활동을 통하여 지적장애인의 신체조성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 올 수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의 지도방식을 알아보면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개별운동처방서비스를 제공하여 주 1회 운동 시 심박수를 측정하여 운동강도를 수시로 조절하였으며 HRmax 50~60%를 유지, 운동상해를 최소화하고 최적의 운동효과를 볼 수 있도록 개별지원 하였다. 또한, 생활체육 영역에서도 수준별 학습으로 대상자의 특성 및 적응력을 최대한 반영하여 실시하였다. 이러한 교육방법은 체육현장에서의 지적장애인의 개별화교육을 실현하였다는 것에 큰 의의를 둘 수 있다.

Sherrill(2004)는 장애인의 체육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개별화 교육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선행 연구가 있었다.

기초체력(근력, 근지구력, 유연성, 민첩성, 순발력, 심폐지구력)은 비장애인보다 약 2~4년정도 뒤떨어지며, 특히, 평형성은 뚜렷하게 저하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지적장애인의 기초체력 증가를 위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최원탁(2003), 정우근(2000)등은 줄넘기, 함정은(2005), 권영춘(2003)은 인라인스케이트, 김은순(2003)은 수중활동으로 지적장애인의 기초체력향상을 위한 선행연구를 실시하였다. 또한, 권광선·권영우(2001), 김경숙(2000) 등은 규칙적인 운동이 정신지체인의 기초체력 향상에 매우 효과적임을 보고하였다. 김도균(2003)은 16주간 유산소성 운동으로 비만정신지체인의 신체조성 뿐만 아

나라 스피드, 상완근력, 근지구력, 하지근력, 유연성, 심폐지구력 등 기초체력이 증가된 것을 확인하였고, 김영준 등(1998)은 12주간의 에어로빅 운동으로 배근력, 악력, 체전굴, 사이트스텝, 윗몸일으키기, 서전트 점프, 눈감고 외발서기 등은 모두 유의하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는 본 사업의 체력단련프로그램과 생활체육 3종목을 실시한 내용과 일치하여 기초체력의 영역에 많은 변화가 된 것으로 사료된다.

혈중지질(T-C, HDL-C, LDL-C)은 일반적으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인체의 구성성분인 근육량이 줄어들면서 대조적으로 지방량은 증가하게 된다. 특히, 지적장애인은 식이조절이 어려우며 규칙적인 신체활동이 부족하여 비장애인에 비해 위험인자가 높은 편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한 체내의 과다하게 축적된 지방량은 이차적인 질병을 초래하기도 하며 이것이 주원인이 되어 신체활동에 제한을 가져오기도 한다. 특히, 혈중지질인 총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수준의 상승이 뇌, 심장질환을 유발하는 관상동맥 질환 발병률의 증가와도 상당한 관련이 있다(권기명, 2006).

혈중지질의 유의한 변화를 가져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T-C는 김상범(2003) circuit training, HDL-C는 김광중(2004), 신형섭(2005) 에어로빅스 운동, 현동수(2003) 웨이트트레이닝 지원으로 실시하였으며, LDL-C은 소위영(2005) 워킹/웨이트트레이닝, 박남용(2003) 수영과 근저항 복합성운동, 김완수(2003)는 수영, 헬스프로그램을 지원하여 본 프로그램의 지원종목과 변화내용이 일치하였다. 하지만, 콜레스테롤이 단지 운동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확실히 인지해야 할 것이며, 운동종목, 강도, 시간, 빈도와 개인차에 의한 콜레스테롤 축적수준, 체지방, 연령과 장애정도, 성별, 그리고 식사 및 흡연 등 여러 요인들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행동적응은 그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초등무용교수지침서의 실기평가표를 응용하여 시간성, 공간성, 전체성을 바탕으로 종목별로 작성하였다.

강민수(2010)는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방과 후 에어로빅프로그램을 통한 행동적응의 변화는 .001수준에서 유의한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본 사업의 내용과 일치하였다. 또한, 장애등급판정기준(2007. 10)의 지적장애등급에서 볼 수 있듯이 1급은 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가 34이하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의 적응이 현저히 곤란하여 일생동안 타인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이며, 2급은 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가 35~49로 일상생활에서 단순한 행동을 훈련시킬 수 있고 어느 정도의 감독과 도움을 받으면서 생활할 수 있는 사람이고, 3급은 교육을 통한 사회적, 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이라 명시되어있다. 그 대상자가 1급 2명, 2급 2명, 3급 3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그 수준에 에어로빅댄스의 행동

적응에 한계가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1급 8명, 2급 27명, 3급 5명으로 구성된 본 사업의 대상자의 등급 비율상 중증장애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 생활체육 종목의 특성에 따른 행동적응에 대한 한계가 나타난 것으로 사료되어 위 연구 내용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지적장애인의 특정종목의 행동적응에 대한 원인과 약 및 습득과정에 대한 연구가 절실히 필요하며, 상황적 행동적응의 패턴 및 인지능력수준을 지적장애인의 특정종목에 반영함으로써 그 특성과 수준에 맞는 질 높은 프로그램제공 및 종목개발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참여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살펴보면 의료재활, 스포츠활동, 여가활동으로 구분하여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으며, 의료재활 영역의 건강기초검사는 대상자의 변화과정을 확인하는 평가도구로 사용되었으며, 스포츠활동은 체력단련, 수영, 볼링, 당구 등 실질적인 운동프로그램으로 설계되었다. 또한, 여가활동은 주말여가(사진촬영, 인라인스케이트, 등산), 소풍, 스포츠관람, 겨울캠프로 계획되어 일상생활에서 여유를 가지고 즐길 수 있는 여가생활 및 취미활동위주로 설계되어 참가자의 일상생활에서의 스트레스 해소, 삶의 질적 수준향상 및 취미생활 지원 등으로 행복과 만족, 사람으로서 누릴 수 있는 여유를 즐기도록 지원하였다.

한국은 정치적, 경제적 혹은 사회적인 면에서 선진국의 대열로 진입하고자 온갖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스포츠 활동도 이미 서울 장애인 올림픽을 시발점으로 하여 그 의미가 더욱 중시 되고 있는 실정이다(송채훈·이지명, 2006). 장애인 체육은 지역별 각 장애인생활체육단체 및 동우회를 중심으로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중실시하고 있다. 그 종목으로는 좌식배구, 휠체어농구, 게이트볼, 수영, 배드민턴, 양궁, 탁구, 볼링, 론볼링, 휠체어테니스, 보치아 등 여러 종목을 실시하고 있다. 장애인 체육은 체육활동 그 자체의 목적뿐 아니라 재활수단으로서 기능회복과 건강보호 유지, 퇴화방지 등 신체적인 기능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김기영, 1997). 또한, 최근 들어 개인의 행복과 생활만족의 향상을 통해 삶의 질을 제고시키기 위해 정부는 국민체육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그러한 노력의 대부분은 참여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스포츠참여를 결정하고 참여를 지속하게 되는 것은 개인의 내적인 선택에 의해 크게 좌우되며, 참가자 개인의 순수한 즐거움을 위해 활동자체를 추구하는 내적 동기뿐만 아니라 체력향상, 대인관계, 스트레스 해소, 쾌감의 추구 같은 외적동기로 인하여 여가의 만족스러운 욕구가 충족됨을 알 수 있다(김옥태 등, 1999)

하지만 아직까지 장애인생활참여는 장애유형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다. 대부분 의사표



현이 가능하고 생활수준 및 재활 등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체장애인 위주로 실시하고 있다. 지적장애인은 스스로의 결정이 어려워 생활체육 참여여부, 종목선정,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선택 등이 단체나 보호자에 의해 연결되어야 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 장애유형을 넘어 장애인들이 전반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하며, 접근성이 용이하고 시설개선 및 확충되어 장애인들이 장애극복과 원만한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인 요건을 제공해야 한다.

본 연구는 지적장애인의 건강관리를 통하여 비만으로 인한 성인병관리와 기초체력향상을 통해 사회에 환원될 수 있는 기본을 마련하고 스트레스 해소를 통해 여유 있는 삶을 영위하도록 유도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가 향후 지적장애인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더 많은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이 지속되길 기대한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12개월간 의료재활(건강기초검사, 건강관리부모상담), 스포츠활동(체력단련, 수영, 볼링, 당구), 여가활동(주말여가프로그램, 소풍, 스포츠관람, 겨울캠프)을 통해 지적장애인 50명(최종 대상자 40명)에게 적용하여 신체조성, 기초체력, 혈중지질 및 행동적응과 프로그램 참여의 만족도를 알아봄으로써 지적장애인을 위한 스포츠여가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비만예방 및 기초체력향상에 효과적인 스포츠활동을 개발하고자하며, 그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가지고 실시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신체조성 중 체지방률, 골격근량, 신체발달지수는 .001 수준에서 유의한 변화가 나타났으며, 체중은 .01 수준에서 유의한 변화가 나타나 신체조성의 모든 영역에서 유의한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총 40명 중 91.3%가 긍정적인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기초체력은 근력, 근지구력, 순발력, 유연성 모든 영역에서 .001 수준의 유의한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총 40명 중 96.4%가 긍정적인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혈중지질은 T-C, HDL-C, LDL-C 모든 영역에서 .001수준의 유의한 변화와총 40명중 95.8%가 긍정적인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행동적응은 수영 13.6점, 볼링 14.1점, 당구 9.3점이 각각 증가되어, 지적장애인에 게 행동적응이 가장 용이한 종목은 볼링이며, 수영, 당구 순으로 나타났다.
5. 만족도 조사에서는 의료재활 영역에서 건강기초검사 및 부모상담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서 1명이 그렇지않다 라는 의견이 있었으며, 스포츠활동 영역에서 체력단련, 생활체육의 빈도에서 5명이 그렇지않다 라는 의견으로 빈도를 높여 실시하기를 원 하였다. 또한 여가활동 영역에서는 여가활동의 영역 및 스트레스 해소, 주말여가프로그램 영역에서 각각 1명이 그렇지않다 라는 의견이 있어 종목 확대를 요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지적장애인 건강증진 및 만족도의 효과성을 구명함으로써 신체조성, 기초체력, 혈중지질 및 생활체육 행동적응, 만족도에 대한 필요성을 부각시킬 수 있었으며, 특수체육현장에서 널리 이용된다면 지적장애인 뿐만 아니라 모든 장애유형에 기초자료로 활용되어 본 연구가 중재학습프로그램의 영역으로서 인식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참고문헌

- 강민수(2010). 방과 후 에어로빅댄스 프로그램이 비만지적장애학생의 신체조성, 기초체력 및 행동적응에 대한 변화. 한국무용과학회지, 20, 17-29.
- 강민수, 백삼현(2011). 부모와 함께하는 건강관리프로그램이 지적장애인의 건강증진에 미치는 영향. 전주교육대학교 초등교육연구원, 22(1), 145-153.
- 권광선 외(2001). 8주간의 신체훈련이 여성정신지체인의 체력 및 성장관련 호르몬에 미치는 영향. 한국특수체육학회지, 9(9), 141-151.
- 권기명(2006). 12주간의 스쿼시운동이 남자대학생의 혈중지질 및 신체구성에 미치는 영향. 영남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영춘(2003). 인라인스케이트 타기 활동이 정신지체아의 운동능력에 미치는 효과. 대구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광준(2002). 유산소성 운동이 중년여성의 체력, 혈중 지질에 미치는 영향.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경숙 외(2000). 체육활동이 정신지체아의 운동기능 향상에 미치는 영향. 한국특수체육학회지, 8(1), 105-117.
- 김도균(2004). 유산소성 운동이 비만 정신지체학생의 신체조성 및 기초체력 향상에 미치는 효과. 대구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상범(2003). 8주간의 유산소와 circuit training 복합운동이 비만여성의 랩틴, 혈중 지질, 심박수 및 신체조성에 미치는 영향. 대전대학교 보건스포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성은 외(2002). 정신지체 특수학교 학생의 비만실태와 식습관 연구. 단국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숙희 외(2005). 생활체육교실 참여가의 참여특성에 따른 여가만족도 조사 연구. 한국스포츠리서치, 16(3), 301-316.
- 김옥태 외(1999). 생활체육참가자의 스포츠 참여동기가 여가만족과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학회지, 38(3), 87-95.
- 김완수(2003). 유산소운동이 중년여성의 심장구조, 심폐기능 및 혈중지질에 미치는 영향. 경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순(2003). 수중운동 프로그램이 정신지체아동의 정적평형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재활과 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준 외(1998). 유산소운동이 정신지체인의 체력 및 폐기능에 미치는 영향. 동아대학교 스포츠과학연구논문집, 16, 223-231.

- 김현준(2007). 장, 단기 복합운동이 과체중 및 비만아동의 신체조성과 혈중렙틴 농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학회지, 46(1), 669-679.
- 박남용(2003). 수영과 근저항 복합훈련이 비만중년여성의 신체구성 및 혈중 지질성분에 미치는 영향. 창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수현 외(2007). 12주 걷기 운동 프로그램의 운동강도가 비만여성의 신체조성, 복부지방, 심폐 체력에 미치는 영향. 운동과학, 16(1), 1-10.
- 백삼현, 배광열(2007). 서킷 웨이트트레이닝이 정신지체인의 신체조성 및 평형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스포츠리서치, 18(5), 301-308.
- 소위영(2005). 워킹과 웨이트트레이닝이 중년여성의 건강체력에 미치는 영향.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손상현 외(2007). 방과 후 등산이 비만 정신지체 학생 등의 신체조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학회지, 15(2), 1-14.
- 송채훈 외(2006). 지체장애인의 생활체육참여 형태에 따른 만족도 분석. 한국스포츠리서치, 17(3), 471-478.
- 신형섭(2005). 비만 남자 중학생에 대한 유산소 운동이 신체구성 및 혈중 지질 성분에 미치는 영향. 용인대학교 체육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자 외(2004). 대학생의 여가활동 유형이 여가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스포츠리서치, 15(3), 219-232.
- 이범진(2007). 방과 후 신체활동 프로그램 참여가 지적장애 학생의 신체조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특수체육학회지, 15(3), 167-181.
- 염영조(2004). 정신지체학생과 비장애학생의 비만도 비교. 대구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우근(2002). 줄넘기 운동이 아동의 건강체력과 폐기능에 미치는 영향. 부산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용민(2001). 생활체육 참여동기, 스포츠 몰입, 여가만족간의 인과관계. 한국체육학회지, 40(1), 749-760.
- 전태준(2004). 생활체육참가자의 여가욕구와 운동중독과의 관계. 한국체육학회지, 43(5), 141-150.
- 전종귀 외(2004). 20주간의 혼합운동프로그램이 정신지체 성인의 신체조성과 체력에 미치는 효과. 한국특수체육학회지, 12(4), 55-62.
- 초등학교무용교육지침서(2006). 초등학교무용교수-학습과정안. 118.
- 최원탁(2002). 줄넘기 운동이 남자 중학생의 신체조성 및 체력과 골밀도에 미치는 영향. 경희대학



교 체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함정은(2005). 인라인스케이트 운동이 정신지체아동의 체격과 체력 및 골밀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스포츠리서치. 16(3), 265-274.

현동수(2003). 저항도 웨이트 트레이닝이 비만학생의 혈중 지질 변화에 미치는 영향. 상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1994). 특수체육총론. 서울: 태근문화사.

Fernhall, b, & Tymesom, G.T(1988). Validation of cardiovascular fitness field tests for adults with mental retardation. *Adapted Physical Activity Quarterly*, 5(1), 49-59.

Larsen, D, L., Attkisson, C, C., Hargreaves, W, A., & Mguyen, T. D.(1979). *Assessment of client/patient satisfaction; Development of a general scale, Evaluation and Program planning*, e, 197-207.

Sherrill, c.(2004). *Adapted physical activity, recreation and sport: Crossdisciplinary and lifespan(6th ed)*. Boston, Massachusetts: McGraw-Hill.

An Effect on Mentally Disabled Persons' Adaptation to Behavior, and Satisfaction of Sports Activities

Baek, Sam-Hyun

Myongdo Welfare Center, Head of Service Support Team

[Abstract]

This program was applied to 50 mentally disabled persons (final objects of study are 40) for 12 months through medical rehabilitation (basic health examination, parental counseling on health management), sports activities (physical strength training, swimming, bowling, and billiards), and leisure activities (weekend leisure program, excursion, sports viewing, and winter camp) to investigate physical construct, basic body strength, body fat, behavioral adapt and participation in programs to lay an emphasis on the importance of sports leisure programs for mentally disabled persons and to develop sports areas effective to fatness prevention and basic body strength. The program, on the purpose of offering basic materials, led to the results as followings.

1. physical construct, body fat rate, body bone quantity, and physical development index had a meaningful difference at the level of .001, and weight showed a meaningful change at the level of .01, which showed a meaningful change in all of the body construct areas. In addition, 91.3% of the total 40 persons showed an affirmative change.
2. Basic body strength showed a meaningful change at the level of .001 in all of the areas of muscle power, muscle endurance, explosive muscular strength, and flexibility. 96.4% of 40 persons showed an affirmative change.
3. Blood lipid showed a meaningful change at the level of .001 in all of the areas such as T-C, HDL-C, LDL-C. In addition, 95.8% of 40 persons showed an affirmative change.
4. Adaptation activities increased, such as swimming 13.6 point, bowling 14.1 point, billiards 9.3 point respectively, which showed that bowling was the event easiest for dis-



abled persons to adapt in behaviors, and swimming and billiards in order.

5. As for an investigation of satisfaction, in the areas of medical rehabilitation one person responded, “No”, on the question about basic health examination and parental counseling. In the area of sports five persons responded, “No”, on the question about the frequency of physical training and sports-for-all. They wanted physical training and sports-for-all to be more frequent. In the area of leisure activities, respective one person responded, “No”, in the area of leisure activities, stress erase, and week-end leisure programs. They asked for an expansion of kind in leisure activities.

■ Key words : Sports Activities, Mentally Disabled Persons, Adaptation to Behavior, Satisfaction

논문투고일 : 2014. 7. 20

논문심사일 : 2014. 11. 25

게재확정일 : 2014. 11. 28



장애인복지 연구 제5권 제2호
Disability & Social Welfare
Vol. 5, 51~71.

발달장애 청소년 가족의 토요음악활동에 대한 효과성 연구

하트하트재단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최원희**

【국문초록】

본 연구는 발달장애청소년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토요일에 실시된 그룹음악활동이 발달장애 가족의 기능향상에 어떠한 효과가 있었는지를 실천적으로 연구한 것이다. 발달장애청소년, 형제자매, 부모가 함께 하는 그룹음악활동이 가족 간의 융화, 생활만족도, 역할강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확인하고 발달장애 청소년 가족 음악활동의 지속적인 지원을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전국에 발달장애 청소년을 지원하는 기관 25개소 총 880명이 총 5회기에 걸쳐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으며, 그 중 각 연령대, 지역, 활동내용을 고려하여 부모 266명을 대상으로 사전사후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발달장애 청소년과 가족이 함께 하는 그룹음악활동이 발달장애청소년의 사회성을 향상하고, 가족의 기능을 강화하며, 특별히 토요일 여가 문화 구성에 긍정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발달장애 청소년 가족의 기능강화를 위한 다양하고 지속적인 그룹음악활동 지원이 필요하며, 정보 및 자원을 공유하고 연계할 수 있는 문화복지 네트워크가 구축되고 강화되어야 할 것임을 제언했다.

주제어 : 발달장애 청소년, 발달장애 가족, 그룹음악활동

I. 서론

장애청소년은 학교와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유지하는데 비장애청소년보다 좀 더 특별한 서비스와 지원을 필요로 하며(Zuna 외, 2011) 그 수혜대상이 장애청소년에게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장애청소년의 생태학적 체계에 속한 모든 환경적인 요소를 아울러 장애청소년과 가족들에게 지원을 함께 제공해야 함을 강조되고 있다(Turnball & Turnball, 2002). 가족지원의 목적은 가족을 하나의 전체적인 체계로 보고, 장애청소년 가족에게 자녀의 양육과 교육에 대한 도구적 지원, 정보적 지원, 사회·정서적 지원을 제공하여 가족 역량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가족의 삶을 향상시키는데 있다(Zuna 외, 2011).

가족지원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법령에도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우리나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는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의 한 영역으로 가족지원을 언급함으로써 가족상담, 가족치료, 가족교육 등 가족지원의 구체적인 지원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 외에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도 장애청소년의 가족지원을 정책적으로 보장하고 있다(백유순, 2008).

하지만 최근 10년 간 장애청소년 가족지원 프로그램의 동향을 연구한 결과를 살펴보면 장애청소년과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가족지원이 강조되고는 있지만 대부분 프로그램의 참여자가 어머니로 가족 구성원 일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설명 및 강의 형태의 일방적 전달방법 진행되고 있고, 정보 제공 및 상담 서비스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접근한 것이 사실이다(임해주 외, 2012).

반면, 최근 음악활동 프로그램을 통한 개입이 발달장애아동의 사회성 증진을 통해 청소년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들이 제한적이지만 보고되고 있다(박지영, 2003; 최은희, 2009). 발달장애인에 대한 집단 음악활동프로그램은 이들의 정서적 발달을 통한 삶의 질 개선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으로써의 갖추어야 할 사회성을 향상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며, 더 나아가 가족들에게 의존적이고 도움을 받아야만 했던 발달장애아동들이 사회 속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줌에 따라 이들의 가족기능을 회복시키는 점(김효선, 2011)에서도 강점을 가지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실증적인 연구는 아직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주5일제 확대에 따라 가족 간의 여유시간이 많아진 토요일에 부모



외 형제자매 및 조부모까지 포함한 발달장애 청소년 가족을 대상으로 음악프로그램을 실시하여 발달장애 청소년 가족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이와 같은 변화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를 살펴보고 발달장애 청소년 가족지원 사업의 선진 모델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발달장애 가족의 특성

발달장애인은 지적 장애인과 자폐성 장애인을 말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 2조에 따르면 지적장애인은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으로, 자폐성 장애인은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 신체표현, 자기 조절, 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나타난다.

발달장애 가족은 앞에서 정의한 발달장애인이 가족 내에 있는 가족유형이라 말할 수 있겠다. 발달장애 자녀의 출생은 가정의 안정된 기능을 저해 시킬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가족 내 갈등과 스트레스를 야기시킨다고 보고되고 있다.

첫째, 발달장애 자녀를 돌봐야 하는 현실적 문제이다. 신변자립이 곤란한 발달장애 자녀의 세수, 식사, 양치질, 목욕, 놀이, 문제 행동, 잦은 질병 등 비장애 자녀에 비해 힘겨운 양육의 어려움이 나타나는 것이다. 최근 장애 자녀 가족에 대한 욕구조사에 따르면 미래의 장애 자녀 보호에 대한 걱정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서명옥, 2011).

둘째, 심리적 문제이다. 자녀의 장애를 받아들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반복되는 생활을 해야 한다는 어려움은 양육자에게 참을 수 없는 심리적 갈등을 일으키기 충분하다(정귀옥, 2004).

셋째, 외부에서 느끼는 사회적인 부담이다. 서구사회와는 달리 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에서 발달장애 가족은 낙인과 편견 등으로 사회적 고립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서명옥, 2011).

넷째, 사회적 지지망의 축소이다. 발달장애 자녀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는 가족이 자신

의 욕구를 충족시키거나 직업생활을 영위하는 것 등이 유예되고, 여가선용의 기회가 부족하며 대인관계와 사회생활에 상대적으로 소홀해짐에 따라 우울, 불안 등의 부정적인 정서가 유발되며 사회적 지지망이 축소된다. 사회적 지지망의 축소는 다양한 사회적 지지로부터 소외되어 필요한 자원과의 연계를 더욱 어렵게 한다(양숙미, 2000).

위와 같이 발달장애가족에게 발생하는 스트레스와 갈등은 발달장애 자녀가 사회관계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줄 뿐 아니라 다른 가족구성원의 생활에도 타격을 준다. 결국 발달장애인이 있는 가족은 장애를 경험하는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구성원 전체가 심리적, 경제적, 사회적 부담과 갈등을 경험할 수 있다(정귀옥, 2004).

2. 음악활동이 발달장애아동 및 발달장애아동의 가족에게 미치는 효과

수년 동안 발달장애 청소년들은 다른 영역의 교육이나 치료에서 보다는 음악환경에서 좀 더 긍정적으로 반응한다는 연구가 발표되어 왔다. 그리고 비장애청소년과 장애청소년 사이에 음악적 요소에 대한 신체적, 감각적, 인지적, 정서적 반응에는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음악이 발달장애 청소년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그룹 음악활동은 타인과 어울릴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하며, 음악 안에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최은희, 2009).

음악을 매개로 한 활동은 언어발달이 늦고, 사회적 상호작용에 어려움이 있는 발달장애인의 사회성을 향상하는데 효과적인 도구가 되고 있다. 계속되는 실패의 경험과 제한적인 의사소통, 인지 능력의 결핍으로 인해 원활한 자기표현이 이루어 지지 않으나 비언어적 의사소통 수단인 음악을 사용한 노래와 악기 연주를 통해 기쁨, 슬픔, 분노와 같은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 자기표현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받음으로써 타인과의 관계 형성을 할 수 있으며 사회성을 향상할 수 있다(최은희, 2009). 특히, 그룹음악활동은 음악적 의미와 더불어 인간적인 어우러짐의 조화를 느끼며 그룹의 친구들과 소리를 합쳐가면서 자신의 역할과 타인과의 관계형성을 발달시키고, 협동심과 책임감을 기르며 지시를 따르거나 집중을 하고 차례를 기다리는 등의 사회적 행동을 발달시킨다고 하였다(박지영, 2002).

이러한 음악활동에 영향력은 발달장애인과 발달장애아동의 가족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들이 제시되고 있다(강진아, 2004; 류미정, 2007; 이지현, 2009). 발달장애아동의 사회성의 저하 문제 해결 방안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다소 제한적이지만 음

악활동프로그램이 효과적임을 제시하고 있다. 많은 실패의 경험, 빈약한 자아와 낮은 동기수준을 극복하는데 음악활동을 통한 접근은 도움이 된다고 보고되고 있다. 즉, 음악을 즐겁게 접근이 가능하며, 음악을 통해 타인과의 상호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상호작용의 기술을 익히기 쉽고, 다른 사람의 노래나 연주, 음악적 표현 등을 자신과 비교하는 경험을 통해 조망수용능력도 갖출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음악적 경험이나 활동은 그들의 느낌을 표현하도록 자극하여 타인의 느낌을 인식하는 정서적 반응을 돕고, 타인과 협조하고 함께 즐기는 등의 사회성을 증진시키는데 효과적일 있다고 제시한다(임수경, 2014).

또한 김효선(2011)은 발달장애 청소년 가족의 기능회복을 위한 다양한 방법 중 음악활동에 대한 긍정적 효과가 있음을 제시한 바 있다. 즉, 음악활동을 통해 발달장애 청소년의 정서적 발달에 도움이 되어 행복지수와 사회성이 향상되고, 이는 가족들이 함께 공동의 관심사를 공유하고 목표를 달성해가면서 가족 간의 유대가 강화되어 불안감이 해소되고 친밀감과 상호작용이 증가하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한 바 있다(김효선, 2011).

이처럼 발달장애아동이 음악활동프로그램을 통한 긍정적인 사회성과 정서적 발달의 변화가 가족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상호작용하여 가족의 삶의 질과 가족기능이 향상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즉, 한국 한국을 연습하고 무대에 오르는 등의 공동의 관심사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함께 노력하는 것을 경험함으로써 가족 간의 유대가 강화되고 가족들에게 도움을 받아야만 했던 발달장애 청소년들이 사회 속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가족의 상처가 치유되고 가족의 기능이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3. 토요일가 활용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라 삶의 질 향상, 건전한 여가 문화 정립, 그리고 올바른 인간성을 갖춘 창의인재 육성을 위해 ‘주 5일 수업제’가 2012년 3월부터 전면적으로 실시되었다. ‘주 5일 수업제’는 학생이 여유를 가지고 각자의 적성과 소질을 살리면서 자아 실현을 할 수 있도록 학교 수업일을 주당 6일에서 5일로 축소하여 실시하는 학교 운영 방법이다. 학습의 장을 가정과 지역사회까지 확대하여 학생이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체험활동을 하도록 도움으로써 핵심 역량을 갖춘 미래 인재 육성을 지향하고 학교, 가정, 지역사회에서의 교육이 균형을 이루는 교육공동체를 이루고자 하는 목적의 제도이다(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 2011). ‘주 5일 수업제’의 도입으로 토요일은 휴업일로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적절한 활동을 스스로 계획하거나 부모 또는 지

역사회의 지원을 통해 다양한 체험 활동의 확장과 더불어 지역사회의 통합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고 있다(박영신, 2013).

이에 정부 및 단체에서는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 및 인성교육과 공동체 화합의 도모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기획 및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비장애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장애청소년 및 발달장애청소년 대상의 지원은 부재한 상황이다. 특수학교 학부모의 토요 휴업일에 대한 조사연구 결과 토요 휴업일에 대한 활동 실태는 소수의 장애학생만이 가정, 학교, 지역사회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들은 토요휴업일 활동 프로그램이 자녀에게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나 장애학생들을 배려한 프로그램의 다양성 부족과 시설의 부족함을 지적했다(박영신, 2013).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 및 지원체계의 부재는 발달장애청소년과 가족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개인과 가족이 부담하게 하여 사회구성원으로서 거듭나는 발걸음을 가로막아 좌절하게 한다. 따라서 가정 밖 전문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에서 발달장애 청소년의 사회성 향상, 가족 간 소통과 기능회복, 다양한 문화예술 경험의 기회 제공을 위하여 발달장애 청소년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토요일 프로그램 개발과 확대가 필요하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가족이 함께하는 토요일음악활동을 통하여 발달장애 청소년과 그 가족이 다양한 문화예술을 경험하고 가족의 기능을 향상시키는지를 증명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연구대상을 다음과 같이 선발하였다. 2014년 1월~2월까지 총 5회기에 걸쳐 토요일음악활동프로그램을 전국 발달장애청소년 지원기관 25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프로그램에 참여한 발달장애청소년 가족 총 880명을 연구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이 프로그램 참가한 학부모 중 총 266명을 무작위로표본추출하여 프로그램 사전과 사후에 각각 설문을 실시하였다.

<표 1> 프로그램 참여기관

기관		기관	
1	경기도장애인종합복지관	14	수지장애인종합복지관
2	구리시장애인종합복지관	15	시립창동청소년수련관
3	군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16	안양수리장애인종합복지관
4	금천장애인종합복지관	17	안양시관악장애인종합복지관
5	남양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18	온누리 복지재단
6	대전광역시장애인재활협회	19	용인시장애인종합복지관
7	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	20	원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8	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21	음성군장애인복지관
9	생명장애인주간보호센터	22	이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10	서울시립남부장애인복지관	23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
11	성동장애인종합복지관	24	하트하트재단
12	성민복지관	25	행복한우리복지관
13	수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		

2. 측정도구

1) 독립변수 : 토요음악활동 프로그램

(1) 실무자 및 강사 워크숍

그룹음악활동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각 기관의 실무자와 음악 강사가 함께하는 워크숍을 실시하였다.

총 25개 기관의 110명이 참여하였으며, 특히 발달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전문 음악 강사들이 발달장애청소년 및 가족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진행하였다. 또한 그룹음악활동의 효과성을 공유하고, 효과적인 지도방법을 모색하였다.

<표 2> 프로그램 내용

구분		내용
1	1일차	프로그램 및 운영에 대한 소개
		강의 (발달장애 청소년 및 가족의 특성, 이해)
		그룹워크샵 (발달장애 청소년의 특성에 따른 개입방법)
2	2일차	강의 (그룹음악활동의 효과성, 실제적인 사례공유)
		그룹워크샵 (그룹음악활동 지도의 실제)
		그룹워크샵 (장르별 그룹음악활동 지도)

(2) 그룹음악활동

25개 기관은 각 기관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그룹음악활동을 진행하였다. 그룹별로 17~60명을 구성하여 클래식악기, 합창, 난타, 우쿨렐레, 뮤지컬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활동을 총 5회기로 실시하였다.

<표 3> 프로그램 내용

구분		내용
1	그룹 음악활동	클래식악기, 합창, 난타, 우쿨렐레, 뮤지컬 등 다양한 장르의 프로그램
2	현장학습	뮤지컬, 음악공연, 악기 박물관, 음악 캠프 등 다양한 현장학습 실시
3	발표회	5회기를 마무리하며 참여 대상자 전체합주, 사진관람, 편지쓰기 등 실시

(3) 기관 워크샵

25개 기관을 대상으로 사전 신청을 받은 후, 총 9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선 모델인 발달장애 청소년으로 구성된 하트양상블이 기관을 방문하여 하트양상블의 사례를 공유하고 참여 대상자들에게 동기부여 및 음악활동의 효과성을 전달하였다.

<표 4> 프로그램 내용

시간	내용
12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룹음악활동 참관 및 모니터링 - 오케스트라, 양상블 소개 - 양상블 시범교육 : 금관 양상블 / 클라리넷 양상블 - 학부모 특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원의 성장과정 : 음악 활동을 통한 긍정적 변화 : 앞으로의 계획 및 기대 - 질의응답 및 개별 인터뷰

2) 종속변수

(1) 발달장애아동 및 가족의 가족기능

발달장애아동 및 가족의 가족기능을 전반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하트하트재단(2014)이 개발한 질문지를 활용하였다. 질문지의 내용은 참여자에 대한 사항(6문항), 프로그램에 대한 사항(8문항), 발달장애 청소년의 행복도(6문항), 발달장애 청소년 가족의 융화(7문항), 발달장애 청소년 부모의 역할(11문항), 발달장애 청소년 가족의 생활 만족도(6문항)를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표 5> 발달장애아동 및 가족기능 측정 문항

구분	문항번호	문항수
1	참여자에 대한 사항	6
2	프로그램에 대한 사항	8
3	발달장애 청소년의 행복도	6
4	발달장애 청소년 가족의 융화	7
5	발달장애 청소년 부모의 역할	11
6	발달장애 청소년 가족의 생활 만족도	6

(2) 발달장애청소년 가족의 변화 척도

본 연구에서 참여자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FGI 내용을 분석한 후, 문항을 개발하여 사용하였다. 설문척도는 하트하트재단(2014)이 발달장애청소년가족의 음악활동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개발 검증한 척도로 FGI 등을 이용하여 내용타당도를 확보하였고, 통계적으로 구성타당도를 검증하여 척도를 개발하였다. 최종적으로는 총 14개 문항이 개발되었다. 4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876으로 나타났다.

<표 6> 토요일 음악활동을 통한 발달장애 청소년 가족의 변화 측정 문항

문 항	
1	토요일의 무료한 시간이 유용하게 활용되었다.
2	내 아이(장애 청소년)와 우리 가족의 친밀한 관계가 증진되었다.
3	내 아이(장애 청소년)에게 새로운 경험이 제공되었다.
4	내 아이(장애 청소년)의 음악적 흥미나 재능파악에 도움이 되었다.
5	내 아이(장애 청소년)의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었다.
6	우리가족의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었다.
7	내 아이(장애 청소년)가 타인과 소통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8	내 아이(장애 청소년)의 자신감과 성취감 증진에 도움이 되었다.
9	내 아이(장애 청소년)의 사회성 증가에 도움이 되었다.
10	토요일음악활동에 참여하면서 나 자신이 즐거웠다.
11	비장애 형제가 장애형제를 더 이해하게 되었다.
12	비장애 형제가 부모를 더 이해하게 되었다.
13	비장애 형제와 장애형제가 소통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14	비장애 형제의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었다.

3.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코딩과정(coding)과 클리닝 과정(data cleaning)을 통해 입력 오류를 검토한 후 SPSS 15.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빈도분석 및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을 위해서는 발달장애아동 및 가족의 기능에 대한 6개 항목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실시 이전(사전)과 실시 이후(사후)에 측정하여, 대응표본 t-검증(paired t-test)을 실시하여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토요일음악활동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단일집단사전사후 검사설계를 사용하였다. 이는 사실 실험설계가 아니므로 인과관계를 검증하는데 한계가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전국 25개 기관에 발달장애아동 및 가족 880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으며, 25개 기관 각각에서 실시한 단일집단사전사후검사설계의 결과를 통합하여 통계분석을 하였기 때문에 준실험설계의 다중시계열설계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연구방법론의 한계는 있지만 충분한 수준의 사례를 통해 취합된 자료들을 통한 설계방법이므로 내적타당도 저해요인을 상당 부분 제거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IV. 연구결과

1. 일반적 사항

1) 조사대상의 일반적 사항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의 일반적 사항은 다음과 같다.

<표 7> 설문 응답자

구분		빈도(명)	백분율(%)	구분		빈도(명)	백분율(%)
자녀 과의 관계 (n=265)	아버지	17	6.4	응답자 학력 (n=264)	초등학교	10	3.8
	어머니	235	88.7		중학교	12	4.5
	기타	13	4.9		고등학교	90	34.1
응답자 연령 (n=266)	20대	4	1.5		대학교	138	52.3
	30대	24	9.0		대학원	14	5.3
	40대	182	68.4	가정의 경제적 구분 (n=262)	수급자	17	6.5
	50대	51	19.2		차상위	17	6.5
	60대 이상	5	1.9		일반	226	86.3
			기타		2	0.8	

본 연구에 참여한 총 265명의 학부모들 중 어머니는 235명이었고, 아버지가 17명이었고, 기타가 13명이었다. 연령은 40대가 182명으로 가장 많았고, 50대가 51명, 30대가 24명, 60대 이상이 5명, 20대가 3명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대학교 졸업자가 139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등학교 졸업자가 90명, 대학원 졸업자가 14명, 중학교 졸업자가 12명, 초등학교 졸업자가 10명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가정 중 국민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 17명이고 대부분 일반가정이었다.

2) 토요일음악활동 참여 발달장애 청소년의 일반적 사항

토요일음악활동에 참여한 발달장애 청소년의 일반적 사항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는 <표 8>에 제시하였다. 성별은 남자가 62.4%(161명), 여자가 37.6%(92명)로 남자가 여자에 비하여 더 많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연령은 16.46(SD=14.13)세였고 8세~13세 사이가 35.7%(95명)로 가장 많았으며 17세~19세가 25.2%(67명), 14세~16세가

24.8%(66명), 8세 미만은 5.3%(14명)이었다. 20세 이상도 9%(24명)가 포함되어 있었다. 36.7%(95명)가 현재 초등학교에 재학 중이었고, 23.2%(60명)가 고등학교에 재학, 17.4%(45명)가 중학교에 재학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는 지적 장애가 52.5%(134명)였고, 자폐성 장애가 34.1%(87명)이었다. 프로그램 참여자 중에서 81.7%(196명)이 형제가 있었고 18.3%(44명)가 외동으로 나타났다.

<표 8> 발달장애 청소년

구분		빈도(명)	백분율(%)	구분		빈도(명)	백분율(%)
성별 (n=258)	남	161	62.4	연령 (n=266)	8세미만	14	5.3
	여	97	37.6		8세-13세	95	35.7
학력 (n=259)	미취학	18	6.9		14세-16세	66	24.8
	무학	1	.4		17-19세	67	25.2
	초등학교재학	95	36.7		20세 이상	24	9.0
	초등학교졸업	17	6.6		평균연령 =16.46(SD=14.13)		
	중학교재학	45	17.4	장애종류 (n=255)	자폐성장애	87	34.1
	중학교졸업	8	3.1		지적장애	134	52.5
	고등학교재학	60	23.2		기타	34	13.3
	고등학교졸업	15	5.8	형제여부 (n=240)	있다	196	81.7
			없다		44	18.3	

2. 분석결과

1) 참여가족의 주말 활용

토요일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 가족들이 주로 어떻게 주말을 보냈는지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주로 'TV를 보거나 컴퓨터 또는 스마트폰을 하면서 시간을 보낸다'고 응답한 가족이 22.4%(170명)로 가장 많았고, '쇼핑을 하거나 마트를 가거나 외식을 한다'가 15.4%(117명)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으며, 10.8%(82명)는 '가족과 함께 여행을 하거나, 공원산책, 등산, 인라인 스케이트 등 야외 활동을 한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9.5%(72명)가 '하는 일 없이 지루한 토요일을 보냈다'고 응답하였다.

<표 9> 주말에 이용하는 프로그램 (다중응답)

문항		응답수	백분율(%)
1	주로 TV, 컴퓨터, 스마트폰으로 시간을 보낸다.	170	22.4
2	가족이 함께 여행을 한다.	82	10.8
3	공원산책, 등산, 인라인 스케이트 등 야외 활동을 한다.	82	10.8
4	박물관, 미술관, 고궁, 인형극, 연극 등을 관람한다.	33	4.3
5	쇼핑, 마트, 외식 등을 한다.	117	15.4
6	친척들과 교류 한다.	66	8.7
7	무엇인가를 배운다.	37	4.9
8	부진한 학습을 보충한다.	32	4.2
9	가족과 함께 종교 활동을 한다.	57	7.5
10	하는 일 없이 지루한 토요일을 보내곤 한다.	72	9.5
11	기타	12	1.6

2) 토요일음악활동 프로그램

(1) 과거 음악프로그램 참여 경험

토요일음악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한 발달장애 청소년들에게 과거에 복지기관에서 다른 음악프로그램에 참여하였던 경험이 있는지를 물어보았다. 결과는 <표 10>과 같다. '발달장애 청소년만 음악활동에 참여했던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54.2%(141명)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다. '가족단위의 음악활동에 참여했던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12.7%(33명)로 과거에 음악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발달장애 청소년이 전체 대상자의 66.9%(174명)이었다. 반면에 33.1%(86명)의 발달장애 청소년들은 과거에 '음악활동에 참여했던 경험이 전혀 없었다'고 응답하였다.

<표 10> 과거 복지관 음악프로그램 참여 경험

문항		응답수	백분율(%)
1	발달장애 청소년만 음악활동에 참여경험 있음	141	54.2
2	가족단위의 음악활동에 참여경험 있음	33	12.7
3	음악활동 참여했던 경험 없음	66	33.1

(2) 참여 경로

조사대상자에게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경로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결과는 <표 11>에 제시하였다. 대상자의 57.1%(148명)는 ‘복지관 선생님의 추천’으로 토요일음악활동에 참여하였다고 응답하였고, ‘복지기관의 홍보 게시물’을 보고 참여하였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21.2%(55명), ‘아는 사람의 권유’로 참여하게 되었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18.5%(48명)로 대부분 복지관을 통하여 본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프로그램 참여 경로

문항		응답수	백분율(%)
1	복지기관의 홍보 게시물	55	21.2
2	복지기관의 홈페이지	1	.4
3	아는 사람의 권유로	48	18.5
4	복지관 선생님의 추천으로	148	57.1
5	기타	7	2.7

(3) 토요일프로그램 필요성에 대한 인식

토요일음악활동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프로그램 전과 프로그램 후에 각각 실시하여 그 차이를 검증한 결과는 <표 12>와 같다. 각 문항별로 살펴보면, 필요성 점수가

<표 12> 프로그램의 필요성 인식에 대한 분석결과

문항	응답	평균 (표준편차)		차이검증
		사전	사후	
1	258	4.35 (.60)	4.64 (.60)	-1.354
2	248	4.10 (.92)	4.23 (.85)	-1.902
3	258	4.16 (.82)	4.36 (.77)	-3.487**
4	251	4.00 (.95)	4.25 (.85)	-4.049***
5	258	4.55 (.61)	4.59 (.57)	-.968
6	257	4.66 (.57)	4.67 (.56)	-.181

p<.01, *p<.001

프로그램 진행 이후에 전체 6개 문항에서 모두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토요일에 장애자녀와 부모가 함께 할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성'과 '토요일에 가족모두 함께 할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성' 항목은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본 프로그램을 통해 발달장애 청소년과 부모, 가족이 함께 할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했음을 보여준다.

3) 발달장애 청소년의 행복도

발달장애 청소년의 행복도의 평균점수는 프로그램 실시 전에는 17.64점이었던 것이 프로그램을 실시한 이후는 18.49점으로 .85점 증가하였고, 이는 $p < .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토요일음악활동 프로그램이 발달장애 청소년의 행복도를 증가시키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

<표 13> 발달장애 청소년의 행복도 분석결과

사전 평균(표준편차)	사후 평균(표준편차)	차이검증(t값)
17.64(2.94)	18.49(3.28)	-4.60***

*** $p < .001$

4) 발달장애 청소년 가족의 융화

가족융화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면, 프로그램 실시 전에 가족융화 평균점수는 21.56점이었고, 프로그램을 실시한 이후는 평균점수는 22.13점으로 .57점 증가하였다. 이는 $p < .05$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토요일음악활동 프로그램의 발달장애 청소년 가족의 융화에 긍정적인 변화에 도움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표 14> 가족 융화 분석결과

사전 평균(표준편차)	사후 평균(표준편차)	차이검증(t값)
21.56(2.94)	22.13(3.28)	-2.56**

** $p < .01$

5) 발달장애 청소년 부모의 역할

부모역할에 대해서 살펴보면, 프로그램 제공 전의 부모역할 평균점수는 42.83점이었고, 프로그램을 제공한 후 부모역할 평균점수는 43.79점이었다.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전보다 프로그램을 제공한 이후의 부모역할 평균점수는 .96점 증가하였고, 이러한 변화는 $p < .05$ 의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토요음악 활동 프로그램은 부모역할의 긍정적 변화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다.

<표 15> 부모 역할 분석결과

사전 평균(표준편차)	사후 평균(표준편차)	차이검증(t값)
42.83(6.53)	43.79(6.72)	-2.34**

** $p < .01$

6) 발달장애 청소년 가족의 생활 만족도

생활만족도에 대해서 살펴보면, 프로그램 실시 전에 생활만족도 평균점수는 18.57점이었고, 프로그램을 실시한 이후의 생활만족도의 평균점수는 19.33점으로 .76점 증가하였다. 이는 $p < .05$ 의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검증되어 토요음악활동 프로그램이 생활만족도 증가에도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표 16> 생활 만족도 분석결과

사전 평균(표준편차)	사후 평균(표준편차)	차이검증(t값)
18.57(2.94)	19.33(3.28)	-2.54**

** $p < .01$

7) 토요 음악활동을 통한 발달장애 청소년 가족의 변화

프로그램을 통한 발달장애 청소년과 가족의 변화 분석은 총 14개 문항으로 평가되었고, 마지막 4개 문항은 형제가 있는 장애가족만 응답하였다. <표 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문항의 평균은 5점 만점을 기준으로 4.28에서 4.63까지 나타나 발달장애 청소년과 가족에게 효과가 있는 프로그램임을 보여주고 있다.

<표 17> 발달장애 청소년과 가족의 변화 분석결과

문항		응답수	평균 (표준편차)
1	토요일의 무료한 시간이 유용하게 활용되었다.	265	4.63(0.61)
2	내 아이(장애자녀)와 우리 가족의 친밀한 관계가 증진되었다.	264	4.44(0.67)
3	내 아이(장애자녀)에게 새로운 경험이 제공되었다.	265	4.59(0.62)
4	내 아이(장애자녀)의 음악적 흥미나 재능과악에 도움이 되었다.	265	4.28(0.77)
5	내 아이(장애자녀)의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었다.	265	4.43(0.72)
6	우리가족의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었다.	265	4.39(0.74)
7	내 아이(장애자녀)가 타인과 소통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265	4.38(0.69)
8	내 아이(장애자녀)의 자신감과 성취감 증진에 도움이 되었다.	264	4.33(0.68)
9	내 아이(장애자녀)의 사회성 증가에 도움이 되었다.	264	4.35(0.68)
10	토요음악활동에 참여하면서 나 자신이 즐거웠다.	263	4.55(0.64)
11	비장애 형제가 장애형제를 더 이해하게 되었다.	180	2.73(2.00)
12	비장애 형제가 부모를 더 이해하게 되었다.	180	2.69(1.98)
13	비장애 형제와 장애형제가 소통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180	2.73(2.00)
14	비장애 형제의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었다.	179	2.70(2.01)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인 문항은 ‘토요일의 무료한 시간이 유용하게 활용되었다’로 4.63이다. 다음으로 ‘새로운 경험’(4.59)이었으며, 함께 참여한 ‘부모(보호자) 자신이 즐거웠다’라는 응답이 세 번째로 높은 평균(4.55)을 보였다. 또한, 가족 간의 친밀한 관계, 장애자녀의 스트레스 해소, 가족의 스트레스 해소의 평균도 각각 4.44, 4.43, 4.39로 응답되어 토요일 가족단위의 음악활동이 가족관계에 도움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밖에도 장애자녀의 타인과의 소통(4.38), 사회성 증가(4.35), 자신감과 성취감 증진(4.33), 음악적 재능과악(4.28) 등 장애자녀의 사회성과 자신감에도 효과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토요일가족 음악활동으로 비장애형제가 장애형제나 부모를 이해하거나 소통한다는 측면에서의 효과는 보통(3.0) 이하의 평균을 보였다.

V.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사업은 발달장애 청소년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토요일 그룹음악활동을 통하여 가족의 기능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본 프로그램을 통해 발달장애 청소년 가족의 토요일음악활동은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발달장애 청소년 가족의 기능회복에서 효과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이지현(2009) 및 임수경(2014)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토요일음악활동을 통해 가족이 소통하고 화합하였는지를 측정하기 위해 ‘프로그램의 효과’, ‘가족 융화’, ‘부모역할 만족도’ 등 다양한 측면에서 평가를 실시하였다.

‘프로그램의 효과’ 측면에서는 ‘가족의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었다’, ‘장애자녀와 우리가족의 친밀한 관계가 증진되었다’에 대해 5점 만점을 기준으로 4.39와 4.44의 높은 결과가 나타났으며, ‘가족 융화’ 측면에서는 프로그램 실시 전에 평균점수가 21.56점이었고, 실시 후에는 22.13점으로 .57점 증가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부모역할 만족도’ 측면에서는 평균점수가 42.83에서 43.79로 .96점 증가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발달장애청소년과 가족이 함께 하는 토요일음악활동 프로그램이 가족 내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자녀와의 자연스러운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가족융화에 많은 도움이 되었음을 보여준다.

둘째, 토요일 여가 문화 조성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냈다.

토요일음악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에는 대부분의 참가자 가족이 토요일에는 주로 ‘TV를 보거나 컴퓨터 또는 스마트폰을 하면서 시간을 보낸다’고 가장 많은 응답을 하였다. 하지만 토요일음악활동 프로그램 참여 후 ‘장애자녀에게 새로운 경험이 제공 되었다’, ‘토요일의 무료한 시간이 유용하게 활용되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더불어 생활만족도가 프로그램 실시 전에는 평균점수가 18.57점이었고, 실시 후에는 19.33점으로 .76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통해 토요일음악활동 프로그램이 발달장애 청소년 가족에게 문화 예술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토요일 여가 문화 조성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결과로 해석된다.

셋째, 발달장애 청소년의 사회성 향상에 대한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선행연구의 연구결과와도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강진아, 2004; 류미정, 2007).



총 14개의 문항으로 토요일 음악활동 프로그램의 효과가 평가되었고, 그 중 발달장애 청소년의 사회성 향상에 대한 2개의 문항 ‘장애자녀가 타인과 소통하는데 도움이 되었다’와 ‘장애자녀의 사회성 증가에 도움이 되었다’에 대해 5점 만점을 기준으로 4.38과 4.35의 높은 결과가 나타났다. 더불어 장애 자녀의 행복도 평균점수가 프로그램 실시 전에는 17.64점이었고, 실시 후에는 18.49점으로 .85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행복의 수준이 유의하게 높아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통해 토요일 음악활동 프로그램이 발달장애 청소년의 사회성 향상에 효과가 있는 프로그램임으로 해석된다.

2. 제언

첫째, 발달장애 청소년 가족의 가족기능향상을 위한 그룹음악활동의 지속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발달장애 청소년 가족의 음악활동에 대한 재원 부족으로 시행하지 못했던 사업이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후원과 하트하트재단의 지원으로 시행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전국의 약 40여개의 기관에서 신청하였으며, 그 중 하트하트재단 자체 운영을 포함하여 총 25개 기관, 880명의 발달장애 청소년 가족에게 음악활동을 지원하였다. 5주의 단기사업임에도 880명의 발달장애 청소년 가족들에게 문화예술을 경험하고 가족 간의 소통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발달장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토요일 음악활동 프로그램은 발달장애 청소년의 행복도를 증진시키고, 가족을 융화시키며, 긍정적 부모역할 수행과 생활 만족도 증가에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효과성을 보았을 때, 「발달장애 청소년 가족의 토요일 음악활동」이 중장기적으로 진행되었을 때의 효과성이 매우 높을 것이라고 기대되며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둘째,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것이 요구된다.

전국의 장애인복지관 24개 기관을 모집, 선정 후 실무자 및 강사 워크숍을 진행하여, 기관 간 음악이라는 공통소재를 가지고 네트워크 활동을 시작하였다. 새롭게 문화 활동을 시작하는 기관의 경우 사업에 대한 노하우가 풍부한 기관들과 연계하여 사업을 시행할 경우 보다 효과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기관 간 정보교류나 네트워크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전국적으로 문화 활동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사회성향상, 가족기능향상을 도모하고 있는 기관간의 네트워크가 가능하도록 지원이 이루어져서 사업이 효과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 참고문헌

-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2011). 주 5일 수업제 토요프로그램 운영 개선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강진아(2004) 성인 자폐성 발달장애인의 사회인지 기능을 위한 음악치료적 접근.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음악치료교육 전공 석사학위논문.
- 김효선(2011) 가족놀이음악치료를 통한 부모-자녀관계 증진.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류미정(2007) 달크로즈 중심의 음악치료활동을 통한 지적장애아동의 주의집중력 향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음악치료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 박영신(2013). 지적장애아의 토요휴업일 실태 및 학부모의 요구 분석.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지영(2002). 합주활동이 초등학교 학생들의 인성에 미치는 영향. 부산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백유순(2008). 조기 중재 및 유아특수교육에서의 가족중심 실재를 위한 실천 과제. 유아특수교육 연구.
- 서명옥(2011). 장애아동 가족지원사업의 실태 및 서비스 욕구에 관한 연구. 과학기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계숙(2013).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양가족들의 양육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양숙미(2000). 정신지체 성인자녀의 부모를 위한 역량강화 집단프로그램 개발과 효과.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임해주 외(2012). 장애아동 가족지원 프로그램 연구 동향. 재활복지협회.
- 정귀옥(2004). 장애아동 양육을 위한 어머니의 사회적 지원요구 및 정보요구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은희(2009). 그룹음악 활동이 지적장애아의 부적응행동 감소와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동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Turnball, H. R. & Turnball H. R.(2002). *From the old to the nes paradigm of disability and families: Research to enhance family quality of life outcomes*. In J. L. Paul, et al. (Eds). *Rethinking professionals issues in special education*. London.
- Zuna, N., Summers, J. A. P., Hu, X., & Xu, S.(2011) *Theorizing about family quality of life*. In R. Kober (Ed), *Enhancing quality of life for people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From theory to practice*. Dordrecht, Netherlands.



A Study about the effect of group music activities targeted young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nd their families

Heart to Heart Foundation

Choi, Won-Hee

Associate Professor, Dept. of Social Welfare, Seoul Women's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is about the effect of group music activities targeted young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nd their families on the enhancement of their family functions. This study is conducted with its purpose on the continuous support of the group music activities as well as on confirming of its effect on harmonious relationship within the family, life satisfaction and empowerment of family functions. Total numbers of 880 people from 25 organizations nationwide that support youth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have participated for 5 times over the program period. Considering participants' age range, region and activity histories, 266 parents were selected for the pre-to-post survey. The result of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the family-joined group music activities increase social skills for youth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strengthens family functions and contributes positively to the leisure construction on Saturdays.

Therefore the necessity of various and continuous support for group music activities was discussed, in addition to the suggestion of constructing and strengthening the cultural welfare networking system for sharing and referring the information and resources.

■ Key words : Developmental disabilities, Group music activities

논문투고일 : 2014. 7. 20

논문심사일 : 2014. 11. 25

게재확정일 : 2014. 11. 28



장애인복지 연구 제5권 제2호
Disability & Social Welfare
Vol. 5, 73~96.

장애인활동보조인의 직업의식과 자기효능감에 관한 연구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오 혜 경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 임 혜 영

【국문초록】

본 연구는 활동보조인들이 인식하고 있는 직업의식과 자기효능감의 수준을 파악하고, 활동보조인들의 직업의식이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경기도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복지관, 장애인단체, 지역자활센터에서 근무하는 총 145명의 활동보조인의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활동보조인들의 직업의식과 자기효능감의 수준을 파악한 결과 하위 요인 중에서는 인지적 요인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동기적 요인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활동보조인의 직업의식에 하위요인은 직무현신, 소속감·사명감, 근속의지, 근무자세의 하위 요인 중에서는 소속감·사명감에 영향을 주고 있으나, 근무자세는 직업의식에 상대적으로 낮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 대상자들의 성별, 연령, 활동경력, 활동시간은 활동보조인의 자기효능감의 영향과는 유의미 하지 않음을 알 수 있고, 직업의식의 하위요인 직무현신, 소속감·사명감, 근속의지, 근무자세 중에서 직무현신이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다고 나왔다.

주제어 : 장애인활동보조, 직업의식, 자기효능감

I. 서론

1. 문제제기 및 연구의 필요성

최근 장애인 복지정책 방향은 시설 수용 중심 그리고 탈시설화와 재활을 강조하던 관점을 지나 현재는 자립생활과 지역사회통합을 중심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전환의 핵심적인 서비스가 중증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활동보조서비스(Personal Assistance Services)이다.

한국의 활동보조서비스(Personal Assistance Services)는 2005년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하여 2007년 4월 장애인 인권신장과 당사자주의에 초점을 둔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자립생활이념에 근거한 활동보조서비스가 제도화 되었다. 이에 활동보조인이라는 새로운 사회복지 노동인력이 생겨나게 되었다(보건복지부, 2007).¹⁾

그동안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와 관련된 국내의 선행연구는 자립생활과 활동보조서비스라는 범주에서 활동보조서비스가 자립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것으로 대부분의 연구(강희숙, 2005; 양희택, 2006; 윤두선, 2007; 김미자, 2007; 이광범, 2007; 이상록, 2007; 노연희, 2007; 이슬기, 2008)에서 활동보조서비스가 장애인들의 활동보조서비스 이용 후 자립생활에 만족감을 높이고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 결과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장애인 자립생활은 활동보조인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고, 활동보조서비스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활동보조인에 대한 연구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활동보조인은 다른 업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서비스를 통한 만족감, 성취감, 보람 등을 기반으로 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에 제공자들의 서비스를 수행하는 자세에 따라 서비스의 질이 달라 활동보조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최희경, 2008).

직업의식과 자기효능감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입증한 연구는 드물다. 그러나 개인적 효능감이 진로 계발과 직업 수행에 중심적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지각된 효능감이 높을수록, 직업선택의 범위가 넓어지고 그러한 직업에 대한 흥미가 커진다(Lent et

1) 정부는 2007년부터 활동보조지원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2009년 예산을 2008년보다 1.2% 증가시킨 21조 469억 원을 책정하였다. 특히 예산 중 주요 부분인 22.7%, 3조 7274억원을 복지 부분에 쓰기로 하고, 그 중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를 늘리는 장애인 복지에 1,936억원을 책정했다(김경미, 2005).

al, 1989). 효능감 신념은 심각하게 고려하는 선택의 범위를 결정한다. 아무리 이익을 주는 직업이라도 지각된 효능감이 없다면 사람들은 그 직업의 선택을 고려하지 않는다.

본 연구는 활동보조인들이 인식하고 있는 직업의식과 자기효능감에 수준을 파악하고, 활동보조인들의 직업의식이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근거로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하는 중증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활동보조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질적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실천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1] 활동보조인들의 직업의식과 자기효능감의 수준은 어떠한가?

[연구문제2] 활동보조인들의 직업의식이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가?

II. 문헌 및 선행연구 고찰

1.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장애인활동지원제도란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급여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로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에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수급자”란 제9조 제2항에 따라 수급자로 판정되어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예정이거나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하며, “활동지원급여란”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보건복지부, 2011). 2011년 10월에는 “활동보조 지원사업”에서 “장애인활동지원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대상자 확대, 장애등급심사, 긴급활동지원, 급여 확대, 급여량, 본인부담금, 수급자격 갱신의 문제점을 보완 실시하고 있다(2011, 보건복지부).²⁾

2) 장애인복지법 제53조에서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의 자기결정에 의한 자립생활을 위하여 활동보조인의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 또는 장애인 보조기구의 제공, 그 밖의 각종 편의 및 정보제공 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 규정을 통하여, 활동보조서비스는 법적 근거를 가지게 되었으며, 국가와 지자체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을 위하여,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의무를 가지게 되었다(보건복지부, 2011).

<표 1> 전국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현황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서비스 제공기관	409개소		453개소		508개소	
서비스 신규 신청자	13,177명		11,318명		4,628명	
서비스 이용자	23,946명		31,636명		32,691명	
활동보조인	16,423명		18,611명		19,664명	
	남	여	남	여	남	여
	2,289	14,134	2,323	16,288	2,456	17,208

출처 :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통계자료, www.socialservice.co.kr. 2011.

2. 활동보조서비스 관련 선행연구

국내 연구들을 대략 살펴보면 제도개선 및 이용실태에 대한 연구(고은호, 2008; 김경미, 2007; 남병준, 2008; 노연희, 2008; 박구휘, 2009; 송행숙, 2007;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09; 이채식, 2010; 정일교, 2007; 정종화, 2006), 이용자 만족도에 관한 연구(김길권, 2008; 김미자, 2008; 김한나, 2009; 김희경, 2008; 송재숙, 2009; 양희택, 2007; 윤용채, 2009; 이계임, 2009; 이광범, 2008; 이기균, 2007; 이삼식, 2009; 이용자, 2009), 삶의 질에 대한 영향에 대한 연구(김경미, 2004; 김민아 외, 2007; 김영숙, 2009; 김희경, 2008; 유시영, 2008; 윤두선, 2007; 이기윤, 2007; 이슬기, 2008; 이익섭 외, 2007; 정병문, 2008; 정일교, 2007)로 크게 나눌 수 있다.

활동보조인과 관련된 연구로는 직무만족에 대한 연구(고용철, 2009; 금희정, 2010; 김희경, 2008; 류경애, 2009; 박연희, 2009; 이채식, 2010), 활동보조인의 이직의도에 대한 연구(이익섭 외, 2010), 활동보조인의 활동지속성에 대한 연구(권선주, 2008), 활동보조인의 활동보조 직무만족에 대한 연구(고용철, 2010; 박경수, 2010; 오윤희, 2010)로 대별할 수 있으나 활동보조인의 직업의식과 자기효능감에 대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이들의 연구들 중 2009년 이후의 연구들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2>에 나타나 있다.

<표 2> 활동보조서비스에 대한 국내문헌검토 요약

연구 주제	연구자(연도)	연구 내용
이용실태 및 제도개선 방안	박구휘(2009)	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서비스 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09)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이용 및 공급실태 조사 연구
	이채식(2011)	장애인 활동보조인의 활동보조서비스 제공 실태 분석
이용자 만족도	김한나(2009)	도시와 농촌지역 활동보조인서비스 이용자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삼식(2009)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가 중증장애인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 연구 : 경기도 광주시를 중심으로
	조용호(2009)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 : 목표시 이용자 중심
	김형기(2010)	광주광역시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만족도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신경식(2010)	중증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의 이용자 만족도의 효과분석에 관한 연구
	이미경(2010)	중증장애인의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삶의 질 영향	이삼삼(2009)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가 중증장애인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 연구 : 광주광역시를 중심으로
	권다진(2010)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이용과 삶의 질 : 자기 효능감, 성취동기를 중심으로
	경영숙(2010)	장애인 자립생활서비스가 장애인의 생활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활동보조인 이직의도	이익섭·김성연· 이병화(2010)	장애인 활동보조인의 이직의도 영향요인 연구
활동보조인 지속성	권석주(2008)	장애인을 위한 활동보조서비스 지속성에 관한 연구
	박진영(2010)	장애인활동보조인의 활동지속 요인 연구
	박종엽·양희택(2011)	장애인활동보조인의 경험을 통한 활동지속특성에 관한 질적 연구
활동보조인 직무만족도	박연희(2009)	장애인 활동보조인의 특성 및 직무만족도에 관한 연구
	류경애(2009)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에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 : 자기효능감, 성취동기를 중심
	김성식(2010)	장애인 활동보조인들의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금희정(2010)	장애인 활동보조인 직무환경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채식의(2010)	장애인 활동보조인 소진과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
	이웅·김동기(2010)	장애인 활동보조인의 감정노동이 소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교육	김동기·이웅(2010)	활동보조인 교육성과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코디네이터 와 직무특성	고용철(2010)	장애인 활동보조 업무담당 코디네이터의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
	박경수(2010)	장애인 활동보조 코디네이터의 직무특성과 직업의식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오윤희(2010)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 코디네이터의 서비스 제공 경험:근거이론을 토대로

이와 같은 선행연구에 의해서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의 긍정적인 결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활동보조인에 대한 연구가 최근에 더욱 확대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3. 자기효능감

Bandura(1977)는 자기효능감은 개인이 어떤 행동이나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이라고 하여, 주어진 과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행위 과정을 조직하고 실행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신념으로, 애매하고 예측 할 수 없으며, 어느 정도 긴장되는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는 특수한 상황에서 어떤 결과를 성취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행동을 자신이 얼마만큼 잘 해낼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 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개인적 판단이라고 했다.³⁾

자기효능감은 인지적 과정, 동기적 과정, 정신적 과정으로 나누어 개념을 정리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자기효능감은 수행을 향상시키거나 훼손시킬 수 있는 사고 유형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인지적(cognitive) 효과들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높은 효능감을 지닌 사람들은 그들의 삶을 구성하는 데 있어 미래 지향적 시각을 가진다. 목적을 가지고 있는 인간 행동은, 인식된 목표들을 구체화시키는 선견지명에 의해 규제된다. 개인적인 목표설정은 능력에 대한 자기평가의 영향을 받는다. 지각된 자기효능감이 강한 사람일수록, 자기를 위해 설정하는 목표들은 더욱 높고, 그 목표들에 대한 관여도 더욱 확고하다(신상곤, 2007).

자기 동기화 능력과 목적적 행동 능력은 인지적 활동에 기초한다. 미래상태가 현재 동기나 행동의 원인이 될 수 없다. 그러나 계획된 미래는 미래에 대한 예상을 통해 현재를

3) Bandura(1977)는 자기효능기대가 자기효능감을 의미한다고 보는데 이 자기효능감이 결과기대 보다 동기와 더 밀접하게 관련되었다고 한다. 왜냐하면, 개인이 어떤 행동을 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어떤 결과에 이르게 할 것인지 알지라도, 자신이 그런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고 확신하게 되면 결과기대는 행동 동기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즉 자기효능감이 동기와 관련되어 성취의 결과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여기서 결과기대는 행동의 결과에 대한 개인의 신념으로 주어진 행동이 어떤 확실한 결과를 유출할 것이라는 개인의 추측을 의미하는 반면에, 효능기대는 결과를 얻는데 필요한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신념을 의미하고 결과를 생성해 내는데 요구되는 행동을 자신이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는지에 대한 확신감을 의미한다고 한다. 개인 내적으로 지각된 자기효능감은 학습 행동과 사고 유형, 정서, 환경의 선택 등에도 영향을 주고받는다. 그러나 자기효능감은 개인의 상황과 독립적인 성향처럼 작용하지는 않는다. 성취상황은 많은 예기치 않은 장애와 관련이 되는데, 어떤 상황이나 개인에게 똑같지는 않다. 즉, 똑같은 수행이라도 다른 사람에게는 자기효능감의 수준(magnitude or level), 강도(strength), 일반화(generality)의 정도에 따라서 다른 의미를 준다는 것이다(Bandura, 1977).

초래할 수 있다. 목적적 행동에 대한 이러한 기능적 설명에 의하면, 사람들은 어떤 목표를 선택한 후,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행동한다. 그러나 어떤 목표가 실현 그 자체의 원인은 아니다. 미래에 대한 예상은 자기조절 기제들의 도움을 통하여, 유인가와 행동과정으로 변화된다. 대부분의 인간 동기는 인지적으로 유발된다. 인지적 동기에서,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예상을 통해 자기 자신을 동기화시키고 자기의 행동을 미리 유도한다. 그들은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신념을 형성하고 다른 목표의 긍정적인 결과와 부정적인 결과를 예상하며, 자기를 위해 목표를 설정하고, 가치 있는 미래를 실현하고 혐오적인 것은 회피하기 위해 미리 설계한 행동의 과정을 계획한다. 효능감의 동기의 인지적 조절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김의철·박영신·양계민, 2004).

자기효능감 기제는 정서적 상태(affective states)의 자기조절에서도 중추적 역할을 한다. 효능감이 정서적인 경험의 속성과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 주요 방식을 구분할 수 있다. 그것은 사고(thought), 행동(action), 정서(affect)에 대한 개인적 통제의 실행을 통해서 이다.

정서적인 상태 조절에서의 사고지향적인 양식은 두 가지 형태를 지닌다. 효능감은 주위에 대한 편견을 갖게 하고, 인생의 사건이 호의적으로 또는 정서적으로 혼란스러운 방식으로 해석되고 인지적으로 표상되며, 인출되는지에 영향을 미친다. 영향의 두 번째 형태는 괴로운 생각이 계속해서 떠오를 때 그러한 생각을 통제하는 지각된 인지적 능력에 중점을 둔다. 행동지향적인 형태의 영향에서 효능감은 정서적인 잠재력을 바꾸는 방식으로 환경을 전환시키기 위하여 효과적인 행동과정을 지지함으로써 정서적 상태를 조절한다(김의철 외, 2004).

자기효능감에 관한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지속적으로 시도할 가능성이 높고, 한 개인이 취하는 행동이나 과업이 성공할 확률이 높아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마지막 단계에서 직접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보조인에 대한 자기효능감이 실제 서비스 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 대두되고 있다(김동기, 이용, 2010). 따라서 직접적 서비스에 해당하는 활동보조인 제공자들의 자기효능감은 중요한 작용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식(2010)연구에서는 개인특성 요인으로 자기효능감을 보았고, 자기효능감에 대한 연구는 주로 교사들의 자기효능감에 대한 효과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황선이, 1995; 조은정, 1997).

Matsui(1990)는 고교생을 대상으로 직업에 대한 태도와 진로 자기효능감과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직업에 대해 낮은 진로 자기 효능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Matsui(1990)의 일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진로 자기효능감 검사를 실시한 결과 남성 중심 직업에서 여성의 진로 자기효능감이 남성에 비해서 낮다는 연구결과를 보고 있다(정선주, 2009).

직업의식과 자기효능감의 관계에 대한 연구로 활동보조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아 활동보조인과 비슷한 업무영역에 있는 요양보호사와 간병인을 대상으로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이영란(2010) 요양보호사의 직업의식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요양보호사의 직업의식은 직업의 가치와 근속의지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과 자기조절효과감이 상관관계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활동보조서비스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와 대상자간의 정서와 일상의 교류를 전제로 하여 양자 간의 역동적 상호작용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최희경, 2008), 양질의 전문적 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해서는 신체적 측면과 인성적 측면 모두에서 우수함을 달성할 때 이루어질 수 있다(최희경, 2008 재인용).

자기효능감과 직업의식의 관계를 연구한 것으로는 김우택(1997)은 조직내 자기효능감의 연구에서 인지적, 동기적, 정서적 차원에서 18개 항목을 사용하여 이들 차원이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주요 속성 중에 직업의식을 주장하였다.

남경동(2003)은 병원종사자의 자기효능감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매개 역할을 하다는 것과 더불어 자기효능감이 높은 경우 기술다양성이 상승함에 따라 업무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남선이 외(2006)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을 유능성, 자신감, 추진력의 하위요인으로 추출하였는데, 특히 자기효능감이 자신감과 관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자기효능감이 높으면 이직의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변수로서 자기효능감은 자기조절, 인내심, 실패에 대한 대응, 내재적 흥미와 동기의 증진, 성취노력, 직업선택과 같은 어려운 행동에 대한 대처 행동을 유발시킴으로써 수행에 영향을 준다. 따라서 자기효능감 이론의 핵심은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할 경우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즉, 어떤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자신이 많은 사람일수록 그 행동을 시도하고 지속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다(서소영, 1997).

이상의 직업의식과 자기효능감에 관한 연구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직업의식이 중요성은 전문직의 경우 더욱 강조되고 있는데, 직업의식이 자기효능감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4. 직업의식

인간은 직업을 통하여 사회와 구체적 연관을 가지며, 사회의 발전을 위한 일을 맡아 그것을 훌륭하게 수행함으로써 사회를 위한 공헌뿐만 아니라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으며, 자아를 실현하는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활동보조인들 역시 장애인을 돌보는 활동에서도 자신의 직분을 의식하고 주어진 사회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직업의식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직업의식을 본 연구에서는 직무헌신, 소속감·사명감, 근속의지, 근무자세로 나누어 개념을 정리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직무헌신도는 연구자들에 따라 조직헌신도와 혼용하여 사용되고 두 개념이 서로 구별되어 사용되기도 한다. Katz & Kahn은 개인이 조직의 욕구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직무에 대한 헌신이 필요하며, 직무헌신의 수준은 개인의 기대수준과 조직목표를 내재화하는 정도와 관련된다고 봄으로써 직무헌신을 조직헌신의 구성요소로 정의하고 있다(한철, 1992).

소속감은 여러 학자들이 그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인간은 사회의 일원이기 때문에 사회를 떠나 고립된 존재로 이해될 수 없다. 인간은 소속되고자 하는 강한 욕구를 가졌으며, 소속감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만 어떤 문제에 직면하거나 그것을 처리하려는 노력을 하게 되는 것이다(김정희·이장호, 1995)

근속의지는 자신이 속한 조직에 대한 애착이 수반되며 다른 조직의 더 나은 업무조건 및 기타 조건에도 불구하고 현 소속조직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의지라 할 수 있다. 이는 조직에 대한 강한 소속감이 있어야 가능하다(최연숙, 2004).

근무자세는 의식에서 다루어지는 인지적, 감정적, 행동적 요소를 갖고 있다.

또한, 경험을 통하여 조직되고 지속성이 있으며, 개인이 선호하는 방향으로 느낌이나 사고하는 방법이고, 감정적으로 조직된 신념의 행동적 표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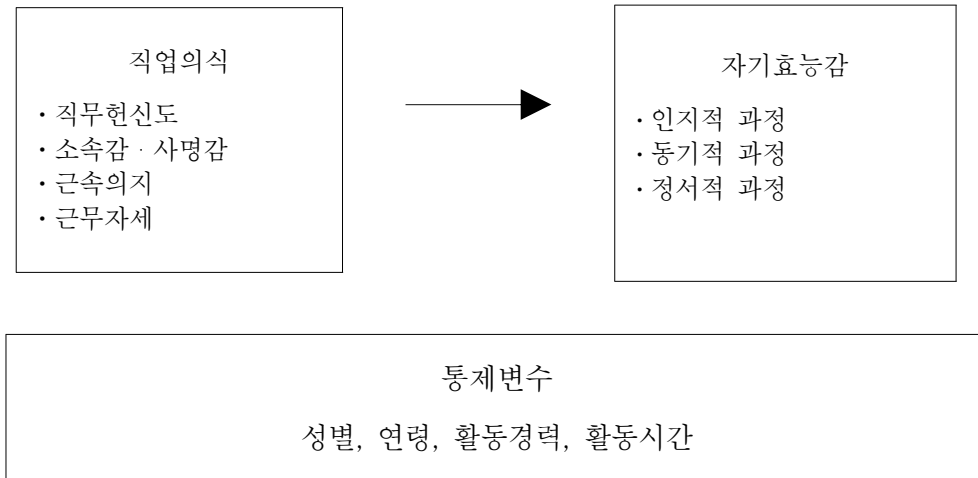
직업의식에 포함되는 요소는 직업의 종류에 따라 그 내용이 다르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의식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념형으로 정형화하기는 어렵다. 또한, 직업의식의 각 영역은 서로 중복되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명확히 구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김병숙, 199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직업의식을 직업헌신도, 소속감·사명감, 근속의지, 근무자세로 하위 영역을 구성하여 활동보조인의 직업의식을 측정하였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활동보조인들의 직업의식이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그림 1]과 같은 연구의 모형을 설정하였다. 독립변수인 직업의식은 직무헌신도, 소속감·사명감, 근속의지, 근무자세를 측정하고, 종속변수인 자기효능감을 설정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2. 연구문제

위의 연구 모형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아래의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1] 활동보조인들의 직업의식과 자기효능감 수준은 어떠한가?

[연구문제2] 활동보조인들의 직업의식이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가?



3.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에서는 서울, 경기 지역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복지관, 장애인단체, 지역자활센터를 통하여 연구대상자 임의표본추출(convenience sampling)을 통하여 서울 경기지역의 활동지원사업제공기관(168기관)에 소속된 활동보조인 145명을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연구대상 기관과 센터에 사전의 전화 및 공문발송을 통해 조사협조를 요청하였다. 그리고 조사협조를 수락한 센터들을 중심으로 연구자의 방문조사 및 우편조사 방식을 병행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4. 변수의 정의 및 측정도구

1) 종속변수 - 자기효능감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자기효능감은 개인이 주어진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하기 위해 필요한 동기와 인지 차원 및 행동절차를 얼마나 잘 발휘할 수 있는가에 대한 자신의 판단 또는 신념이라고 정의한다.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척도는 일반적인 자기효능감 척도로서 셰러(sherer)와 동료들이 함께 연구에 사용된 일반적 자기효능감 척도 (sherer et al, 1982 : sherer & Adams, 1993)를 번역하여 사용한 김우택(1997)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자기효능감 척도는 인지적, 동기적, 정서적 측면이 포함된 설문이다. 이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0.953$ 으로 높게 나타났다.

본 척도는 국내 사용한 김우택(1997)의 척도는 총 17개 문항으로 Likert식 4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2) 독립변수 - 직업의식

본 연구에서 직업의식을 측정하기 위해서 Wollack(1971)의 SWV(Survey of Work Value)를 근거 수정·보완한 최연숙(2004)도구를 사용하였다.

직무헌신, 소속감·사명감, 근속의지, 근무자세 등 4개의 하위요인 총 1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0.85$ 으로 높게 나타났다.

본 척도의 국내 사용한 최연숙(2004)의 척도는 총 15개 문항으로 Likert식 4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3) 통제변수 -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연구에서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통제변수로, 자기효능감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연구자가 구성하였다. 성별, 연령, 활동경력, 활동시간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IV. 자료분석

1. 신뢰도 분석

신뢰도 분석결과 총 직업의식에 대한 신뢰도는 0.882이며, 총 자기효능감은 전체적으로 0.848 이상의 높은 신뢰도로 적합한 신뢰도를 확보하였음을 알 수 있다.

직업의식과 자기효능감에 하위변수들 경우에도 0.7 이상의 높은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특히 소속감·사명감은 0.759의 신뢰도를 나타내고 있어 직업의식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신뢰도를 나타내었다.

자기효능감은 0.848의 신뢰도로 전체적으로 가장 높은 신뢰도를 나타내었다. 전체적으로 모든 척도에서의 신뢰성이 검증되었으며 이로 인해 통계처리 과정에서 제외된 문항은 없었다.

<표 3> 신뢰도 분석

구분		사례수	사용된 하위문항수	신뢰도 (Cronbach'a)
직업의식	직무헌신	145	4	.667
	소속감·사명감	145	5	.759.
	근속의지	145	3	.723
	근무자세	145	3	.695
	소계	145	17	.882
자기효능감	인지적요인	145	8	.694
	동기적요인	145	5	.712
	정서적요인	145	4	.657
	소계	145	15	.848

2. 조사대상자의 특성

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연구는 서울, 경기도에 속한 활동보조인 145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총 145명 중 성별은 남자 11명(7.6%), 여자 134명(92.4%)으로 나타나, 응답자 대부분이 여성으로 편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연령 평균은 49.7세로 약 50세로 나타났고, 이에 대한 표준편차는 8.12였다. 이는 활동보조인은 50세 이상 60세 미만까지 가장 많이 편중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활동경력은 1년 미만 32명(22%), 1~2년 미만 38명(26.2%), 2~3년 미만 36명(24.8%), 3년 이상 39명(26.8%)으로 나타났고, 이에 활동경력 평균은

<표 4>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N = 145)

특성	구분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자	11	7.5
	여자	134	92.4
	합계(N)	145	100
연령(세)	30세 미만	5	3.4
	30세 이상 ~ 40세 미만	8	5.5
	40세 이상 ~ 50세 미만	48	33.1
	50세 이상 ~ 60세 미만	76	52.4
	60세 이상	8	5.5
	합계(N)	145	100
활동경력	1년 미만	32	22.0
	1 ~ 2년 미만	38	26.2
	2 ~ 3년 미만	36	24.8
	3년 이상	39	26.8
	합계(N)	145	100
월 평균 활동보조서비스 활동시간	100시간 미만	68	46.8
	100 ~ 150시간 미만	62	42.7
	150 ~ 200시간 미만	10	6.8
	200시간 미만	5	3.4
	합계(N)	145	100

1년이며, 표준편차는 14.6 이다. 활동시간은 100시간미만 68명(46.8%), 100~150시간 미만 62명(42.7%), 150~200시간 미만 10명(6.8%), 200시간미만 5명(3.4%)로 나타났고, 이에 평균은 99시간이고, 표준편차는 46.5이다. 이는 활동보조인은 100시간미만으로 월 평균 활동보조서비스 활동시간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자료분석결과, 돌봄 서비스를 중·고령·저학력의 여성들이 주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고령의 여성들은 생계유지와 노후생활안정을 위하여 취업을 하고자 시도하나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로 인해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요구되지 않은 돌봄 서비스에 몰리고 있다. 결혼상태는 미혼 11명(7.6%), 기혼 120명(82.8%), 사별, 이혼, 별거 14명(9.7%)으로 기혼 120명(82.8%)이 주류를 이루었다. 종교는 무교 34명(23.4%), 기독교 73명(50.3%), 천주교 14명(9.7%), 불교 21명(14.5%), 기타 3명(2.1%)으로 기독교 73명(50.3%)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월 수입은 10~40만원 4명(2.8%), 40~70만원 50명(49.8%), 70~100만원 59명(53.5%), 100만원 이상 32명(24.1%)으로 70~100만원 59명(53.5%)에 비율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활동보조 동기는 주 생활비 마련을 위해 16명(11%), 경제적 도움을 얻기 위해 39명(26.9%), 삶의 보람을 찾기 위해 42명(29%), 여가활동 활용을 위해 43명(29.7%), 기타 5명(3.4%)으로 경제적 도움을 얻기 위해 39명(26.9%), 삶의 보람을 찾기 위해 42명(29%), 여가활동 활용을 위해 43명(29.7%)을 위해가 거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공기관의 유형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4명(2.8%), 복지관 139명(95.9%), 장애인단체 1명(0.7%), 지역자활센터 1명(0.7%)으로 복지관이 139명(95.9%)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활동하기 이전의 경험으로는 없음 61명(42.1%), 자원봉사 37명(25.5%), 간병인 5명(3.4%), 요양보호사 15명(10.3%), 사회복지사 3명(2.1%), 기타 24명(16.6%)으로 없음 61명(42.1%)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N =145)

일반적 사항	구분	빈도(명)	백분율(%)
학력	초졸이하	2	1.4
	중졸	20	13.8
	고졸	84	57.9
	2년제 대졸이상	22	15.2
	4년제 대졸이상	17	11.7
	합계(N)	145	100
결혼상태	미혼	11	7.6
	기혼	120	82.8
	사별, 이혼, 별거	14	9.7
	합계(N)	145	100
종교	무교	34	23.4
	기독교	73	50.3
	천주교	14	9.7
	불교	21	14.5
	기타	3	2.1
	합계(N)	145	100
월 수입	10 ~ 40만원	4	2.7
	40 ~ 70만원	50	34.4
	70 ~ 100만원	59	40.6
	100만원 이상	32	22.0
	합계(N)	145	100
활동보조 동기	주 생활비 마련을 위해	16	11.0
	경제적 도움을 얻기 위해	39	26.9
	삶의 보람을 찾기 위해	42	29.0
	여가활동 활용	43	29.7
	기타	5	3.4
	합계(N)	145	100
제공기관의 유형	장애인자립생활센터	4	2.8
	복지관	139	95.9
	장애인단체	1	0.7
	지역자활센터	1	0.7
	합계(N)	145	100
활동하기 전의 경험	없음	61	42.1
	자원봉사	37	25.5
	간병인	5	3.4
	요양보호사	15	10.3
	사회복지사	3	2.1
	기타	24	16.6
	합계(N)	145	100

3. 주요변수의 수준

1)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은 총 17문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로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표 6>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자기효능감은 5점 만점 중 전체평균이 3.73로 중간보다 다소 높은 점수로, 이는 자기효능감 수준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효능감에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인지적 요인의 평균은 3.80(표준편차=.47), 동기적 요인은 3.70(표준편차=.47), 정서적요인은 3.71(표준편차=.61)이다. 하위 요인 중에서는 인지적 요인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동기적 요인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서비스의 매개체가 되는 자기효능감이 높아야 한다(김수현, 2008)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활동보조인들의 전반적 자기효능감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다양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표 6> 자기효능감 수준

(N=145)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자기효능감	3.73	.44	2.41	4.53	
하 위 요 인	인지적 요인	3.80	.47	2.75	4.88
	동기적 요인	3.70	.59	2.40	5.00
	정서적 요인	3.71	.61	2.25	5.00

(최저값 = 1, 최고값 = 5)

2) 직업의식

활동보조인들이 올바르게 바람직한 가치관을 갖고 업무에 충실하다는 것은 개인의 삶의 가치적 판단 측면에서 상당한 중요 요인일 것이며(김성사, 2009), 연구대상자들의 정체성 확립은 현장에서 높은 자기효능감과 대상자들에 대한 애정으로 나타날 것이다(박승규, 2001).



<표 7> 직업의식 수준

(N=145)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직업의식		3.87	.51	2.33	5.00
하 위 요 인	직무헌신	3.88	.58	2.25	5.00
	소속감·사명감	3.94	.58	2.20	5.00
	근속의지	3.94	.64	1.33	5.00
	근무자세	3.72	.61	2.00	5.00

(최저값 = 1, 최고값 = 5)

<표 7>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직업의식은 5점 만점 중 전체평균이 3.87로 중간보다 다소 높은 점수로 활동보조인들은 직업의식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의식의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직무헌신의 평균은 3.88(표준편차=.58), 소속감·사명감은 3.94(표준편차=.58), 근속의지는 3.94(SD=.64), 근무자세는 3.72(표준편차=.61)이었다. 하위 요인 중에서는 소속감·사명감 3.94(표준편차=.58), 근속의지 3.94(SD=.6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직업의식 수준이 3점 이상으로 4점에 가까운 다소 높은 수준을 나타낸 것은 기존 선행연구들(최연숙, 2004; 박연희, 2009; 금희정, 2010)에서 연구대상자들의 직업의식 수준이 높게 나타난 결과와 유사한 결과이다.

3) 직업의식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활동보조인의 직업의식과 직업의식의 하위요인들이 활동보조인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표 8>과 같이 통제변수와 독립변수의 동시투입에 의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SPSS 회귀분석, 2009).⁴⁾

4) 본 연구에서는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본 연구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들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회귀분석을 위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에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을 확인하기 위해 피어슨 상관계수(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확인하였다. 독립변수의 상관관계가 .90이상인 경우는 다중공선성을 의심하게 되며, .90이상으로 나타나면 유의미한 회귀 모델의 경우에도 이들 독립변수와 종속 변수의 순수한 인과관계를 검증하기 어렵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80을 넘는 관계가 나타나지 않아, 다중회귀 분석을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자기효능감을 종속변수로 하고, 경로상 직접 영향을 주는 변수들을 설명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다중공선성 통계를 통하여 얻어지는 분산 팽창계수(VIF: variance inflation factor)는 잔여 분산의 값의 역을 취하여 구해지는데 이 계수의 값이 커질수록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심각해진다. VIF는 잔여분산의 역수이기 때문에 분산 팽창계수가 10이상 일 때는 심한 다중공선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하는데(Hocking and Pendleton, 1983; 강상경·좌현숙, 2007 재인용). 본 연구에서는 분산팽창계수가 모두 10이하로 나타나 독립변수들 간에 다중공선성 문제는 나타나지 않았다.

회귀분석에서 사용된 변수는 독립변수로 직업의식 그리고 직업의식의 하위요인인 직무 헌신, 소속감·사명감, 근속의지, 근무자세가 있으며 종속변수는 자기효능감이다. 통제 변수는 성별, 연령, 활동경력, 활동시간으로 처리하여 분석하였다.

다음 <표 8>은 활동보조인의 직업의식이 자기효능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 결과이다.

활동보조인들의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직업의식($\beta=.509, P<.05$)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이모형의 회귀선은 약 27%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R^2=.276$).

즉, 활동보조인의 직업의식이 높으면 높을수록 활동보조인의 자기효능감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활동보조인들의 직업의식 함양을 위한 다차원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표 8> 전체 직업의식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N = 145)

변수		자기효능감		
		B	β	t
통제 변수	성별	-.387	-.234	-3.091
	연령	.001	.021	.276
	활동경력	-.002	-.075	-.992
	활동시간	.000	.019	.256
독립변수	직업의식	.435	.509**	6.912
상수		2.50		
R		.525		
Adjusted R ²		.276		
F		10.57***		

p<.01, *p<.001

4) 직업의식 하위요인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다음 <표 9>는 활동보조인의 직업의식 하위요인이 활동보조인의 자기효능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 결과이다.

<표 9> 직업의식 하위요인들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N = 145)

변수		자기효능감		
		B	β	t
통계 변수	성별	-.317	-.191	-2.390
	연령	.001	.013	.170
	활동경력	-.002	-.063	-.823
	활동시간	.000	.021	.271
독립변수	직무헌신	.220	.291**	3.088
	소속감 · 사명감	.152	.202	1.489
	근속의지	-.034	-.050	-.340
	근무자세	.118	.166	1.610
상수		2.52		
R		.542		
Adjusted R ²		.294		
F		7.07**		

p<.01, *p<.001

활동보조인들의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직업의식의 하위요인 중 직무헌신($\beta = .291$, $P < .05$)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이 모형의 설명력은 $R^2 = .294$ 였다.

즉, 직무헌신이 높으면 높을수록, 활동보조인들의 자기효능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업의식은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직업에 대한 느낌으로 직업의 선택과 직업 생활에 대해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가치와 태도를 뜻하며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해당 직업에 대해 가지게 되는 특유한 의식이나 태도로써, 사회, 경제, 문화적 변화에 따라 이동성을 갖게 된다(최현숙, 2004). 또한, 일에 대해 개인이 지니고 있는 가치관 혹은 정신적 태도로 직업에 대한 총체적 의식으로 정의할 수 있다(박연희, 2009).

즉, 활동보조인들이 직업이 사회와 이용자, 그리고 서비스 제공자들 양자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는 수준으로 본 직무헌신은 공공서비스로서, 본인들이 사회에 큰 기

여를 하고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활동보조인은 ‘휴먼서비스(human service)’이며, 서비스 대상자들과 대면하여 서비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상자들에 대한 가치관, 인내, 희생 등에 이어 소명의식이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전체 직업의식에 대한 회귀분석을 할 때 유의미하지 않았던 통제변수 중 성별, 활동경력은 자기효능감과 부적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활동보조인의 활동경력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활동보조인들의 자기효능감의 수준은 낮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직업의식을 하위요인으로 나누어 그 설명력을 보았을 때, $R^2 = .294$ 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직업의식의 이중성을 보여주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직업의식 내에서 근속의지는 부적효과가 나타나 전체 직업의식을 낮추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따라서 직업의식을 하위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V. 논의 및 제언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하는 중증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활동보조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책적, 실천적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정책적 제언 차원에서 활동보조인들의 근무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활동보조서비스가 시행된 지 3년이 넘어가고 있음에도 본 연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서 살펴보면 활동보조인 활동경력이 3년 넘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속하고 있는 활동보조인들은 26.8%를 차지하고 있다. 근무를 지속 할 수 있는 정책을 제도화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활동보조인들의 보수 및 수당의 적정성 확보가 필요하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에서 살펴보면 활동보조인의 보수는 100만원 미만이 46.8%를 차지하고 있다. 활동보조서비스의 서비스 가능시간은 24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야간 및 주말에 대해 야간별도 할증이 없어(2010, 보건복지부) 제공기관의 야간 및 주말수당 지급이 전무한 상태이다. 신체 활동보조와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함에 있음에도 보수는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개선에 대한 당위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위하여 활동보조인의 임금, 복리후생, 교육, 전문성 인정, 대상자와의 커뮤니케이션 등의 근무를 지속 할 수 있는 정부 영역의 공공서비스조



직에서 주요하게 다루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실천적 제언으로서, 활동보조서비스 중개기관에 대한 표준 시스템과 기관관리 매뉴얼을 개발하여야 한다. 중개기관 별로 자체의 규정과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있으나, 기관관리 인력의 부족과 운영비의 부족으로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 중개기관에 대한 표준 시스템과 매뉴얼을 통하여 서비스 업무내용 등을 표준화하고 활동보조인과 이용자 간의 갈등 발생을 최소화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에 활동보조인에 대한 재교육 기회를 강화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활동보조인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교육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보수교육을 보다 활성화시켜 활동보조서비스 경험이 증가하면서 나타나는 소진과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밖에도 활동보조인의 업무내용의 적절성은 전문 직종으로써 정체성은 활동보조서비스의 직접 케어자인 활동보조인의 전문성과 친밀성, 수행범위 등의 범위가 중요함을 인지하고 활동보조인의 적절성이 활동보조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가져올 것이다. 이를 위하여 직업의식에 대한 긍정적인 자세를 갖도록 유도하고 관리하는 자기효능 프로그램이나 사업, 교육 등의 실천적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강영식(2006). 사회복지사의 자기효능감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권선주(2008). 장애인을 위한 활동보조서비스 지속성에 관한 연구. 고신대학교 선교목회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금희정(2010). 장애인 활동보조인 직업의식과 직무환경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경성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경미(2005). 장애인의 활동보조서비스 이용 이후 삶의 변화에 대한 연구: 신체적, 심리적, 사회관계적 측면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57(4), 121-122, 한국사회복지학회.
- 김동기, 이웅(2010). 활동보조인 교육성과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장애인복지학, 12, 57-73, 한국장애인복지학회.
- 김정희, 이장호(1995). 현대심리치료. 중앙적성출판사
- 김병숙 외(1997). 한국인의 직업의식 조사.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김복희(2010). 사회복지서비스 바우처사업 종사자의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 개인적 특성의 조절효과 분석을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선실(2011). 돌봄 서비스 제공자들의 직무만족 영향요인.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성식(2010). 장애인 활동보조인들의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대구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소정(2006). 사회복지서비스기관 일선종사자의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행정학, 8(3), 86-111,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 김우택(1997). 조직구성원의 역량제고를 위한 임파워먼트 과정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의철, 박영신, 양계민(2004). 자기효능감과 인간행동. 서울: 교육과학사.
- 김한나(2009). 도시와 농어촌지역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이용자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구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형기(2010). 광주광역시 중증장애인활동보조인 만족도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류경애(2009).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에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 자기효능감, 성취동기를 중심. 백석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구휘(2009). 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서비스 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광주, 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도서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진영(2010). 장애인활동보조인의 활동지속 요인 연구. 경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보건복지부(2011).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 신상곤(2007). 자기성장 집단상담이 중학생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고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 철(1992). 조직몰입의 영향요인과 조직유효성과의 관계에 관한 실증적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A Study on the Effect of Work Ethic of Personal Assistant for the Disabled on Self - Efficacy

Oh, Hea-kyung

Professor, Dept. of Social Welfare, Catholic University

Jung, Han-Na

Master, Dept. of Welfare, Catholic University

[Abstract]

The goal of this study is not only to understand the level of work ethics and self-efficacy of which personal assistants of the disabled are aware, but also to figure out whether personal assistants' work ethics impact on self-efficacy. The following research subjects are established, 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personal assistants, which give a significant impact on improving quality of life for severely disabled people, and coming up with grounds of social welfare promotion to improve quality of life.

After was represented a parent population of personal assistants, who worked at the disabled self-support centers, community welfare centers, the disabled communities, and local self-support centers located in Seoul and Gyeonggi-do, total 145 personal assistants' data were collected and analyzed. Conclusions of the study were drawn as follows.

As a result of understanding the level of work ethics and self-efficacy, cognitive factors are represented with relatively high frequency, while motivational factors are with relatively low frequency.

Sense of belong and sense of duty give a significant impact on work ethics, attitudes do a relatively low impact on the ethics: factors of work ethics include commitments, sense of belong, sense of duty, continuous service will, and attitudes.

If correlation with independent variables were 0.9 or more, multicollinearity would be doubted, and a pure causal relationship among independent variables and dependent variables would be hard to validate despite meaningful regression model. However, this study did not show correlation with 0.9 or more.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impact of sex, age, career, working hours, and work ethics on self-efficacy, it is not only found that sex, age, career, and working hours are non-significant, but also found that commitments are significant, among factors of work ethics - commitments, sense of belonging, sense of duty, continuous service will, and attitudes.

From this study, policy implications and empirical implications were elicited as follows

First, [policy implication] public service organization will have to mainly deal with career sustainability issues such as wage, benefit package, education, expertise recognition, communication, and so on.

Second, [empirical implication] efforts to foster self-efficacy program, business, and education will be required to induce and manage work ethics of personal assistants with positive attitudes.

■ Key words : personal assistants of the disabled, work ethic, self-efficacy

논문투고일 : 2014. 7. 20

논문심사일 : 2014. 11. 25

게재확정일 : 2014. 11. 28



장애인복지 연구 제5권 제2호
Disability & Social Welfare
Vol. 5, 99~121.

장애인 거주시설의 환경에 관한 실무자 인식 연구

이 복 실
고려사이버대학교 외래교수

【국문초록】

본 연구는 거주시설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포커스집단면담을 통해 거주시설 환경의 문제와 개선사항에 대한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조사대상자는 다양한 거주유형의 직접서비스 제공자 1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분석결과 크게 3가지 주제로 범주화되었다.

분석된 범주는 거주시설 환경의 문제(산재한 시설적 요소, 사생활 공간 부족, 거주환경 중요성 이해부족, 환경 영향과 변화 어려움 딜레마), 거주시설 환경변화의 의미(가정집과 유사한 환경, 작은변화가 큰 기쁨, 이용자 마음 따라가기), 거주환경의 개선 사항(합리적인 제도 운영, 디자인 비용 반영한 예산추계, 표준지침 제시) 등이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장애인 거주시설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집과 같은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실천적 방안을 도출하였다.

주제어 : 장애인 거주시설, 거주환경의 중요성, 거주환경 변화

I. 서론

가장 기본적인 생활양식에 해당되는 주거¹⁾는 삶에서 중요한 요소이다. 일상의 핵심공간으로 기능하는 주거의 유형과 안정성은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 주거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수준에 대한 권리로, 주거의 물리적 측면과 사회경제적 측면이 모두 반영되어야 한다(유동철, 2011). 주거권은 인간의 주거문제를 권리차원에서 접근한 것이며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약자들을 포함한 모든 국민에게 해당되는 기본권이다. 헌법 제35조 3항에서도 국민의 쾌적한 거주생활을 위한 국가의 노력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은 주거권을 둘러싼 쟁점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존중되는 주거생활을 보장받을 것과 이를 충족할 수 있는 구조와 형태를 강조한다고 볼 수 있다.

모든 사람은 집단이 함께 생활하는 시설보다 자신의 가정에서 사는 것을 가장 선호하며 그러한 주거형태가 최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원가족과 생활하기 어려운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거주시설이 요구된다. 즉 가족이 더 이상 보호자로서의 책임을 이행할 수 없고, 서비스가 제공되더라도 혼자서 살아가기 어려운 상황의 장애인에게는 원래의 가정기능을 단기적 또는 장기적으로 대리할 수 있는 서비스가 마련되어야 한다(임성만, 2013). 장애인거주시설은 원가족과 함께 할 수 없는 장애인을 위한 일상공간이다. 따라서 시설의 물리적 환경은 거주인의 일상생활과 삶의 질에 매우 영향을 끼치게 된다.

2011년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장애인거주시설은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 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기간 동안 거주·요양·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로 규정되어 있다.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의 주요 쟁점 중 하나는 장애인거주시설의 개념과 기능의 재정립이다. 그동안 거주인의 삶이 대부분 거주시설 내에서 제한적으로 유지되었다면, 이제부터 거주시설은 거주기능에만 집중하고 다른 서비스는 최대한 지역사회를 통해 지원받아야 함을 구체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가 가능하게 된 배경에는 장애인 주거권의 이슈가 주요하게 작용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그동안 도외시되었던 시설의 환경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환기시키는 데도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1) 본 논문에서는 주거와 거주 개념을 구분하지 않고 혼용하였다.



현재 전국의 장애인 거주시설 현황(2014. 4월 기준)은 장애유형별 시설 602개소, 공동생활가정 685개소, 단기보호시설 132개소이며 이 숫자는 2011년의 생활시설 490개소, 공동생활가정 637개소, 단기보호시설 119개소에 비해 증가한 것이다. 장애인의 자립과 탈시설 강조 등의 패러다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고령화와 부모의 사후를 대비한 대안으로 거주시설에 대한 수요는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장애인의 주거권을 확보하기 위한 일환으로 거주인의 욕구와 능력에 적합하도록 거주 유형을 다양화시키는 것에 대한 필요성이 공감되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려는 노력도 점차 가지화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신규 거주시설의 경우 인원을 30인 이내로 제한하거나 서비스 최저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시도들은 집과 같은 환경을 갖추기 위해 제도로서 구체화된 것이라 하겠다.

시설환경은 거주인의 신체적·정서적 건강에 많은 영향을 끼치며, 실내환경도 거주인에게 매우 민감하게 작용하므로 무엇보다 거주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여건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거주인의 일상과 존엄성을 유지하고 보장하기 위해서는 외부환경의 조성 뿐만 아니라 시설 내부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의 고민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거주시설의 내부와 외부 환경은 전반적으로 거주인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치므로 장애인 주거권과 삶의 질에 관한 논의에서 무엇보다 민감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장애인 거주시설이 불가피하게 원가정의 기능을 대신한다는 점에서 거주시설은 최대한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전형적으로 시설적인 요소라고 여겨지던 여건들을 최소화하거나 최대한 배제시켜야 함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시설의 외관이나 내부를 가능한 집과 같은 구조로 하거나 공간을 배치하고 획일적이지 않는 다양한 색깔을 활용하며 그리고 거주인의 특성과 욕구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디자인하는 것 등이다. 환경의 중요성이 쟁점화되면서 장애인 거주시설 신축, 기능보강 및 리모델링 과정에서 기존의 시설환경에 디자인 요소를 가미하는 시도가 실천현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과거에는 장애인 거주시설이 주로 거주인의 보호와 안전에 치중하여 심미적이거나 실용적인 측면을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였다. 최근 이러한 한계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면서 거주인의 건강, 특성, 가정과 같은 분위기 그리고 지역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의 중요성이 차츰 공감되고 있다. 그러나 거주시설의 환경에 무관심했던 만큼 직접서비스를 제공하는 실무자들이 시설의 환경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며 환경의 문제를 인식할 기회도 많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장애인거주시설의 환경 변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거주환경의 실태에 대한 분석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와 같은 거주시설의 한계나 문제점 그리고 변화나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등과 같은 환경에 대한 장애인거주시설 주요 관련자들의 인식이 먼저 파악되어야 한다. 실천현장의 실무자들은 거주시설 환경의 문제를 인식하고 주도적으로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할 책무가 있기 때문이다. 거주환경의 실태와 욕구는 장애인당사자들을 통해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거주인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발달장애인의 경우 대부분 특정 시설에서만 생활하였다는 경험의 제약성과 추상적 질문에 대해 답변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고려하여 조사대상자로 참여시키지 못하였다. 따라서 장애인과 일상을 공유하고 거주인에게 영향을 끼치는 서비스 제공자들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시설환경 전반에 대한 이해를 살펴보고 환경변화를 위한 요구되는 방안들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현재 장애인거주시설 실무자를 대상으로 거주시설의 환경실태에 대한 인식과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등을 파악하였다. 연구결과는 시설환경의 현실과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료가 될 것이며 시설적인 요소를 탈피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II. 문헌 고찰

1. 장애인거주시설 환경의 중요성

건물은 거주서비스가 제공되는 방법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건물은 대중이 서비스나 서비스 이용자들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서비스이용자들이 자신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건물의 설계, 위치, 역사, 디자인은 건물과 연관되는 모든 서비스의 성격, 특징 그리고 그 지향점과 매우 긴밀하게 상호작용한다. 그러므로 건물은 장애인 주거서비스의 한 축으로서 사회통합의 정도를 결정짓고 서비스의 질에 영향을 주는 요소이다(김용득 외, 2013).

건물에 대한 인식과 가치는 초기 정상화이론의 기틀을 마련한 학자들을 통해서도 강조된 바 있다. 니르체(1972)는 정상화개념을 '지적장애인 일상생활의 양식과 조건을 주류사회의 규범과 양식에 가깝게 만드는 것'으로 구체화하고, 정상화이론을 지적장애인 거주시설에 적용시킬 것을 주장하였다. 장애인거주시설과 같은 집단거주서비스의 경우 무엇보다 지역사



회 통합, 접근성 보장, 소규모화 등의 입지요건과 환경을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울펜스버거 외(1972)는 정상화원리를 긍정적 이데올로기로 강조하면서 물리적 사회적으로 지역사회에 통합된 주거형태를 중시하였다. 또한 장애인의 사회적 역할실현을 위한 방법으로 이미지 향상을 제시하면서 거주서비스 시설의 물리적 상황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였다. 장애인거주시설이 주변지역과 조화되는지, 외부나 내부가 잘 구비되어 있는지, 물리적 접근성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내부의 구조 인테리어에도 관심을 쏟고 있는지 등을 시설 평가에 반영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러므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물은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의 매개물로서 계획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1969년 울펜스버거가 주장했던 전통적인 시설은 훈련, 노동, 교육, 레크레이션, 보건서비스 등 모든 것을 한 장소에서 해 왔지만 향후 주거는 자고, 먹고, 생활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장소로 소규모로 지역사회에 통합할 것을 강조(성명옥 역, 2013)한 맥락의 연장선이라 하겠다.

장애인 거주시설이라는 건물을 인식과정에는 선입견이 작용할 수 있다. 실제로 물리적 시설은 해당 건물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 건물의 내부가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어도 건물 외관이나 주위 환경에 따라 거주인과 일하는 사람 등 주요 관련자들에게 부정적으로 인식될 수 있다. 이처럼 건물의 외관은 객관적인 외형을 가지고 있지만 건물을 인식하는 것은 주관적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무엇보다 거주시설은 거주인의 편의를 위해 설계되어야 한다. 거주인에 대한 충분한 고려없이 건축가의 편의에 의해 설계된 건물은 외관상 잘 설계되었다 하더라도 거주인의 복지를 등한시한 설계가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지역사회에 고립되어 외진 곳에 위치한 장애인거주시설의 경우, 거주인과 그 가족들에게 불편함을 줄 뿐만 아니라 시설서비스 제공자의 전문적, 과학적 고립을 초래한다.

한편 직원, 프로그램, 사회적 인식 등 다양한 변수들이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건물의 배치나 내부적, 물리적 환경 설계도 서비스의 질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와 같은 제반 환경요인은 거주인의 비적응적 행동을 촉진할 수도 있으며 반대로 신체적 성장과 인성의 성장, 능력, 편안함, 미의 경험, 개별화를 향상시키고 지원할 수도 있다. 환경과 관련된 요소에는 적당한 온도와 환기, 쾌활하고 다양한 색채 장식, 유해한 냄새가 없고, 과도하거나 지속적인 소음이 없는 것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상담실은 개인적인 대화가 진행되는 곳이므로 사생활이 보호되어야 하며 여기에는 화장실 설계와 거실 위치 등도 포함된다. 대기실은 커튼, 그림이나 조각 같은 미술품, 화분 등으로 편안하게 꾸며져야 한다(울펜스버거, 1972).

사회복지서비스 건물은 거주인의 편의만을 위해서 설계하는 게 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거주시설의 가장 중요한 소비자가 거주인임은 명확한 사실이며 우선시되어야 함을 기억해야 한다. 장애인 중심의 세심한 디자인적 대응을 통해 장애인의 삶의 질과 사회적 역할의 가치를 높이는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

2. 장애인거주시설의 원칙과 서비스최저기준

1) 거주서비스 원칙

현재 장애인 거주시설의 이미지는 분리, 집단생활, 통제처럼 부정적이며 이를 긍정적인 이미지로 바꾸기 위해 거주시설 서비스 원칙이 주요한 쟁점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모든 사람은 가능하다면 자신의 가정에서 생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하지만 자신의 집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거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거주시설은 필요하다. 거주시설이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제공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다음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김용득 외 2013).

첫째,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대체로 사람들은 자신의 집에서 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거주시설 이용 이전에 원가정에서 적절한 지원을 받게 하는 조치가 우선되어야 한다. 거주서비스는 장애를 가진 가족구성원을 돌보기 어려운 특별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거주시설에서 보다 더 안정적이고 긍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때 선택되어야 한다.

둘째, 이용자의 자유와 자기결정이 보장되어야 한다. 거주시설은 거주공간과 일상적 일과에서 개인의 기본적인 자유와 사생활이 보장되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따라서 기존 시설의 공간과 사람들의 일상적인 삶의 모습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일상생활의 모든 측면에서 기본적인 자유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방식이 변화되어야 한다. 자유권의 보장원칙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상해를 입힐 위험이 있거나 타인에게 상해를 가할 위험이 확인된 경우에는 위험 상황을 예방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될 필요가 있다.

셋째, 보통의 집과 유사한 거주공간이 제공되어야 한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거주시설은 집과 같은 공간은 아니다. 1인당 거실면적은 3.3㎡ 이상(가구 점유면적 합산), 한 방에서는 최대 8명(성인의 경우)까지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다. 이러한 거주 공간 기준을 영국(침실과 거실을 합하여 1인당 14㎡ 이상)이나 일본(수납설비 제외하고 1인당 9.9㎡ 이상)과 비교해본다면 우리나라의 기준은 상당히 열악한 상황이다. 가장 집과 같은 유사

한 거주공간은 아파트나 단독주택의 형태이며, 각 집마다 화장실, 세탁 공간, 식사 공간 등이 별도로 제공되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연속적인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거주서비스는 그 자체로 고립된 공간으로 생각되어왔기 때문에 시설입소는 최후의 거주장소를 결정하는 선택으로 여겨졌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거주 욕구와 서비스 욕구가 각각 분리되어 개인의 욕구에 기초한 개별 맞춤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거주시설의 형태는 다양하게 설계할 수 있으며, 제공하는 서비스의 기관과 목적에 따라서도 다양한 방식이 마련되어야 한다.

2) 장애인을 위한 적절한 주거원칙

Malone(2003)은 장애인을 위한 적절한 주거 원칙으로 점유 안정성, 안전, 시설 확보, 접근가능성, 쾌적성, 비차별성, 다양성 보장, 사생활 보장, 사회통합의 원칙을 제시하였다. 적절한 주거원칙은 거주서비스가 제공되는 과정에서 준수하거나 시설설계에서부터 충족시켜야 할 원칙을 지칭하며 장애인의 제한적인 이동성과 감각손상에 대한 부분도 적절하게 반영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주거원칙은 위치, 시설디자인, 가치, 장애 특성에 부합하는 설비 구비, 서비스 제공방식 등을 모두 망라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원칙을 준수하는 것은 거주인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배려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거주시설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된다. <표 1>은 장애인의 적절한 주거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9가지 주거원칙의 세부내용이다.

<표 1> 장애인의 적절한 주거 기준 9가지

적절한 주거원칙	주요 내용
점유 안정성	▪ 지속적인 거주가 가능해야 함
안전	▪ 시설구조가 견고하고 안전해야 함
시설 확보	▪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설비가 구비되어야 함
접근가능성	▪ 가격에 부담이 없고, 장애인의 접근이 용이해야 함
쾌적성	▪ 적절한 거주공간이 확보되고, 온도·습도·채광·방풍 등이 적절해야 함
비차별성	▪ 장애유형, 성별, 연령에 상관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야 함
다양성 보장	▪ 장애인의 개인적 성향이나 특성이 고려되어야 함
사생활 보장	▪ 장애인의 사생활이 보장되어야 함
사회통합	▪ 지역사회 내의 시설과 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3) 장애인거주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인 거주시설의 개념이 상담·치료·훈련의 공간에서 거주·요양·지원의 공간으로 개편되었다. 하지만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에는 시설의 종류만 열거되어 있으며 집행기준이 되는 [별표 5]에는 단순히 거주시설의 새로운 분류 명칭만 반영되어 있어 구체적인 후속조치가 미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김용득 외, 2013).

장애인 거주시설의 변화를 도모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장애인 거주시설의 국가서비스 최저기준(National minimum standards)이 마련되었다. 장애인 거주시설 서비스 최저기준의 가장 중요한 취지는 장애인 거주시설의 제도적, 실천적 측면에서의 근본적인 변화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서비스 최저기준에는 거주시설 이용자의 삶의 조건과 일상적인 거주방식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들이 포함되어 있다. 서비스 최저기준은 총 9개 영역 40개 기준이다. 장애인 거주시설의 환경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은 제7영역이며, 개별 기준과 주요 원칙 및 하위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기준 25에서는 가정과 유사한 설비를 통해 거주인의 특성에 부합한 개별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것을 중시되고 있다. 기준 26, 27의 개인침실의 공간요구 그리고 가구와 시설물에서는 침실바닥 면적을 1인당 5제곱미터로 확정할 것, 개인의 기호에 맞추어 침실을 꾸미고 개인물품 보관창구가 마련되어야 함이 강조되고 있다. 기준 28에서는 화장실과 욕실 등 비교적 시설에서 취약했던 공간을 예로 들면서 이용자 개인의 사생활이 보장되는 수준의 환경을 갖추어져야 함을 중시되고 있다. 기준 29에

<표 2> 장애인거주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 : 환경 영역

기준	원칙
25. 시설과 설비	이용자는 가정과 유사한 설비를 통해 개별욕구를 충족하며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받는다
26. 개인침실:공간요구	이용자의 욕구를 반영한 적절한 면적의 침실이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7. 개인침실:가구와 시설물	이용자는 개별욕구와 생활양식을 충족할 수 있는 가구와 부속품이 있는 침실을 제공받는다
28. 화장실과 욕실	이용자는 개인의 사생활이 보장되는 수준의 화장실과 욕실을 제공받는다
29. 공용 공간	이용자는 일반 가정집과 유사한 설비를 갖춘 공용공간을 자유롭게 이용한다
30. 보조기구와 설비	이용자는 개별욕구를 충족하고 자립능력을 최대화하는데 필요한 보조기구와 설비를 제공받는다
31. 위생과 감염예방	이용자는 깨끗하고 위생적인 시설에서 생활한다

서는 일반 가정집과 유사한 설비를 갖춘 공용공간을 마련할 것과, 기준 30에서는 개인의 욕구와 자립능력을 최대화하는데 필요한 신체와 감각장애의 보조기구와 전문설비가 갖추어져야 함이 강조되고 있다. 기준 31의 위생과 감염예방에서는 시설의 청결을 강조하고 이용자가 위생적인 시설에서 생활하도록 다양한 여건을 구비할 것이 강조된다.

Ⅲ. 장애인 거주시설 환경 관련 질적 분석

1. 연구방법 및 참여자 특성

본 연구는 장애인 거주시설 환경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현재 직접서비스를 제공하는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포커스집단면담을 실시하였다. 포커스집단면담은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개인들이 참여하여 특정 주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며, 특정 합의에 도달하지 않고 자신의 인식을 표현하도록 허용한다는 특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 거주시설 환경에 대한 실무자의 의견을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거주시설 유형의 실무자들을 포함시키고자 하였다.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며 거주인과 일상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거주인에게 미치는 환경의 영향력을 직접 경험하게 되므로 거주환경의 의미와 환경변화에 대한 풍부한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연구에 참여한 실무자는 총 10명이며 세부내용은 <표 3>과 같다.

<표 3> 연구참여자의 특성

구분	성별	거주시설 유형	직위/직책	사회복지경력
실무자 1	여성	성인 여성 생활시설(발달)	사무국장	13년
실무자 2	남성	성인 남성 생활시설(발달)	사무국장	6년
실무자 3	여성	아동 생활시설	팀장	6년
실무자 4	여성	성인 그룹홈(발달)	사무국장	24년
실무자 5	남성	성인 생활시설(발달)	사무국장	17년
실무자 6	여성	중증요양시설(신체)	사무국장	13년
실무자 7	여성	중증요양시설(발달)	사무국장	8년
실무자 8	여성	아동 생활시설	사무국장	10년
실무자 9	여성	장애영유아 생활시설	사무국장	13년
실무자 10	여성	성인 그룹홈(발달)	생활교사	9년

본 연구에서는 거주시설의 특성을 다양하게 반영하기 위해 연구참여자의 경력, 거주시설 유형, 직위 등을 고려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연구과정에서 확보된 자료는 모두 당사자의 동의를 얻고 녹음하였으며, 자료의 녹취내용을 토대로 내용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2. 분석결과

포커스집단면담의 분석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장애인거주시설 실무자 질적연구 분석결과

범주	하위범주	주요 내용
장애인 거주시설 환경의 문제	여전히 산재한 시설적 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도식 배치, 창살 있는 창문, 외곽에 위치, 큰 표지판 - 규모가 큼, 락스 냄새, 초대형 신발장 - 신체적 조건을 고려하지 않은 창 - 모든 방의 가구가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제작된 것
	사생활 보장 공간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적인 감정을 추스릴 공간이 필요함 - 다목적 공간이 마련되어 필요시 적절하게 사용되어야 함
	환경중요성에 대한 공무원 이해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부합하지 않은 일률적인 편의시설 구비에 대한 비효율성 - 거주인의 특성과 무관한 시설 배치 및 전환 - 전체를 보기보다 정해진 틀 안에서만 인식하는 경향
	환경 영향과 변화 어려움 딜레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과 같은 공간이 중요함에 동의하나 어려움 산재함 - 서비스 최저기준의 적용에 대한 실무자 부담
장애인 거주시설 환경 변화의 의미	가정집과 유사하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실이 있고 각 방이 나뉘어져 있고 복도식이 아닌 것 - 거주인이 선택하거나 원함에 따라 할 수 있는 공간 - 시설의 전형적인 요소들을 탈피할 것
	작은 변화가 기쁨으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의 성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소소한 환경변화 - 정서적 안정감이 생겨나고 문제행동이 감소함 - 번호키 현관문 스스로 여는 것과 각자 방 문패에 기뻐함
	이용자 마음 따라가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주인의 입장에서 공간을 바라보니 다르게 보임. 환경에 대한 철학이 최초 설계 단계부터 반영되어야 함 - 장애인을 위한 편안, 밝은 공간과 디자인 만들기
장애인 거주시설 환경의 개선 요구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제도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에 위치한 경우 굳이 시설임을 드러내지 않아야함 - 건축단가가 현실적으로 미흡함. 표준건축비에서도 차이남 - 불필요한 편의시설을 법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설치해야 하는 경우가 많음
	디자인 비용한 예산 추계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의 효율적 활용과 이중 작업을 줄이기 위한 방법임 - 거주인의 환경 개선과 삶의 질을 고려할 것이 요구됨
	신축과 리모델링 표준 지침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시설처럼 시설이 참고할 수 있는 매뉴얼 필요함 - 시설을 건축할 때부터 디자인 철학이 반영되어야 함 - 지침서 제공으로 예산과 에너지 소모를 줄일 수 있음



1) 장애인거주시설 환경의 문제

(1) 여전히 산재한 시설적 요소

연구참여자들은 시설환경이 거주인의 주요 공간이라는 점에 동의하지만 시설임을 인식하게 하는 부분들이 여전히 산재한다고 인식하였다. 환경이 거주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주요하게 다루어지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설립된 소규모시설의 사례는 환경변화가 실천현장에서 충분히 실현되지 못함을 입증한다고 볼 수 있다. 실무자들은 특히 획일적이고 큰 쇠창살 창문, 일자형 복도, 공동화장실, 외곽 위치 등을 시설임을 상징하는 전형적인 요소로 꼽고 있었다. 2009년 이후 설립된 소규모시설은 여러 측면에서 개선되고 있으나 오래전에 설립된 대규모 시설은 많은 한계에 직면해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처음 그 시설을 보고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가 말하는 전형적인 복도식 건물이었습니다. 창문이 있긴 한데 이용자의 머리 위로 있었어요. 왜 그랬냐고 하니까 안전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중증시설이라 휠체어가 자유롭게 다녀야하고 안전 때문에 화장실 문을 안 달았어요. 더 놀라운 것은 최근 신축이라는 점입니다.’ (실무자 8)

‘최근에 지은 시설인데도 외관이 각이 진 빨간 건물, 창문에 창살, 시 외곽의 시설들.’ (실무자 5)

‘아주 큰 이정표요. 시설 위치와 이름을 알려주는.’ (실무자 9)

‘천편일률적인 창문들, 일자형 긴 복도, 복도에 길게 늘어선 기자재들, 동일한 컬러의 페인트 칠한 것 등.’ (실무자 1)

‘일단 건물의 규모가 아주 커요. 그리고 시설에 가득한 락스 냄새, 초대형 신발장, 공동 화장실’ (실무자 6)

‘긴 복도, 너무 큰 거실, 시야나 신체적 조건을 고려하지 않는 창문 설치 같은 것들요.’ (실무자 8)

(2) 사생활 보장공간 부족

실무자들은 거주시설이 직면한 문제로 거주인의 사생활을 존중해 줄 여건이 안 되고 있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하였다. 거주시설은 다수의 공동생활이 전제되기 때문에 불

가피하게 거주인의 생활을 보호받지 못하거나 침해될 수 있는 여건에 처해있다. 실무자들은 다수의 시설이 직면한 문제나 한계 및 변화의 어려움에 공감함에도 불구하고 거주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거나 장애특성에 부합하는 공간 구성 및 환경 조성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의견은 신축이 어렵다면 기존 공간의 활용도를 높이는 대안이 고려되어야 함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자신들만의 공간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단체생활을 하니까 특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관은 가능한 여유 공간을 몇 개씩 만들어 둡니다. 어떤 때는 그냥 그 곳에 한참을 있다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얼굴도 편안해보이는 것 같고, 처음에는 막 찾았지만 지금은 개입안하는 편입니다.’ (실무자 5)

‘만약 거주시설을 신축하게 된다면 건물을 지을 때 아기자기한 공간을 많이 만들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계단 밑의 공간을 창고로 쓰지 말고 놀이공간으로 만들거나 사적인 장소로 주는 거예요. 특히 지적이나 자폐성 거주인이라면 그게 필요합니다. 기존 시설의 경우라도 공간의 의미를 생각해서 꾸미고 활용하는 것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실무자 7)

(3) 거주환경 중요성에 대한 공무원 이해부족

실무자들은 시설환경이 거주인의 심리정서에 미치는 영향을 담당공무원들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안타까움과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었다. 특히 거주시설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최저기준에 대한 논의가 대두되면서 시설의 관련자들이 시설의 내외부 환경을 거주인의 복지를 강조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과 달리 공무원들의 거주환경에 대한 이해부족과 행정편의주의로 인해 실무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실천현장에서 환경개선과 기능보강과 관련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지원하는 방안으로, 실무자들은 장애인 거주시설 역할, 기능변화, 거주환경 영향, 거주시설에 관한 인식 개선 등과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들 위한 교육과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공무원은 전혀 이해가 없으세요. 현장에서 공무원과 싸우는 게 너무 힘들어요. 공무원들을 위한 교육을 하거나 지침상의 가이드라인에 이런 내용들을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공무원들은 지침대로 하니까 더 편하게 시설을 잘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실무자 9)

‘공무원들은 가장 유해한 부분만 생각하지 그 외는 부분은 보려들지 않는 것 같아요. 시설의 환경을 고려할 때 정해진 틀 안에서만 보시는 경향이 있죠.’ (실무자 1)

‘아직도 여전히 공무원들은 시설은 값도 저렴하고 재질도 수수한 것만 써야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벽지나 장판, 화장실, 욕실 리모델링할 때 가능한 화사하고 고급스러운 자재로 하려고 했는데 관공서는 그걸 사치로 여기더라고요. 오히려 시설이 그렇게 튼튼하고 좋은 제품을 써야 하느냐고 지적하더라고요’ (실무자 7)

(4) 환경 영향과 변화 어려움 딜레마

실무자들은 장애인 거주시설의 환경이 거주인의 심신 상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에 대부분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리모델링이나 기능보강을 통해 거주인의 만족도가 매우 높아진 것을 경험한 실무자들은 기회가 된다면 거주환경을 변화시키는 데 주력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실무자들은 공통적으로 시설적인 요소를 지양하고 가정과 같은 환경을 선호하였으나 예산의 한계로 인해 애초의 의도와 다르게 시설을 부분적으로만 개보수하거나 환경에 변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결과를 통해, 실무자들은 거주환경의 중요성과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예산이라는 현실적 제약으로 인해 기대했던 변화를 시도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거주환경이 거주인한테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 시설의 직원들이라면 공감할 것입니다. 우리도 가능하면 요즘 강조하는 시설같지 않는 집과 같은 공간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아마 다른 시설도 저희랑 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리모델링때 하고 싶어도 그게 어렵다는 점이에요. 일단 예산이 그렇게까지 할 수가 없어요. 간신히 필요한 것만 고치거나 더 하고 싶을 때는 자부담이 동반되어야 여력이 있고...’ (실무자 4)

‘거주시설 서비스 최저기준에서 환경을 중시하잖아요. 그런데 아직 우리한테는 맞지 않는 부분이 아주 많아요. 그 기준으로 할 수 있으면 무엇보다 거주인에게 좋겠지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룹홈은 충족시키기 어렵습니다.’ (실무자 1)

2) 장애인거주시설 환경변화의 의미

(1) 가정집과 유사하게

실무자들은 집과 같은 거주시설의 환경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설이라고 말하는 측면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은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집과 비슷

한 환경과 공간구성이 가장 절실함을 주장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집과 같아지려면 거주인이 자유롭게 출입하고 외출할 수 있어야 하며 지나치게 시설적인 요소를 배제하려는 의식적인 노력은 오히려 시설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물리적 환경과 관련하여 실무자들은 시설환경에 대한 관심이 외관에만 집중하는 것과 대규모 시설에 반드시 존재하는 긴 직사각형 복도가 먼저 사라져야 한다는 것 등에 동의하였다.

‘정말 집이었음 좋겠어요, 시설이라고 제한두지 말고. 거실 있고 방 있고 부엌 있고 그런 집 자체요. 무엇보다 정말 긴 직사각형 복도가 아닌 일반적인 집 형태의 시설인 집. 그리고 시설 같지 않게 보이려고 애쓰는 것이 오히려 더 시설임을 강조하는 것 같아요.’
(실무자 7)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갈 수 있는... 선생님들의 허락없이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집에서선 아들이 온다고 어디 가니?, 왜 오니? 하지 않잖아요. 허락을 구하지 않고 자유롭게 다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실무자 10)

‘저희는 신축을 할 때 거주 환경이 거주인에게 중요하다는 철학을 담았어요. 기본적으로 가정식으로 지었구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팬션이냐고 물어봅니다. 거실을 중심으로 배치하고 창도 큰 창으로 넣고.. 특히 중증장애인분들이라 생태건축으로 했어요. 재료는 시멘트 대신 주로 황토를 사용하였구요...’ (실무자 6)

(2) 작은변화가 기쁨으로

실무자들은 거주인이 거주환경의 변화에 직접적으로 그리고 민감하게 반응을 보인다고 답변하였다. 특히 아동이나 청소년의 경우 거주환경에 대한 반응속도가 매우 빠르며 소소한 환경변화에도 긍정적으로 반응한다고 여기고 있었다. 거주인의 욕구와 관심을 반영한 시설변화는 거주인의 성격을 변화시키고 안정감을 주며 문제행동도 감소시키는 등 일상생활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침을 알 수 있다. 조사결과를 통해 거주환경에 변화라는 것이 반드시 전체적인 시설의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며 관심을 가지는 것, 원하는 것 등 거주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이를 반영해주는 사소한 시도만으로도 상당히 의미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이들은 표정이 달라져요. 좁은 공간에서는 마찰도 많고, 소리도 지르고, 문제행동도 많았는데, 거주환경이 바뀌면서 넓어지니까 애들도 여유가 생기는 것 같고 무엇보다 문제행

동도 많이 줄었어요. 외부인들도 보고 얼굴이 밝아졌다고 하세요.’ (실무자 9)

‘예쁜 벽지로 바꾸면 예쁘다고 하고....이런 표현이 즉각적이구요, 큰 공사가 아니더라도요. 그 때 저희가 느끼는 게 구조나 환경을 조금만 바꾸게 되면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스트레스도 덜 받을 수 있구나예요. 예쁜 거, 좋은 거 하면 반응이 막 와요. 들여다 보기도 하고... 생각을 조금만 달리하고 아이디어를 내니까 서로가 편안하게 생활할 수가 있어요.’ (실무자 7).

‘처음에는 너무 시설스러운 분위기였어요. 지역과 밀집해 있는데 바리케이트가 쳐져 있고. 그러다 공원화사업 프로젝트를 신청해서 부지 안에 공원도 조성하고 정문도 없애고 휴게공간도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장애인분들도 밖으로 나오시고 산책도 하고 편의시설도 이용하시는 거예요. 물론 지역주민들도 지나가다 쉬었다 가고, 당연히 시설에 대한 인식도 좋아지죠!’ (실무자 6)

‘저희같은 그룹홈은 장비보강이란 도배정도만 가능해요. 원래는 열쇠키라 교사만 가지고 다녔는데 번호키로 바꿨더니 이용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직접 열고 들어온다는 것 자체로 너무 좋아해요. 자기 방에 문패도 만들었는데 반응이 엄청 커요. 사진 찍어서 엄마한테 보내고.... 이런 식으로 살고 있는 공간의 환경이 조금만 바뀌어도 많은 것이 바뀌는 것 같아요.’ (실무자 10)

(3) 이용자 마음 따라가기

실무자들은 거주환경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항상 관심을 가지고 거주인의 눈높이로 바라볼 때 환경의 변화에 따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실무자들은 거주인의 변화를 체험한 것을 토대로, 거주인의 삶에 대한 이해와 존중은 시설 건립을 준비하고 설계하는 단계에서부터 갖추어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는 시설운영자나 건축가가 자신의 의견을 먼저 내세우기 보다는 거주인의 마음을 충분히 읽고 읽고 그들의 눈높이에 적합한 환경을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함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과거에 거주시설의 외관에만 관심을 쏟았다면 이제는 공간 구성이나 내부 배치, 컬러 등 실내 인테리어 전반에 대해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어떤 공간이든 편안하고 밝은 느낌을 주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공간이라면 더욱 디자인에도 신경을 써주면 좋겠습니다. 마음 편한 공간을 이용

하면 효과도 높아지지 않을까요? 우리는 오랫동안 시설 디자인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은 것 같아서요. 디자인이 강조되었음 합니다.’ (실무자 4)

‘어느 날 문득 근무하다가 창 밖을 보는데 창살모양이 왜 중요한지를 알았습니다. 창문을 통해서 보여지는 모습들이 창틀과 같이 보이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 거주인도 지금 나처럼 이렇게 보겠구나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이런 거였구나!.. 이런 사소한 것에도 마음이 담겨져야 하는 게... 건축을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시설 이념, 가치, 철학이 담겨져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실무자 7)

3) 장애인거주시설 환경의 개선요구

(1)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제도 운영

장애인 거주시설은 편의증진법에 따라 점자블럭, 유도선 및 안내설비 등 안내시설의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다. 그러나 실무자들은 영유아시설이나 발달장애인의 경우 일부 편의시설의 구비가 거주인의 활동에 불편을 초래하거나 안전사고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비효율적이라고 여기고 있었다. 또한 거주시설은 현관이나 입구에 명패를 부착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을 거주시설로 활용하는 경우 지역주민들에게 시설임을 안내하는 격이 되어 오히려 부정적으로 인식될 수 있음을 우려하였다. 향후 대규모 거주시설이 소규모 시설로의 전환이 활발해짐에 따라 지역사회 내에 소규모 방식의 거주시설이 많이 생겨날 것을 감안한다면 합리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서는 관련 요건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우리는 장애인시설이니까 소방설비부터 기타 시설을 구비해야 하는데 차지하는 공간이 어마어마하더라구요. 2층이라 장애인용 리프트를 설치해야했어요. 총 공사비가 3천3백인데 중요한 건 휠체어 리프트를 딱 2번 사용했었어요. oo은 그런 불필요한 것까지 필요하지 않고 편의시설을 추가적으로 몇 가지만 더해주면 되는데 안타까운거죠. 공무원, 설계사 모두 모르고 저희가 정보를 제공해도 반영이 안되니까...’ (실무자 5)

‘우리는 생활시설이 아파트 형식인데 현관문에다 담당공무원이 팻말을 붙여놓으라고 요구를 해요. 구청으로부터 지원을 받아야 하니까 어거지로 붙여놓았다가 다녀가면 돌려드립니다. 지역주민이 지나가다 물어보면 우린 시설이라서 붙인다고 얘기해야 하는거죠. 구청 담당자가 원칙만 고수하시는 거죠’ (실무자 5)



‘실제로 불필요한 편의시설을 법이기 때문에 하는 경우가 생겨요. 법인설립 후 10년 동안 단기보호시설이라 자폐와 지적장애인분들만 오시는데 시각장애인 경보기, 음성기 등을 해야 하는 낭비가 있어요.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편의시설법을 안 지킬 수는 없고,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되고, 실제로 거주인에게 너무 불편하고... 그래서 준공 받은 다음에는 뺏다가...’ (실무자 7)

‘장애영유아 시설의 점자블럭은 정말 불필요해요. 편의시설을 점검하는 공무원에 따라 차이가 큰 거 같아요. 어떤 분들은 그냥 넘어가기도 하고, 잣대에 따라 바뀌더라고요. 불편한 것은 알지만 그냥 하자고 그러세요. 아동들의 경우 오히려 걷는데 불편하거나 걸려 넘어져 다치기도 합니다.’ (실무자 9)

(2) 디자인 비용 반영한 예산 추계

실무자들은 거주환경의 변화를 준비하는 단계에서 실내 인테리어를 충분히 고민하지 못하고 공사에 착수할 경우 비용과 에너지 소모가 크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예산 낭비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거주시설의 환경개선을 지향하기 위해서는 기능보강의 예산 추계과정에 디자인 비용이 반영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초기단계에서 디자인이 고려될 경우, 거주인의 욕구와 의견을 적절하게 반영하여 만족도를 높일 수 있고 결과적으로 거주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장애인 거주시설 개편안이 실제로 실천현장에서 적용되기 위해서는 실무진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되고 예산에도 적극 반영되어야 함이 시사되고 있다.

‘비용이 들더라도 인테리어 도면을 따로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설계 때 반영이 안 되면 건물을 다 짓고 나서는 인테리어 변경이 어렵거든요. 설계를 할 때 저희가 나름 인테리어를 했는데 실제로 준공하고 나서 도면을 보니까 비슷한 거예요. 공사하는 사람이나 관리하는 사람 모두에게 다 좋은 것 같아요.’ (실무자 6)

‘건축설계 외에 실내 환경 디자인 설계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설계가 나와야 여기는 어느 벽지를 바를지, 바닥은 뭘로 할지가 결정되거든요. 저희가 그런 디자인 설계비용을 책정하려해도 공무원의 이해가 부족해서 결국 자부담을 했습니다. 거의 재능 기부 같은 저가로 하긴 했지만요. 설계비를 예산 부분에 책정할 수 있도록 지침에 넣는 것이 필요해요.’ (실무자 9)

‘기능보강이나 리모델링에 대한 자문단이 구성되어서 설계나 인테리어 부분에 자문을 할

수 있도록 처음 설계부터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처음부터 보고 자문을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저희는 이후에 고쳤는데 그러면 시간을 들여 고쳐야하고 비용도 많이 드니까. 처음부터 인력이 투입되면 공사할 때 수월할 것 같아요.’ (실무자 3)

(3) 신축이나 리모델링 표준 지침 제시

연구참여자들은 거주시설 리모델링이나 환경개선과 관련하여 관련자들이 참고할 만한 자료가 전혀 없다는 점이 환경변화를 저해하거나 어렵게 한다고 지적하였다. 시설의 소규모 전환을 모색해야 하는 대규모시설의 경우 표준화된 지침의 부재는 실무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제한하며 환경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감소시킬 수 있다. 특히 건축가가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거주인의 욕구와 특성에 부합하는 시설이 만들어지기 기대하기 어렵다고 우려하였다. 향후 거주인의 고령화와 부모의 사후 대안으로 거주시설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새로 진입할 거주시설 운영자나 설계 관련자가 참고할 수 있는 표준화된 지침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노인시설은 기본 매뉴얼이 있잖아요. 장애인은 분야가 다양해서 다소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 상황에 맞는 기본 매뉴얼이 필요한 것 같아요. 소규모 시설로 가려면 이런 상황에 적합한 거주시설 모델이나 중요하게 검토할 것 등 기준을 제시해주면 관련자들이 참고하여 시간도 에너지도 아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실무자 5)

‘저희는 샤워기나 수도꼭지 설치할 때 거주인이 손잡이를 잡아당겨야 하는 부분이 불편해서 신형이 아니어도 좋으니 편리한 것으로 해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최신행이라고 주장하면서 그걸로 꼭 하라는 거예요. 장애에 대한 이해가 없는거죠. 장애인 시설에 관여하는 사람들을 위한 쉽고 간단한 이론서나 매뉴얼이 꼭 필요한 이유입니다.’ (실무자 3)

‘저희 시설 같은 경우 원래 노인시설로 설립되었다가 시장 명령으로 지적장애인시설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니 특성에 맞추어 공사를 다 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기능보강비를 따로 안 주고 공사는 다 했어요. 문제는 시공할 때 장애인전문가라는 사람이 오셨는데 지적장애인 전문가가 왔어요. 그쪽에서는 유명하다는데 발달장애인에 대한 이해는 부족하신 거예요....(중략)... 공사과정에서도 요청을 해도 안 돼요. 발달장애 거주인 특성을 모르니 참 난감했습니다.’ (실무자 2)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장애인거주시설에서 거주인에게 직접서비스를 제공하는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거주시설의 전반적인 환경에 대한 실태 및 거주환경 변화에 대한 의견을 포커스집단 면담으로 파악하고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실무자들의 의견은 장애인거주시설의 현재 환경에 대한 문제나 한계, 거주시설이 환경 변화가 갖는 의미와 상징, 거주시설의 환경의 개선사항 등 크게 3개의 범주로 분석하였다. 질적분석을 통해 나타난 주요 결과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참여자들은 장애인거주시설 환경이 처한 문제에 대해 시설에 여전히 시설적인 요소가 많다는 점, 거주인이 사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점, 그리고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담당공무원 인식부족으로 인해 변화를 도모하는데 제약 마지막으로 환경의 영향에 충분히 공감하지만 실제로 현재의 여건들을 개선하는데 어려움이 큼을 호소하였다.

둘째, 연구참여자들은 장애인거주시설의 환경변화가 지향하는 의미에 대해 시설의 환경을 최대한 가정집과 유사하게 만드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설적인 요소를 최소화하거나 없애야한다고 여기고 있었다. 또한 소소한 환경개선이나 생활방식의 변화가 거주인에게 큰 만족과 기쁨을 주며, 환경을 구성할 때 이용자 입장에서 바라보고 욕구를 존중해야 하므로 이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설계단계부터 충분히 반영시킬 것을 강조하였다.

셋째, 연구참여자들은 장애인거주시설 환경 관련 개선사항으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제도 운영, 디자인 비용이 예산에 반영되어 신축이나 기능보강 등 환경개선을 할 수 있어야 하며 신축과 리모델링에 지침이 될 만한 표준매뉴얼의 마련 등을 제안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장애인거주시설 환경 변화를 지원하고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실천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거주시설 환경 변화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관련자들이 진지하고 고민하고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나 창구가 마련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 참여한 실무자들은 거주환경의 영향력에 대해 비교적 오랫동안 고민을 거듭해 왔다고 여겨지나 모든 거주시설의 실무자들이 이에 동의한다고 확신하기 어렵다. 거주시설의 실무자들은

제한된 공간에서 일상을 공유하고 있으므로 거주인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대상이다. 따라서 거주인들이 자발적으로 환경개선이나 변화를 요구할 때까지 기다리기보다는 시설운영자나 실무자들이 환경의 영향력을 공감하고 제대로 인식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거주시설의 창틀 모양이나 벽지, 내부 색깔과 공간배치, 문 여는 방법 등 사소한 변화에도 거주인들이 흡족해하고 심리적 안정감을 생겨났다는 연구결과를 일회성 성과로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환경의 중요성과 영향력을 인식하고, 어떠한 변화를, 어떻게 추구할 것인가에 대해 시설의 주요관련자들이 함께 고민하는 자리도 정례화되어야 한다.

둘째, 거주시설의 환경 변화에 거주인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결정할 수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거주시설의 특성상 일상의 모든 활동에 거주인의 자기결정과 선택, 참여 등을 보장하기에는 제한이 많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에서도 입증되었듯이 시설환경이 거주인의 정서와 행동에 영향을 끼치며, 환경을 개선하거나 디자인 요소를 가미할 때 거주인의 만족도가 높아졌다는 점이 입증되고 있으므로 이를 거주시설에 보편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거주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되어야 한다. 거주시설은 거주인의 일상이 유지되는 대표적인 공간이다. 따라서 거주시설 환경개선에 대한 거주인의 욕구와 필요도를 파악하여 각자의 취향과 선호에 부합하는 여건을 마련하고 만족도를 높여야 하며 동시에 거주인이 자신의 선택과 관심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결정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가 일상수준에서 제공되어야 한다.

셋째, 기능보강 예산을 산정할 때 일정 금액을 디자인 비용으로 반영시킬 수 있어야 한다. 신축이나 리모델링 과정에서 반영되지 못했다가 공사가 마무리 된 시점에서 인테리어를 변경한 사례는 시간, 예산 그리고 에너지 소모가 클 수 밖에 없다. 이와 같은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신축이나 기능보강의 예산을 추계할 때 디자인 비용을 산정하여 거주환경과 내부 구성에 대한 고민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만약 예산 반영이 어렵다면 디자인과 건축 관련 전문가들을 자문단으로 구성, 운영하여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볼직하다. 거주시설은 과거와 같은 단지 거주인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역할을 탈피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공간으로 중시되는 추세이다. 그러므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식 및 거주인의 욕구를 수렴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디자인 비용이 예산에 적절히 반영될 필요가 있다.

넷째, 장애인 거주시설의 건립하거나 리모델링을 계획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지침서가 요구된다. 거주시설에 관한 참고자료는 향후 소규모시설로 전환, 부모의 사후 대비 및 장애인의 고령화와 맞물려 거주시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신규 진입

을 앞둔 운영자, 건축가, 거주시설 담당 공무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절실하다. 특히 발달 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건축가의 경우 시설관련자의 요청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기가 쉽지 않으며, 시설입장에서는 설계 도면을 이해하기 어려워 공사가 마무리된 시점에 이르러 기관이 의도한 것과 공간구성이나 배치와 다름을 깨닫게 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차원에서 지침서가 마련되어야 한다. 지침서를 구성할 때는 효율적인 참고사례 뿐만 아니라 비합리적인 환경조성 사례도 같이 실리는 것이 관련자의 이해를 높이는 데 훨씬 유용할 것이다.

다섯째, 거주시설과 관련하여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제도 운영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행정우주 업무처리 방식, 현실적인 여건을 반영하지 못한 건축단가, 표준건축비와의 차이 등은 전형적으로 비합리적인 관중심의 제도라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실무자들은 영유아나 아동시설의 의무설치 사항인 점자블럭이 오히려 아동의 이동이나 활동에 불편을 초래하며 안전사고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이를 반영한 현실적인 지침, 안전하고 편안하고 거주인의 눈높이에 부합한 내부와 외부 환경 구성을 위한 방안들의 개발이 요구된다. 한편, 거주시설의 실태를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공무원의 이해를 돕고 거주시설의 변화를 촉진하기 위해 거주환경의 중요성과 시설실태 등을 교육과정에 포함시키고 기관과의 미팅을 모색하는 방식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장애인거주시설의 환경을 변화시키기는 사실 쉽지 않은 작업일 수 있다. 그러나 거주환경이 거주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가정과 같은 공간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현재 거주시설 환경에 대한 검토가 전제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장애인거주시설의 환경이 거주인에게 미치는 영향과 중요성에 대해 대중의 관심과 논의를 촉구하고자 시도되었다. 거주인 당사자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지만 환경에 대한 실무자의 인식을 파악하고 개선사항들을 모색하였다는 점에 의의를 지닌다고 하겠다. 향후 거주시설 환경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 참고문헌

- 김성희, 변용찬, 손창균, 이연희, 이민경, 이송희, 강동욱, 권선진, 오혜경, 윤상용, 이선우(2012). 2011년도 장애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용득, 김미옥, 변경희, 소진이, 장기성, 이복실, 강희설, 이금지, 백경원(2009). 장애인거주시설 서비스 최저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 보건복지가족부·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 김용득, 황규인, 허곤, 이호선, 김민지(2013). 장애인거주시설서비스 전환을 위한 종합 매뉴얼(발달장애인을 위한 소규모 거주시설의 설립과 개인별지원계획실천) 개발.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 나카조노 야스오 저, 성명옥 역(2004). 정상화원리의 연구. 창지사.
- 백은령, 이은미(2012). 장애인그룹홈 거주자의 정주감과 주거환경 개선 욕구에 관한 연구. 한국장애인복지학 19, 211-234.
- 보건복지부(2012). 2012년도 장애인거주시설 사업안내.
- 울프 울펜스버거, 뱅크 니르제, 사이몬 올렌스키, 로버트 퍼스케, 필립 루스(1972). 사회복지서비스와 정상화이론. 나눔의 집.
- 유동철(2011). 장애인생활시설 주거권 확보에 대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합의. 상황과 복지, 31.
- 임성만 편(2013). 한국장애인거주시설의 미래. EM 커뮤니티.
- 한국장애인개발원(2013). 복지디자인을 적용한 장애인거주시설 모형 설계 연구.
- Malone, A.(2003). Breaking Down the Barriers-Social housing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in Europe. CECODHA.
- Nirje, B.(1972).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In wolfensberger(ed.) *Normalization: The principle of normalization(pp. 176-200)*. Toronto : National Institute on Mental Retardation.
- Wolfensberger, W.(1972). The principle of Normalization in human services. Toronto: National Institute on Mental Retardation.



A Study on practitioner peception of environmental for disabled residential facilities

Lee, Bok-Sil

Lecture, Korea Cyber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aimed at finding out the problems and needs for improvement of the environment through a focus group interview residential facilities targeted at residential facilities practitioners. Focus group interviews were used for data collection in two groups of 10 people. The results are analysed into 3 categories.

The problem analysis categories of residential facilities environment (traditional facilities elements, lack of privacy space, lack of understanding of the importance living environment, environmental impact and change difficulty dilemma), value of the environment change of residence facilities (homes similar environments, small changes cause a large joy, users focused), improvements in the living environment (reasonable system, budget estimates, standard guideline).

Recognition of the importance of disability residential facilities environment based on the results of these analyzes was to derive a practical plan for institutional environments, such as home composition.

Considering with the results, this study made suggestions for policy and practice for the improvement of residential facilities in order to make the residence more homely and comfortable.

■ Key words : Disabled residential facilities, the importance of the environment, living environment changes

논문투고일 : 2014. 7. 20

논문심사일 : 2014. 11. 25

게재확정일 : 2014. 11. 28

원고투고요령

1. 원고투고요령

「장애인복지연구」에 논문 게재를 원하는 사람은 장애관련 주제에 대한 25페이지 이내로 논문을 작성하여 마감일까지 제출한다. 논문 투고 시 원고 및 투고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자메일로 제출한다. 이 때 투고신청서와 원고작성요령은 본원 홈페이지(www.koddi.or.kr)(공지사항)에서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원고와 함께 송부한다.

2. 학술지 발간 횟수 및 발간일

학술지의 발간 횟수는 연 3회로 하며, 매년 4월 30일, 8월 31일, 12월 31일에 발간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원고 투고 시기

학술지의 원고는 상시 투고할 수 있으며, 따라서 접수는 항시 한다. 제출된 논문은 「장애인복지연구」 편집위원회에서 정한 심사과정을 거쳐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4. 제출처

(재)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개발연구부 학술지 담당자
(150-917)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이룸센터 5층
e-mail: tuwollip@koddi.or.kr

<편집위원>

- 나영희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실장)
김용득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신숙경 (전주대학교 재활학과 교수)
이상이 (제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조한진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최 균 (사회복지연구평가원 원장)
최은영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기획·편집>

- 박주영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개발연구부 선임연구원)
이의정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개발연구부 연구원)

「장애인복지 연구」 제5권 제2호
Disability & Social Welfare

발 행 일 : 2014년 12월 31일

발 행 처 : (재)한국장애인개발원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13 이룸센터 5층

발 행 인 : 변용찬

대표전화 : 02-3433-0600

팩 스 : 02-416-9567

홈페이지 : <http://www.koddi.or.kr>

인 쇄 처 : 행복한 나무(02-324-7335)
